

기본연구 2007-05

# **충남의 관광수요와 개발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전략**

이인배



## 발 간 사

관광산업은 21세기 무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 관광발전에 요소가 되는 관광수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광수요의 창출과 관광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관광경쟁력은 물론이요 관광생명력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충남은 지역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객 및 관광자원의 편중성 극복, 계절적 집중의 분산과 4계절 이용 확대, 관광자원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관광객의 행태변화에 적합한 능동적 관광정책 추진, 사회구조와 현대적 여행패턴의 변화에 맞는 관광개발을 위한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관광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하드웨어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관광콘텐츠의 발굴, 그리고 감동이 담겨 있는 관광휴먼웨어 서비스를 조화롭게 갖추어 지역관광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관광개발은 도민 생활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두고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지역 자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 지역관광의 균형발전, 관광 이용패턴의 분산, 지역문화·정주 생활과의 조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 새로운 관광 환경에 맞는 충남 관광마케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충남 지역관광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계절적 편중보다는 분산형 관광 이용패턴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인접 지역과 관련 관광사업간 통합적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도형 관광정책과 추진방식의 채택, 관광충남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집중적 관광마케팅 전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유출에 따른 피해 대응 및 관광산업의 전화위복 기회 마련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충남 관광개발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관광시장 수요창출과 환기, 관광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한 충남의 관광진흥 등을 추진한다.

본 연구는 충남 관광수요와 개발실태 분석을 통해 대응과제와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정책추진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좀 더 세부적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를 향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원의 이인배 연구위원, 연구자문과 부문별 집필에 도움을 준 김성진 박사, 박근수 교수, 양광호 교수, 장인식 교수, 정병웅 교수, 정삼철 박사, 최영문 교수 등과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최흥기, 김경태, 서용제 연구원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제2장 국내 관광개발의 추이와 동향분석 .....	8
1. 국내관광환경과 정책의 변화와 동향 .....	8
1) 관광환경 .....	8
2) 관광행태의 추세 .....	10
3) 관광정책 기조의 변화 .....	11
4) 관광정책 패턴의 변화 .....	12
5) 관광정책의 구조 이해 .....	14
6) 관광정책의 대상과 활동 .....	16
2. 국내관광 환경변화 분석 .....	20
1) 관광환경 변화 .....	20
2) 관광환경 변화 전망 .....	22
3) 주5일 근무제에 의한 관광성향 변화 .....	25
3.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	28
1)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	28
2) 국내관광 수용태세 개선 .....	31
3) 복지관광 지원 .....	35

<b>4. 국내 지역 관광개발의 과제 .....</b>	<b>38</b>
1)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특성화 미흡 .....	38
2)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기반시설의 편중 .....	39
3) 지역 문화관광 개발의 혁신과 협력정책에 대한 노력 부족 .....	46
4)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내생적 발전 역량 미흡 .....	48
5)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시설 수준으로 인한 수요창출 미흡 .....	48
6) 하드웨어 위주 문화관광정책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저해 ..	49
7) 자생적인 지역주도형의 문화관광 정책사업 추진이 미흡 .....	50
8) 지역 문화관광정책의 통합조정력 부족 .....	51

### **제3장 충남 관광수요와 관광개발 실태분석 및 과제 .....**

<b>1. 관광수요와 행태의 분석 .....</b>	<b>52</b>
1) 관광수요 변화의 결정요인과 이해의 필요성 .....	52
2) 충남과 전국 시·도간 여행실태 분석 .....	54
3) 충남의 관광수요와 관광성향 분석 .....	62
4) 충남 여행행태 분석 .....	64
5) 충남 권역별 관광객 행태 특성 .....	76
<b>2. 관광개발실태 분석 .....</b>	<b>79</b>
1) 충남 관광도시와 관광지 개발실태 .....	79
2) 충남 관광지원시설 실태 .....	89
3) 충남 관광상품과 지역특산물 실태 .....	98
4) 충남 관광안내와 홍보 실태 .....	107
<b>3. 충남 관광수요와 개발실태 분석의 도출 과제 .....</b>	<b>117</b>
1) 관광객과 관광자원의 편중성 극복 .....	117
2) 계절적 집중의 분산과 4계절 이용 확대 필요 .....	110
3) 관광자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추진 필요 .....	111
4) 관광객의 행태변화에 적합한 능동적 관광정책의 추진 요구 .....	114
5) 사회구조와 현대적 여행패턴의 변화에 맞는 관광개발 요구 .....	116
6) 관광수급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필요 .....	118

**제4장 충남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 ..... 119**

1. 충남 관광개발의 이념과 목적 ..... 119
2. 충남 관광개발 추진의 기본방향 ..... 120
  - 1) 충남 지역관광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 120
  - 2) 계절적 편중보다는 분산형 관광 이용패턴의 정책 추진 ..... 121
  - 3) 지역문화와 새로운 관광패턴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자원 개발 ..... 121
  - 4) 인접 지역과 관련 관광사업간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 122
  - 5) 지역주도형 관광정책과 추진방식의 채택 ..... 122
  - 6) 관광충남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집중적 관광마케팅 전개 ..... 122
  - 7)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대응 환경관광지대 육성 ..... 123
3. 충남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 ..... 124
  - 1) 충남 관광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접근 개념 ..... 124
  - 2)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 125
  - 3) 관광시장 수요창출과 환기 ..... 135
  - 4) 관광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한 충남의 관광진흥 추진 ..... 14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60**

1. 결론 ..... 160
2. 정책제언 ..... 161
3. 연구의 한계 ..... 163

**참고문헌 ..... 164**

# 표 목 차

<표 I-1> 충남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수요 변화 전망 .....	2
<표 II-1> 국내 관광행태의 변화 추세 .....	11
<표 II-2> 국내 관광정책 기조 변화 .....	11
<표 II-3> 관광정책의 유형 분류 .....	15
<표 II-4> 국민 국내관광 변화 추이 .....	20
<표 II-5>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한 국민 관광수요 변화 예측 .....	23
<표 II-6> 관광활동의 관련 요인별 변화 전망 .....	24
<표 II-7> 건전국민관광 홍보실적 .....	29
<표 II-8> 2006년 복지관광 프로그램 실시 현황 .....	36
<표 II-9> 지역별 문화관광자원 분포 현황 .....	41
<표 III-1> 국민 여행성향 분석 .....	55
<표 III-2> 국내여행 방문지(2004~2006년) .....	58
<표 III-3>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 및 향후 방문 희망 지역(2004~2006년) .....	59
<표 III-4> 방문지별 재방문 의사 및 타인 추천 의사(2004~2006년) .....	60
<표 III-5> 국내여행 방문지역별 만족도(2006년) .....	61
<표 III-6> 충남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수요 변화 전망 .....	62
<표 III-7>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예측치와 충남 관광객수(인회/지점) 수요예측결과 와의 상호비교를 통한 충남관광 수요변화 .....	64
<표 III-8> 국내 여행 방문지역 시·도별 비교 분석 .....	65
<표 III-9> 충남 여행시기 분석 .....	67
<표 III-10> 충남 여행동반자 유형 분석 .....	68
<표 III-11> 충남 여행동반자수 분석 .....	68
<표 III-12> 충남 여행체류기간 및 소요시간 분석 .....	69
<표 III-13> 충남 여행방문지 주요 활동 분석 .....	70



<표 III-14> 충남 여행시 숙박장소 분석 .....	70
<표 III-15> 충남 여행시 교통수단 분석 .....	71
<표 III-16> 충남 여행시 1회 기준 여행비용 .....	72
<표 III-17> 충남 여행시 개선 요구사항 .....	74
<표 III-18> 전국과 충남 여행의 만족도 차이(GAP)분석 .....	75
<표 III-19> 태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요 .....	80
<표 III-20> 전국대비 충청남도 관광특구 지정현황(2007년) .....	81
<표 III-21> 충청남도 지정관광지 현황(2007년) .....	82
<표 III-22> 전국의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현황 .....	83
<표 III-23> 전국대비 충남 관광개발사업 현황 .....	84
<표 III-24> 충남 문화관광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현황 .....	85
<표 III-25> 농·산·어촌체험마을 관련 사업현황(2005년) .....	86
<표 III-26> 온천지구 현황(2005년) .....	87
<표 III-27> 골프장 현황(2005년) .....	87
<표 III-28> 해수욕장 분포 현황(2005년) .....	88
<표 III-29>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현황(2005년) .....	88
<표 III-30> 관광호텔업 등록 현황(2005년) .....	89
<표 III-31> 관광호텔 객실이용율 (2005년) .....	90
<표 III-32>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현황(2005년) .....	91
<표 III-33> 충청남도 관광숙박시설 현황 .....	92
<표 III-34> 숙박업 현황(2005년) .....	92
<표 III-35> 시·도별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현황(2005년) .....	93
<표 III-36>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등록 현황(2005년) .....	94
<표 III-37> 관광편의시설업 시·도별 지정 현황(2005년) .....	95
<표 III-38> 유원시설업체 현황(2006년) .....	96
<표 III-39> 여행업 등록 현황(2005년) .....	97
<표 III-40> 충남지역의 문화관광부 지정축제(2006년) .....	98
<표 III-41> 2005년 향토문화축제 개최실태분석(2006년) .....	99
<표 III-42> 2006년도 충남 템플스테이 이용현황 .....	100
<표 III-43> 충남권 당일 관광코스 .....	102

<표 III-44> 충남권 1박2일 관광코스 .....	103
<표 III-45> 충남권 2박3일 관광코스 .....	104
<표 III-46> 충청남도 시군별 농·특산물 지정현황(2005년) .....	106
<표 III-47> 관광객 안내소 현황(2005년) .....	107
<표 III-48> 충청남도 관광권역별 관광객 방문객 분포 .....	108
<표 III-49> 시군별 관광자원군 분포 특성 분석 .....	109
<표 III-50> 충청남도 계절별 관광객 이용특성 .....	110
<표 III-51> 해수욕장 분포 현황 .....	111
<표 III-52> 충청남도 관광수급 분석 .....	112
<표 III-53> 관광개발 자원유형과 규모 비교 .....	113
<표 III-54> 충청남도 관광권역별 관광객 증감율 분석 .....	114
<표 III-55> 해양관광 참여인구 및 전망 .....	115
<표 III-56> 2000-2006년 충남 서해안 관광객수 변화추이 및 증감율 .....	115
<표 III-57> 충청남도 관광시 1일당 목적지수 변화 .....	117
<표 IV-1> 관광권역 설정 및 관광특화 주제 .....	126
<표 IV-2> 충청남도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관광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개발사업 .....	127
<표 IV-3>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제시사업 .....	128
<표 IV-4>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내용 .....	134
<표 IV-5> 충남 춘절기 관광자원 연계 개발 예시 .....	137
<표 IV-6> 충남 5대 관광권역별 개발가능 관광자원 .....	142
<표 IV-7> Visit Chungnam 2010 사업계획(안) .....	154

#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의 흐름도 .....	7
(그림 II-1)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에 따른 연간 국민 국내관광 횟수 .....	25
(그림 II-2) 거주지별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에 따른 국민 국내관광 횟수 변화 .....	25
(그림 II-3)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 적정 이동시간 변화 .....	26
(그림 II-4) 거주지별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 적정 이동시간 변화 .....	26
(그림 II-5)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 적정 이동거리 변화 .....	27
(그림 II-6) 거주지별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 적정 이동거리 변화 .....	27
(그림 II-7)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의 당일 숙박여행 변화 .....	27
(그림 II-8) 거주지별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 기간 .....	27
(그림 II-9) 지역별 전체 관광자원 분포 현황 .....	40
(그림 II-10) 수도권·비수도권 관광사업체 분포 현황(2004년) .....	42
(그림 II-11) 관광자원수 대비 지역별 숙박관광객 점유율 .....	44
(그림 II-12) 관광자원 수 대비 지역별 당일관광객 점유율 .....	44
(그림 II-13) 관광자원 수 대비 지역별 숙박 객실수 비율 .....	45
(그림 II-14) 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이해관계자 집단 .....	47
(그림 III-1) 충남 여행의 만족도 .....	73
(그림 III-2) 전국과 충남 여행의 만족도 차이(GAP)분석도 .....	75
(그림 IV-1) 충남 관광개발의 이념과 목표 .....	120
(그림 IV-2) 충남 관광개발 전략의 접근개념 .....	125
(그림 IV-3) 충남 관광권 구분도 .....	126
(그림 IV-4) 관광거점도시 개발구상도 .....	131
(그림 IV-5) 태안 ‘가칭 환경관광지대’ 개념도 .....	158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1) 새로운 관광환경과 트렌드에 적합한 관광발전전략의 모색 요구

국제사회 변화의 사회·문화 환경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광시장의 확대, 기술개발과 신관광산업의 성장, 관광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개발과 신관광(new tourism)의 관심증대 등이 있다.

정치·경제환경으로는 세방화(Glocalization)의 진행과 관광 경쟁력 심화, 동북아와 국내외 관광수요공급 증가, 신흥시장(BRICs)의 등장과 관광시장 영향,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환경 변화의 사회·문화 환경으로는 KTX개통과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가치관 변화와 관광수요의 다양화·다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건강과 환경 중심의 생활양식 확산 등이 있다.

정치·경제 환경으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역할 증대, 남북교류의 활성화, 자립형 지방화 실현,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7).

### 2) 충남 관광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목표와 관광정책의 방향 제시

충남의 관광객수에 대한 숙박관광객수와 당일관광객수 변화추이를 계산한 결과, 2005년 숙박관광객 56,681천명, 당일관광객 28,637천명 총 85,318천명서 2020년에는 숙박관광객 111,149천명 및 당일관광객 24,529천명 총 135,679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숙박관광객이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한 충남의 참가점유율은 숙박관광이 2005년 9.8%에

서 2020년 12.5%까지 증가되며, 당일관광은 2005년 8% 수준에서 2020년 10.2% 수준까지 증가하여 충남지역은 당일관광객보다 숙박관광객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일 평균 목적지수는 2005년 2.4곳의 관광지 방문에서 2020년 1.6곳으로 예측되어, 점진적으로 선진국형 단일목적지 체류형 관광형태가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표 1-1〉 충남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수요 변화 전망

(단위 : 천인, 지점)

구 분 \ 년 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관광객수 (인회/지점)	충남	숙박	56,682	65,992	81,073	96,825
		당일	28,636	28,223	32,911	38,854
		소계	85,318	94,215	113,984	135,679
충남 관광 1일당 목적지수(지점)			2.4	1.7	1.7	1.6

자료 : 이인배·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특히, 충남의 관광수요 변화분석으로 도출 과제로서,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패턴의 변화 유도, 계절적 관광패턴에 적합한 관광공간과 프로그램 제공, 새로운 관광활동 기회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 관광시설과 공간 개발의 효율적 추진, 다양한 관광계층과 청·노년층을 위한 관광기회 확대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충남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 수요변화 특성을 반영한 장기비전과 관광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광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3) 관광수요와 공급측면에 고려한 지역 관광정책의 추진 필요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사회는 여가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이에 국민들의 여행활동이

나 관광체험 추구가 증가했고, 동시에 여가권이나 관광인식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역시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현대는 관광전성시대라고 할 만하며, 사회적 여건과 상황변화로 인해 관광과 관광산업의 수요와 공급이 전에 없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광통계상의 여러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추구로 인해 관광객의 욕구가 다양한 체험을 요구하고 있고, 주5일근무제의 도입으로 주말을 전적으로 여가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점차 여가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었고, 사회적 가치관이 가족중심주의로 흐르면서 개성관광의 추구하고 함께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특별관심관광(SIT)을 통하여 가족단위로 체험에 나서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기분전환과 동시에 노동에서 찾을 수 없는 생의 다양한 후면적 의미와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각 지자체 단체장은 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얼마간의 가시적이고 정략적 개발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관광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나아가 문화시설의 확충 및 여가공간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으로 개편과정에 있고 이제 1차 산업이나 제조업이 한국적 상황에서 경쟁력을 상실해간다는 반영이기도 하다. 더불어 최근의 관광 붐은 여타 산업과 협업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산업이 가지는 내생적 장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 4) 최근 문화관광개발정책과 사업평가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추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역관광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법정계획은 현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각 시·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하나 이들 계획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의 관광개발사업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와 기초단체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사업평가와 진단을 통하여 관광자원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국 227개 중 203개소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충남은 총 25개 관광지 중 22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문화관광개발사업은 178개중 158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4개 사업인데, 이중 충청남도는 문화관광자원개발 9개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3개 사업이 대상이었다.

이상과 같은 추세로 볼 때, 충남에서도 그 동안 추진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추진사업과 시군의 개별 문화관광 및 생태·녹색관광자원의 개발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관광개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는 국내외의 관광환경과 트렌드의 변화, 장기적인 관광발전목표와 지표의 설정, 충남 관광자원의 개발정책과 사업을 평가·진단하여 충남의 관광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충남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여 관광장기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하며, 도와 시·군의 관광자원 개발실태의 분석과 연계한 충남 관광발전 전략의 제시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의 관광수요 변화와 공급의 실태를 분석하여, 충남지역 관광발전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과제를 제시

둘째, 충남 관광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대응과제별 계획방향과



사업내용, 정책추진 방안 등 발전전략을 제시

본 연구는 1단계에서 수행된 충남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를 토대로 이와 연계되는 도와 각 시·군의 관광계획과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공급의 실태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충남의 관광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2단계 연구이다.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충남의 시·군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관광객의 수요분석을 위하여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고, 앞으로 10여년 후의 관광수요를 예측하였다. 따라서 시간적 목표연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수급분석에 있어서는 정책추진의 목표를 감안하여 2020년까지 수요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연구목적에서 제시한대로 충남의 관광수요와 관광개발 실태를 분석하여 충남 관광의 과제를 찾고, 해결해야할 과제별로 관광정책의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I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국내 관광환경과 정책의 변화와 동향, 국내관광 환경변화 분석,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국내 지역 관광개발의 과제 등을 검토 하였다. III 장에서는 충남 관광수요와 행태의 분석, 충남 관광개발실태 분석, 충남 관광수요와 개발실태 분석의 도출 과제를 제시하였고, IV장은 충남 관광개발의 이념과 목표, 충남 관광개발 추진의 기본방향, 충남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V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정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2006년의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로 1단계연구로 수행하였고, 2007년의 2단계 연구단계로서 2006년에는 전국과 충남의 관광수요변화 비교 분석, 충청남도 관광객 이용성향, 충청남도 관광수요예측 전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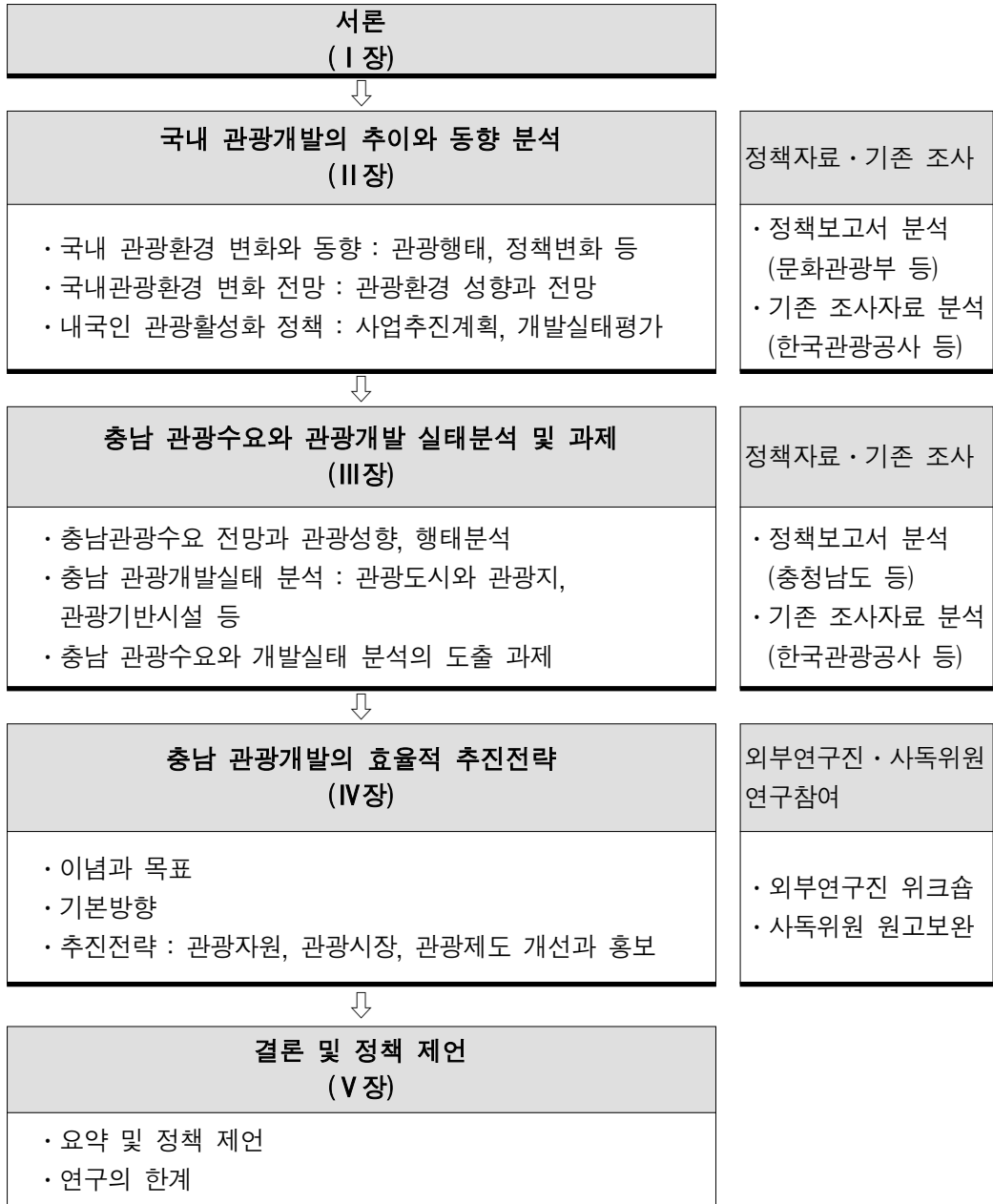
을 통해 충청남도의 관광정책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007년에는 2006년에 제시된 과제를 중심으로 충남 관광수요와 관광개발실태를 분석하여, 충남 관광개발의 이념과 목표, 기본방향 효율적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수요영향요인과 선택요소 도출 관광수요와 관련된 연구논문, 이론서적, 정책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정책자료의 분석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관광관련 기관의 관광실태조사 자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 관광개발계획 및 관련계획의 설문조사결과 및 통계자료 분석과 중앙정부 및 도, 각 시·군 관광자원개발 시책 및 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하였다.

충남 관광수요와 성향의 자료 분석은 중앙정부의 통계자료, 충청남도 및 시군 통계자료, 한국관광공사 전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및 통계자료 등 분석하였다. 수요예측 변수는 충청남도 통계자료,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객 이동통계 D/B자료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충남 관광객의 여행실태 분석은 중앙정부의 통계자료 및 정책보고서, 한국관광공사의 전국민여행실태조사,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서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각 시·군에서 기계획 된 관광개발계획 등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제2장 국내 관광개발의 추이와 동향분석

### 1. 국내 관광환경과 정책의 변화와 동향

#### 1) 관광환경

주5일 근무제 확대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관광수요가 급증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레저, 스포츠 활동 및 근거리, 단기간의 국내·외 여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휴가분산 확대로 숙박관광과 장거리 관광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여가활용 및 여행패턴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 의학기술 발달 및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소자녀화, 핵가족화, 고령화 현상 등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관광행태와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가시간의 증가는 국민 국내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대를 야기하였다. 국민 국내관광 총량은 IMF의 영향으로 한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어 2005년 38억 8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07년엔 47억 100만 명, 2010년에 53억 1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여가시간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다양한 여가행태 및 활동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단체관광 및 경관중심의 관광에서 자유관광과 특별목적관광 등으로 관광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관광에 참여하는 유형은 개성추구형, 가족동반형, 도시탈피형, 자기계발형, 자기추구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관광자원 측면의 변화로는 생태관광, 문화관광, 모험관광, 테마관광 등으로, 관광시장 측면의 변화로는 가족관광, 체험관광 등의 동적이고 참여지향적인 관광행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관광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관광매력성 부족과 고물가 환경의 관광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광수요의 상당부분을 해외 관광시장으로 빼앗기고 있어 자칫 관광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고착될 우려를 안고 있다. 2005년 내국인 해외여행자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한 1,007만여 명이 해외여행에 나서 최대기록을 경신하였다.

지자체의 관광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로 지역관광개발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산업으로서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화관광부 이외에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에서도 관광관련 정책지원 사업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자체 단위 관광개발 계획 및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꾀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지, 관광특구 지정권한이나 관광사업 등록 및 인허가 권한 같은 관광관련 행정권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관광정책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부처별로 다양한 관광관련 정책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토계획에서도 관광관련 거점 개발 계획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이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국가균형발전 및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닌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2004년 10월,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행태와 관광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에 편승하여 관광개발 양식을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형태에서 벗어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광인력을 고려한 휴먼웨어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광환경과 관광행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형식의 관광개발인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레저도시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단일기능의 관광단지식 개발을 벗어나 개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내관광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내관광에서 지속적인 남북관광교류를 통한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잠시 위기도 있었지만, 2002년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2003년 금강산 육로관광 확대 등으로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2005년 개성 시범관광을 통해 북한의 관광가능지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광활동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북한에 대한 간접적 경제지원의 효과 뿐 만 아니라 관광을 통한 북한지역 이해 기회의 증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관광의 환경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 남북관광협력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외부적인 기회요소는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국내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관광인프라 확충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6).

## 2) 관광 행태의 추세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민 국내관광 행태 변화의 주요 특징은 관광의 대중화·생활화, 관광단위의 소집단화, 관광수단의 편리화, 관광활동의 개성화·다양화, 관광의 단기간·수시화, 관광목적지의 분산화를 들 수 있다

관광산업 환경 측면에서도 관광산업의 외연확대, 유사관광시설의 증가에 따른 신관광비즈니스 기회의 등장,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온라인 관광시장의 확대, 소비의 서비스화, 콘텐츠형 산업구조로의 변화 등이 주요 정책환경 변화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II-1〉 국내 관광행태의 변화 추세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여행형태	단체 관광 위주	소집단 관광 지향	가족단위 관광 정착
여행거리	단거리	중·장거리	전국 구석구석
여행행태	정적 관광(감상, 휴식)	정적, 동적 활동 병행	동적 관광(체험)
여행수단	대중교통수단(버스)	개별 교통수단 지향	개별교통수단(승용차)
여행상품	단순 관람 감상형	지역특성 상품형	SIT, 체험 관광형

자료 : 심원섭(2007), 국내관광 활성화 중장기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3) 관광정책 기조의 변화

정부의 관광정책은 인바운드 중시에서 인·국내관광 병행추진, 인·아웃·국내관광 개별육성, IMF시기 인바운드 중시를 거쳐 현재는 ‘국내관광을 중심으로 한 인·아웃바운드의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전개된다.

〈표 II-2〉 국내 관광정책 기조 변화

구 분	1975~1988년	1989~2003년	2004년 이후
전환요인	-관광기본법제정 (1975)	-지방자치제도 실시 -아웃바운드 자유화 (1989)	-주5일근무제 도입 (2004)
정책기조	-외래·국내 관광 병행	-지역발전형 국내 관광	-고객지향형 관광정책
국내관광 정책	-국민관광을 위한 자원 개발 모색	-문화·친환경, 지역발전형 관광정책 추구	-정보, 웰빙, 복지 교육형 관광정책 유도

자료 : 심원섭(2007), 전거서

#### 4) 관광 정책패턴의 변화

##### (1) 신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국형 관광문화의 정립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녹색관광, 농촌관광, 자연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 뿐만 아니라 대안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책임 관광, 소집단관광, 연성관광 등 다양한 관광개발방식이 등장하였다.

특히, 이들 관광형태와 개발방식을 통합 신 관광(new tourism)은 관광의 양적, 질적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을 모색하려는 한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관광형태이다.

또한, 관광과 산업간 복·융합, 유비쿼터스(ubiquitous), 관광테크놀로지(tourism technology), 관광인적자원에 기반을 둔 국내관광의 활성화는 21세기 글로벌 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형 관광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토양이 될 수 있다.

##### (2) 국가 관광정책변화의 효과적 해결수단

국내 관광의 활성화는 종래 인바운드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국내관광을 중심으로 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간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유치, 아웃바운드 관광수요의 적정화에 기여함으로써 관광부문간 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내관광 여건이 갖추어져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덜 나가고, 외국 사람이 더 들어온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또한, 정부의 각종 관광진흥시책, 지역활성화 시책의 추진에 따라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국내관광의 육성은 국내산업의 소프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며, 지역 및 국가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여할 수 있다.



### (3) 신관광 시대 국민·지역·국가발전의 기여도 제고

국내관광의 활성화는 주5일 근무제 시행, 해외여행의 보편화 등 국내 관광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품질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의 관광수용태세는 취약한 상황으로 해외여행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관광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 관광욕구(needs)를 따라오지 못하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수용태세는 국내관광 혁신을 위한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국내 관광활성화는 점차 해외로 이전되는 국민의 관광수요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경제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소득 및 고용창출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4) 양적 대중관광에서 질적 대안관광으로의 전환에 기여

국민생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웰빙과 로하스(LOHAS)를 지향함에 따라 국내관광 부문도 양에서 벗어나 질적 관광으로 근본적인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관광이 종래와 달리 단순 휴식과 기본전환을 넘어서 체험과 교육 등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국내관광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사회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집단이 출현하는 등 소비유형이 유기적으로 변화고 있으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광기업들의 연구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관광시장의 확산뿐만 아니라 관광행동,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정책 등 제반 관광행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한국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sup>1)</sup>

---

1) 심원섭(2007), 국내관광 활성화 중장기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5) 관광정책의 구조 이해

### (1) 관광정책의 유형과 범주

관광정책의 하위범주로서 관광시장, 관광교통, 관광대상, 관광기업 등에 대한 정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관광시장정책은 관광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관광정책은 내국인 국내관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식 제고, 복지관광, 관광정보 및 홍보, 관광소비자보호 등의 시책이 포함된다.

관광교통정책은 관광교통수단(항공기, 선박, 자동차, 철도, 지하철, 철도 및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교통수단)과 관광교통시설(공항, 항만,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관광교통편의(교통정보, 소요시간, 접근성, 거리 등)에 대한 시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대상정책은 관광객의 행위대상이 되는 관광자원 및 시설에 대한 시책으로 관광자원 개발, 관광자원 개발지원, 관광축제 및 이벤트개발, 관광코스 개발, 관광자원 보호 등으로 구분된다.

관광기업정책은 관광객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들의 사업에 대한 시책을 말하며 관광사업 육성 및 규제, 관광상품 개발, 관광인력양성, 관광기업 경영지원 등이 포함된다.

〈표 II-3〉 관광정책의 유형 분류

연구자	분 류
영목총의	① 대상에 따른 분류 - 경제정책 : 교통정책, 호텔정책, 화폐정책, 재정정책 - 문화정책 : 문화재보호정책, 문화교류정책 ② 범위에 따른 분류 - 대외정책 : 국제적인 관광정책, 국가적인 관광정책 - 대내정책 : 국내관광정책 ③ 지역에 따른 분류 - 전국적인 정책 : 국가적(전체적)인 관광정책 - 지방적인 정책 : 각 시도의 관광정책 - 지역적인 정책 : 특정지역의 관광정책 ④ 수단과 방법에 따른 분류 - 대외정책 : 국외관광홍보정책, 해외관광정보입수 및 판매정책 - 대내정책 : 관광관리정책, 관광촉진정책, 보조진행정책, 상품조사정책, 교통정책, 훈련정책, 교육정책
이연택	① 산출효과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 - 분배 : 관광자원개발정책, 관광진흥정책, 관광인력지원정책 - 규제 : 관광자원보전대책, 관광소비자 보호 및 안전대책 - 재분배 : 장애인관광대책, 저소득층관광대책 - 구성 : 관광정책자문기구설치, 국제회의전담기구 설치대책 - 상징 : 친절서비스대책, 관광이미지 제고대책 등 ② 정책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 관광개발정책, 관광마케팅정책, 관광산업정책 등 ③ 정책대상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 국민관광, 국제관광, 국제관광협력정책
박종택	① 국민관광진흥 : 내국인 관광활성화, 국내관광수용태세 개선, 복지관광 기반 확충 ② 국제관광진흥 : 해외관광진흥활동, 국제협력증진활동 등 ③ 관광자원개발 : 관광상품개발, 관광지·관광단지 등 각종 관광개발계획의 수립과 관광인력 양성 등 ④ 관광산업육성 : 숙박업, 여행업, 카지노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사업의 육성

자료 : 심원섭(2007), 국내관광 활성화 중장기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요약

## 6) 관광정책의 대상과 활동

국내관광정책의 대상은 관광공급자와 관광수요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수동적일 수도 있고 능동적일 수도 있으며, 채택되어진 행위들도 통제 혹은 지원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관광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거나 관광시장을 중시하거나 계획화(planification)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시책은 관광공급부문 및 관광수요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전자를 중시할 경우 생산자 지향형 관광정책이라 할 수 있고, 후자를 강조할 경우에는 소비자 지향적 관광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양 정책대상 부문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 (1) 공급자 대상(생산자 지향적) 관광정책

관광정책은 일차적으로 관광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측면, 즉 공급부문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는 공급의 수용력이나 질, 가격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의 자연적, 인적, 그리고 인공적 자원에 대한 것도 관련된다.

#### ① 관광자원(tourism resources)

정부기관은 법률적 수단에 의거하여 국가의 중요한 관광대상의 하나인 자연 및 인적자원을 보호한다.

역사유적이거나 국립공원, 해변, 지역주민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는 선매권(preemptive rights)이나 특별세를 도입하여 특정한 토지에 대한 통제를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대책들은 정부가 관광개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일관된 정책과 명확한 정책목표를 견지하지 않는 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관광자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정부가 관광자원의 보호는 물론 재정적 지원과 유지관리, 상업화 등 모든 행위수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관광인프라(infrastructure)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항상 시설의 유지와 관리는 물론 필요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책임에 의해 조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 민간투자자들은 기반시설의 비용을 대개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한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기반시설들이 국가의 관광잠재력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반시설과는 달리 관광인프라는 대개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자들이 담당한다. 물론 공공부문이 법규의 적용이나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그리고 직·간접적인 유지라는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한다.

선진국의 경우 스키리프트나 요트항만과 같은 것은 제외하고 직접적인 투자 보조금은 흔하지 않지만 용자보증이나 우대금리, 이자면제 등과 같은 조치들이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 ③ 관광·레저시설 및 편의제공

민간부문의 책임일지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관광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및 편의, 투자와 관리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서 다양한 법령과 기관들이 소비자의 보호 혹은 시장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통제를 가하게 되며 투자에 대한 통제는 관광시설의 건축과 수용력, 토지거래가격, 안전 및 위생기준 등의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부과되는 가격이나 보조금의 지급, 숙박시설과 캠프장의 등급제 등과 같이 정부의 승인에 의한 가격통제는 정부가 관광시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들은 또한 관광 및 레저시설과 편의시설 자체를 운영함으로써 직접적인 개입을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많은 정부들은 주요 운송시설(항공 및 철도), 호텔체인(국영항공사나 철도를 통하여), 여가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다.

더욱이 관광행정기관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 노동조건(노동시간, 휴가, 보수, 사회적 편익 등), 인력의 조건(자격증)에 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 ④ 유통통로(distribution channel)

투어오퍼레이터, 여행 및 임대업체, 가이드 서비스 등과 같은 모든 중간매개체들은 공공기관에 의해 밀접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주로 인허가 과정에서 개개 사무소의 직업적 위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주된 관심사는 소비자의 보호이며 이는 제품은 소비되기 이전에는 보통 볼 수도 시험해볼 수도 없으며, 구매한 곳을 미리 가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정부들은 직·간접적으로 투어 오퍼레이터나 여행대리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공공적 효용성(public utility)이 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모든 국가들은 또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광지로서 국가를 홍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종종 중앙정부나 그것에 의해 보조를 받은 기관들이 될 수 있으며, 민간부문과 공동 투자한 자율적인 법인체도 있을 수 있다.

### (2) 수요자 대상(소비자 지향적) 관광정책

정부의 관광정책은 실질적이든 또한 잠재적이든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을 목표로 하며, 주요 관심사는 관광시설의 이용자수를 증대시키거나 최소한 그것의 과소이용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산업의 이익창출에도 똑 같은 비중을 둔다.

#### ① 관광촉진(tourism promotion)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면 관광객으로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촉진활동은 그것이 직접적인 홍보이든 아니면 대중문화의 발달에 의해서든 관광욕구를 결정하고 유지하며 증대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관광촉진에는 상당부분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관광객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관광여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예 : 휴가분산, 여행비 보조 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②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

잠재적 관광객들은 휴가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간휴가의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시간의 탄력성, 주 3~4일 주말제, 그리고 학교방학, 휴가기간수 등은 관광수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③ 경제정책수단과 사회관광

아무리 여행욕구가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해도 소득이 없는 경우 잠재관광수요는 계속 유예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관광 관련 정책을 통하여 관광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즉, 최저임금제, 봉급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기여제도, 주요 관광지의 서비스 가격, 캠핑장비·캐러반·보트·별장·콘도분양 등에 관한 구매조건 등에 대하여 법령을 운용한다.

적절한 사회제도가 강구된다 하더라도 이들 조치들은 저소득층이나 불이익 계층(노인층,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들이 정기적으로 여행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이들 경제적 약자를 도외시킬 수 없으며, 특히 교통수단의 이용이나 휴가촌과 유스호스텔의 건설시 보조금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 ④ 관광이동(tourism flow)

정부는 관광수요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련의 규제를 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캠핑은 어떤 적정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이나 해상스포츠도 안전과 생태적 이유로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국립공원이나 도시중심지에는 접근을 금지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국제관광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

## 2. 국내관광 환경변화 분석

### 1) 관광환경 변화

#### (1) 국내 내국인 관광객수에서 숙박관광의 지속적인 증가

전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내국인 관광객은 당일관광보다는 숙박관광의 횟수와 1인당 참가일수, 관광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II-4〉 국민 국내관광 변화 추이

구 분		1997	1999	2001	2004	2005
당일 관광	경험율(%)	78.4	77.4	85.9	76.8	76.7
	1인당 참가횟수(회)	5.7	3.7	4.6	3.2	3.8
	관광객(천 명)	28,196	27,836	32,267	29,770	30,004
	관광총량(천 명)	204,276	134,505	171,289	124,816	148,650
숙박 관광	경험율(%)	59.6	63.7	71.0	81.8	79.9
	1인당 참가횟수(회)	1.3	1.4	1.5	1.4	2.8
	1인당 참가일수(일)	3.9	3.8	3.7	3.8	6.1
	관광객(천 명)	21,435	22,909	26,670	31,708	31,256
	관광총량(천 명)	139,900	138,102	55,970	102,721	109,140

자료: 한국관광공사(각 연도), 『국민여행실태조사』



## (2) 국토 균형 개발계획 및 지방 정부의 관광진흥 노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목표는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경제적 측면의 외화획득’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부처별로 다양한 관광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토계획에서도 6대 관광관련 거점 개발 계획이 중요시되고 있다.

국내 관광환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산업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을 점점 높여 가고 있으며 지역의 자연·역사·문화관광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도모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권한이나 관광사업 등록 및 인허가 권한 같은 관광관련 행정권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관광정책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국내 관광 수요 증대 및 국민 삶의 질 고양을 위하여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 (3) 국내 관광 인식 및 여건의 개선

국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관광을 단순 소비·사치 개념에서 여가를 이용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 의학기술의 발달 및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사회의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가족중심의 관광활동, 노인층의 관광 참여 확대, 건강과 관련된 관광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1980년대 1.4%대였던 인구증가율이 2000년 0.71%에서 2023년 0%로 감소할 전망이다. 평균자녀수는 1970년 4.53명에서 1990년 2.83명, 1999년 1.42명으로 감소하였다. 국내 65세 이상 노령인구 구성 비율은 2000년 7.1%, 2010년에는 1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속철도(KTX)와 도로의 신설 등에 따른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전국이 반

일권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IT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 및 관광상품 구매의 편리성이 증대(인터넷 온라인 예약 시스템)되는 등 관광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그 밖에도 민간 및 정부의 투자 확대에 따라 관광단지 및 숙박시설, 위락시설, 식음료시설, 관광 안내체계와 공중화장실 같은 공공편의시설의 개발 및 개선 등 선진적 관광여건 수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4) 새로운 관광 소비자의 요구(needs & wants)에 따른 관광행태 변화**

최근 관광 소비자들은 획일화된 단순 소비·관람형 대중관광에서 벗어나, 독특하고 새로운 체험 및 감성소비를 중요시하고 특정한 테마를 가진 특화관광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3E+2E(Excitement, Entertainment, Education + Experience, Ecology)로 집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순 시각관광을 넘어서 5감을 만족시키는 체험형 관광을 통해 흥분과 즐거움,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의 욕구를 가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적·생태적 관광활동을 선호하는 관광객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체험관광, 생태·녹색관광, 문화관광, 축제관광,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테마관광, 농촌관광 등의 새로운 관광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2) 국내 관광환경 변화 전망**

### **(1) 국내 관광객수의 지속적 증가**

국내관광 관련 지표변화를 살펴보면, 참가회수(인/일)는 전국적으로 숙박관광객수가 2005년 2.4억명에서 2010년 3.3억명, 2015년 4.1억명 그리고 2020년 5.0억명 수준까지, 당일관광객수가 2005년 1.5억명에서 2010년 1.6억명, 2015년 1.7억명 및 2020년 1.8억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숙박관광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005년 기준물가로 비교해 볼 때, 평균여행비용(원) 증가에 있어서도 숙박관광은 2005년 26만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60만원 수준까지 대폭 증가되며, 당일관광객은 오히려 2005년 10만원 수준에서 약 8만원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균참가회수(회)에서도 2005년 숙박관광객 2.8회, 당일관광객 3.8회에서 2020년 숙박관광객 6.4회, 당일관광객 4.0회로 예측되어, 숙박관광 참가회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당일관광 참여회수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 여행비용에서는 국내관광 총 여행비용이 2005년 14.5조원 규모에서 2010년 19.2조원, 2015년 23.9조원 그리고 2020년에는 28.5조원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당일관광으로 인한 여행비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II-5〉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한 국민 관광수요 변화 예측

(단위 : 천인, %)

구 분 \ 년 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참가일수 (인/일)	숙박	240,187	325,258	410,329	495,400
	당일	148,650	160,437	172,224	184,011
	소계	388,837	485,695	582,553	679,411
참가횟수 (인/회)	숙박	109,140	159,631	210,122	260,613
	당일	148,650	160,437	172,224	184,011
	소계	257,790	320,068	382,346	444,624
평균 참가 횟수(회)	숙박	2.8	4.0	5.2	6.4
	당일	3.8	3.9	3.9	4.0
평균 여행 비용(원)	숙박	264,525	377,290	490,055	602,820
	당일	106,429	98,829	91,229	83,629
총 여행비용 (백만원)	숙박	10,347,792	15,094,536	19,840,315	24,585,672
	당일	4,163,331	4,118,395	4,028,672	3,895,863
	소계	14,511,123	19,212,931	23,868,987	28,481,535

자료 : 이인배·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 (2) 국내 내국인 관광활동 관련 요인별 변화 전망

관광수요의 다양화 및 다변화로서,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가족중심, 숙박 중심의 활동뿐만 아니라, 향후 건강·휴양형, 레저형 관광활동 등으로 관광수요가 다양화·다변화될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생태관광, 자연밀착형 관광, 자연체험형 관광 등이 대안관광으로 대두될 것이다.

〈 표 II-6〉 관광활동의 관련 요인별 변화 전망

구 분	변 화 내 용
연령구조 변화	• 65세 이상의 노년층 및 청소년층의 다양한 관광수요 예상
학력구조 변화	• 인구구조 및 사회계층의 분화와 함께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질 전망 • 고학력자의 증가는 취업구조의 변화, 소득의 증가, 가치관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더 많은 관광활동을 창출
도시화	• 도시계층구조에 있어서도 50만이상 대도시화율이 증가될 것이며,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 일상생활을 떠나 여가생활을 추구할 것으로 예견
소득의 증가	• 소득의 증가는 생활의 여유를 찾으려는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어 여가활동을 증가시키고 여가행태 또한 다양화 될 것임
자동차의 대중화	• 승용차 보유의 증가는 관광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관광잠재 인구의 규모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음
생활의 변화	• 소득의 증가와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자동화, 고속화 등으로 여가 시간이 증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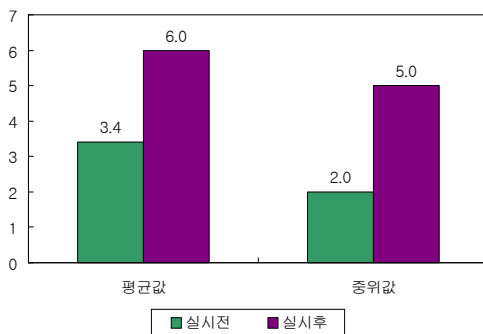
### 3) 주5일 근무제에 의한 관광성향 변화<sup>2)</sup>

#### (1) 국민 국내관광 횟수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실시 전에는 연간 국민 국내관광 횟수 평균값이 3.4회이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 후에는 평균값이 6회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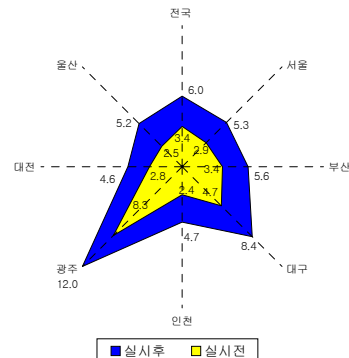
(그림 II-1)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에 따른 연간 국민 국내관광 횟수

(단위: 회)



(그림 II-2) 거주지별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에 따른 국민 국내관광 횟수 변화

(단위: 회)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7),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국민 여가활동 및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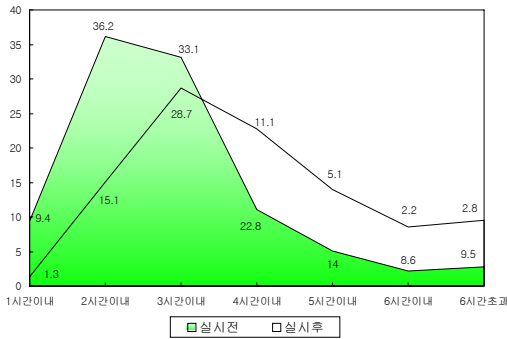
#### (2) 국민 이동시간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실시 전에는 주말여행 적정 이동시간의 평균값이 2.8시간이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 후에는 4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전에는 '2시간 이내'와 '3시간 이내'가 전체의 2/3을 차지하였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 후에는 '3시간 이내'와 '4시간 이내'가 절반을 차지하고, '4시간 이상' 응답도 10.1%에서 32.1%로 증가하였다.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7),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국민 여가활동 및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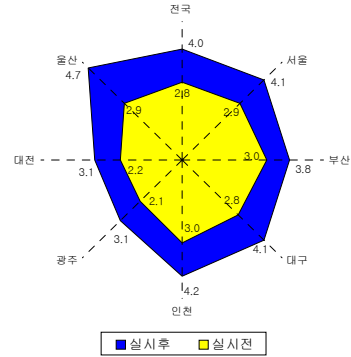
(그림 II-3)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 적정 이동시간 변화

(단위: %)



(그림 II-4) 거주지별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 적정 이동시간 변화

(단위: 시간)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7), 전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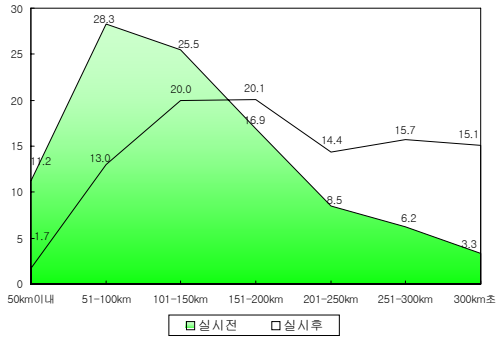
### (3) 국민 이동거리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실시 전에는 주말여행 적정 이동거리의 평균값이 133km이었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 후에는 195km로 증가하였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전에는 ‘51~100km’ (28.3%)와 ‘101~150km’ (25.5%)가 절반이 넘었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 후에는 이동 거리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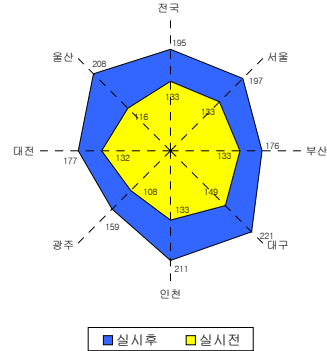
(그림 II-5)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 걱정 이동거리 변화

(단위: %)



(그림 II-6) 거주지별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 걱정 이동거리 변화

(단위: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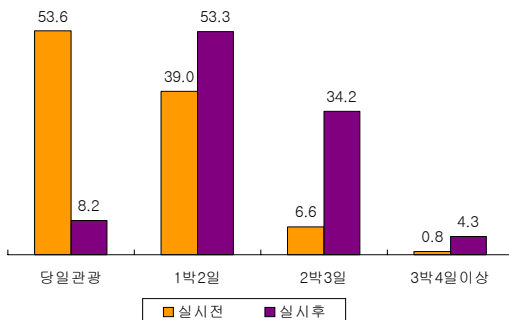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7), 전게서

#### (4) 여행 기간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실시 후에는 당일관광(8.2%)이 크게 감소하고, 1박2일(53.3%)과 2박3일(34.2%)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지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46.4%에서 91.8%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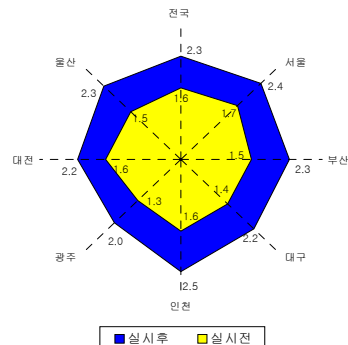
(그림 II-7)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의 당일 숙박여행 변화

(단위: %)



(그림 II-8) 거주지별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주말여행 기간

(단위: 일)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7), 전게서.

### 3.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sup>3)</sup>

#### 1)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앞서 우리의 멋과 흥을 먼저 알 수 있도록 국내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의 역사·문화·자연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구석구석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외관광지보다 더 나은 국내 관광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앞서 국내관광지와 문화 유적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여 국내관광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복지 차원에서 사회 취약계층·서민층의 관광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창의적인 국내여행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 관광지 정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다양한 테마 관광소재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내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국내관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국민의 인식 전환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2002년~2003년에는 ‘내나라 먼저보기’ 캠페인을, 2004년~2005년에는 ‘내나라 사랑여행-Love Korea’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2006년에는 ‘구석구석 캠페인’을 추진하여 TV 광고 및 프로그램 협찬, 지하철 내·외부 PDP 광고, 극장 광고, 인터넷 광고 등 메시지 전달력이 탁월한 동영상 광고(TV 광고 등)를 주매체로 활용하였다. 특히 캠페인의 소재 확대를 위해 2006년 4월 17일 이후 네이버에 ‘구석구석 카페’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높였다.

2007년 7월 2일 기준으로 회원은 23,744명이고 생산한 콘텐츠는 7,566건이다. 구석구석 캠페인은 예전의 국민 계도적이고 관(官) 중심적인 캠페인에서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통합마케팅 및 감성에 호소하는 고객중심의 캠페인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

3) 문화관광부(2007.9), 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요약 재정리



〈표 II-7〉 건전국민관광 홍보실적

연 도	T V 광 고	라디오 광고	전광판 광고
1990	104회	-	-
1991	175회	-	-
1992	236회	280회	-
1993	276회	1,366회	2개소 연중
1994	-	3,432회	4개소 연중
1995	-	4,969회	6개소 연중
1996	30회	5,122회	9개소 연중
1997	152회	4,328회	16개소 연중
1998	63회	1,010회	12개소(5~12월)
1999	1,353회	1,254회	14개소(3~10월)
2000	특집 14회(50분)	245회	13개소(3~12월)
2001	특집 175회	580회	6개소(연중)
2002	특집 406회	300회	8개소(2~12월)
2003	특집 121회	606회	7개소(5~11월)
2004	351회	365회	7개소
2005	399회	292회	112개소
2006	1,453회	27회	111개소(7~12월)

자료 : 문화관광부(2007.9), 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 관광상품 개발 및 정보제공

국민들이 쾌적한 국내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국내관광 소재를 발굴하고, 매월 ‘가볼만한 곳’을 선정·홍보 하는 등 국내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관광안내 포털사이트 : [www.visitkorea.or.kr](http://www.visitkorea.or.kr)), 국민들이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안내·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배치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국내 우수관광 프로그램 발굴·육성사업을 시행하여 국내 우수관광 상품을 선정·포상함과 함께 국내 관광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업계의 상품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누어 총 40개의 국내 여행상품을 선정한 후 상품 운영 결과에 따라 반기별로 각 7개의

상품을 최종 선발, 포상하였다. 2006년에는 연간 5개의 국내 여행상품(오감오행 상품)을 선정하여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2007년에는 선정 대상을 10개로 확대하여 여행업계의 상품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 시작된 내나라 함께 가꾸기사업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수요자 지향적인 관광소재 발굴 사업으로서, 2006년에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개 여행코스를 여행동호회와 여행작가들이 직접 답사하여 41개의 추천여행코스를 발굴, 홍보하였다. 2007년에는 7개 여행동호회, 답사회와 함께 ‘내나라 구석구석 답사단’을 구성하여 전국 30개 시티투어버스를 홍보함으로써, 여행객의 여행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성인들의 여행습관 형성에 청소년기 여행경험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청소년들이 국내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데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국내 수학여행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내나라여행 박람회 연계 수학여행 세미나 및 수학여행 마트 개최, 국내 수학여행 실태 조사, 국내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수학여행 모델코스 개발과 홍보 등을 통해 바람직한 수학여행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3) 국내관광 여건 조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내국인의 여가문화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가족단위 체험관광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체험! 가족여행단’ 사업을 실시하였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새로운 가족여행 패턴을 제시한 동 프로그램은 참여형 지방관광상품의 모범사례로서 지자체 및 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이밖에도 2006년으로 5회를 맞은 내나라여행박람회는 국민들의 국내여행 붐을 조성하는 노력을 통해 날로 심화되어가는 관광수지 적자의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공익형 관광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핵심고객인 지자체에게는 지역 홍보기회를, 또 다른 고객인 국민에게는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는 혁신적인 컨셉을 도입하여, 233개 기관 (2006년 148개 기관), 92,753명 (2006년 75,541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2) 국내관광 수용태세 개선

### (1) 관광안내 체계 개선

관광안내체계란 관광정보의 공급자가 관광정보 수요자에게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제반 매개수단 및 운영체계로서 통일성을 갖춘 전체를 말하며, 관광안내체계의 구성요소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판, 공중관광정보망 등 관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전달매체, 시설물 및 인적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방문의해 추진, 월드컵·아시안게임 준비 등으로 그동안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나 관계기관이 상이한 관계로 관계기관 간 상호연계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개선이 힘든 상황이었다.

관광안내소의 경우 공사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 관광협회,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각 안내소에서 제공되는 관광안내정보의 질과 양은 각기 다르다. 현재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관광정보 DB의 통합 구축 및 관광안내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전국 관광안내소 안내원이 동일한 관광정보를 활용하고 또한 각기 보유하고 있는 관광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동질의 고품격 관광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광지 안내표지판의 경우 전국에 총 4,350여개가 설치(1998~2006년)되어 있으며, 기존 관광지 표지판의 경우 로마자 표기법 개선에 따른 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관광지 대상 미설치된 관광지 표지가 약 1,8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종합관광안내도의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400여개의 추가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등 관광안내판의 추가적인 확충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매년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안내지도는 매년 지자체별로 제작하고 있다(시·도 관광지도 매년 약 200만 부씩 제작). 현재 지도 제작 수량이 부족하여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없고, 관광안내소 등 일부 관광시설에 한정하여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내정보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최신 정보가 아닌 낡은 정보를 수록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뿐만 아니라 버스터미널, 공항, 항만, 쇼핑센터, 호텔, 음식점 등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도 비치하도록 하며, 제작언어도 국어·영어·일어·중국어 등 4종 이상으로 외국어표기 지도 제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제공 기관별로 관광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나, 안내정보 체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정보내용의 분류기준, 정보의 질적·양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그림표지(픽토그램) 제작, 표준용어 마련, 글자꼴, 크기, 색상, 외국어표기 등의 통일·조화 체계를 마련하고, 보행자 표지, 도로 표지, 관광지 안내 및 관광시설 표지, 문화재 표지,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표준화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향후 온라인 관광정보체계와 오프라인 관광안내체계의 상호협력체계 운영 정착, 관광정보 콘텐츠의 지속적 발굴 갱신 및 IT첨단 안내정보시스템 조기 기반구축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관광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 **(2) 국내관광 수용태세 개선 유도**

관광환경과수꾼제도를 1998년도부터 운영하여 관광에 관심이 많은 내국인들을 중심으로 유명관광지 등의 청결상태나 관광 불편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홈페이지를 2004년 11월을 기해 관광허브넷([www.etourkorea.com](http://www.etourkorea.com))으로 통합합하여 회원들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강원 영월, 충남 보령, 대전 유성, 전남 남원, 전남 목포, 부산광역시 등 5개 권역별로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관광안내, 교통, 숙박, 기념품, 화장실, 음식점 등 6개 분야에 걸쳐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였으며, 2007년에는 강원 정선, 경기 강화, 충남 공주·부여, 충북 단양, 광주광역시, 새만금지역, 부산광역시, 제주도 등 신규지역 점검 및 과거 점검 사항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중저가 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 대비, 우수 중저가숙박업체 확보 및 서비스 개선으로 국내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일반호텔, 모텔, 여관 등)에 대해서는 ‘굿스테이(Goodstay)’ 인증제도를, 관광호텔(1~3급)에 대해서는 ‘베니키아(BENIKEA)’체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6월 현재 굿스테이

(Goodstay)는 전국 174개 업소, 베니키아(BENIKEA)는 전국 5개 호텔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 **(4)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 대규모 국가행사를 맞이하여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문화와 전통, 자연자원, 관광자원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으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자 도입되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문화·역사·관광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대상 해설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지 및 유적지에 대한 해설과 이해를 돕는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의 활동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전국 450여 개소에서 약 1,600여 명의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데, 1일 3회를 기본 해설시간으로 하여 8시간 활동을 기본으로 국민에게 무료로 해설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히 단체인원이 해설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각 시·군·구의 연락전화를 이용하면 사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당초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해설사의 역할과 기능이 기존의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관광지, 관광단지, 생태·녹색 관광, 농어촌 체험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자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문화유산해설사’를 상위개념인 ‘문화관광해설사’로 2005년 8월 1일부터 명칭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동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해설사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정예화를 위한 신규 양성교육 및 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화관광부 주관 전국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개최중이다.

#### **(5) 먹을거리 개발·보급 및 식당문화 개선사업**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음식을 관광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통음식 관광자원화’ 사업을 1999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구미주 및

동남아 12명, 일본 10명, 중국 8명 등 30명의 기자를 초청하여 40여건이 기사화되었다.

특히, 우리 음식 세계화 및 관광상품화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서울세계음식박람회를 지원하여 우리 전통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 행사로 육성하고 있으며 2003 ‘영국 WTM관광박람회’, 2003 ‘오사카식품박람회’, 2004 ‘동경식품박람회’ 등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 전통음식 시연 및 시식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인도 및 태국의 한국주간행사시 전통음식 홍보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는 APEC 등 국제행사 계기 전통음식 시연회를 개최·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영국, 일본 등에 우리의 전통궁중음식시연회와 대장금 연예인 출연요리 강습 및 홍보사업을 개최·지원하였다.

2004년에 우리나라 지역별, 명절 상차림 및 표준조리법에 의한 김치, 비빔밥, 불고기 조리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전통음식 홍보 CD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발간 배포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수요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006년도부터는 우리의 전통음식조리법 300종 개발 및 외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100종 등을 선정하고 책자발행 및 CD, 만화 등을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의 주요 불편사항인 식당문화의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의 주요관광지 식당을 대상으로 깨끗한 식당 선정사업을 실시하여 5년 동안 159개 지역 총 417개 업소를 선정·홍보 하였다.

2005년부터는 중국관광객 불편사항 중 하나인 음식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국관광객 전문식당 지정(100개 업소), 2006년도에도 100개소 추가지정(최종 193개소/2005년도 포함)선호음식 개발 등 중국관광객을 위한 식당문화 개선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중국관광객 전문식당 관리 매뉴얼 제작, 지정 식당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3) 복지관광 지원

여가시간 증대와 소득증가로 여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관광레저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을 단순한 휴양 및 위락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권으로 보는 인식

변화와 맞물리면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광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년소녀 가장,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여행경비 보조 등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국내관광진흥을 통한 관광복지 실현 및 국민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복지시설 단체 등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의 복지관광 사업이 소모적인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유익한 사업으로 정착하고자 유도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초청 관광 프로그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랑의 관광단, 한마음 관광단 등의 이름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프로그램별 대상이 100명 내외의 소규모로 지원대상이 극히 일부에 제한된 것이 사실이다. 이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에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복지관광 사업을 본격화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및 한 부모 가정 아동, 노약자,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이주여성 등 총 660명을 대상으로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실시 대상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최적 지원 대상 선정 및 우수관광 프로그램 ‘오감오행(五感五行)’과 연계를 통한 대상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사업효과 제고에 노력하였다. 그 동안의 행사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심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복지관 단위로 지원신청을 받아 전국적으로 선정·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업체 및 관련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지원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의 지원 또는 후원을 적극 유치한 복지관을 우선 지원을 하는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기존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이 관계기관 등에 적극 홍보되어 점차적으로 복지관광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2007년 총 369개 기관 20,175명 신청).

〈 표 II-8〉 2006년 복지관광 프로그램 실시 현황

구 분	대 상	장 소		기 간	내 용	인원
1차	아 동	충청권	강원 양구	9.06~9.07	· 제4땅굴 및 을지전망대 견학 · 두타연 트레킹	25
2차		수도권		9.13~9.14	·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 군부대방문 및 병영식체험	27
3차		전라권	충남 공주	9.20~9.21	· 국립공주박물관 및 무령왕릉 견학 · 스텐실 및 점토공예 체험 · 계룡산 도예촌(도자기만들기 체험)	62
4차		경상권		9.27~9.28		36
5차		경기 강원권	강원 양구	12.02~12.03	· 군부대방문(병영체험) · 제4땅굴 및 전쟁기념관 견학 · 곰취/산호박 찜빵 만들기 체험 · 감자/고구마 구워먹기 체험	141
6차		전라권	충남 공주	12.06~12.07	· 국립공주박물관 및 무령왕릉 견학 · 스텐실/탁본/부채 및 역사신문 만 들기 · 계룡산 도예촌(도자기만들기 체험)	140
소 계					431	
1차	노 인	수도권	전남 함평	10.11~10.12	· 함평해수찜 · 남도 창 한마당 체험	42
2차		전라권		10.18~10.19	· 함평 민예학당(가수 은희씨네)	83
3차		강원권	강원 양구	10.23~10.24	· 척산온천 ·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 제4땅굴 및 을지전망대 견학 · 평화의댐 관광	30
4차		충청권 제주권	경남 통영	10.25~10.26	· 진주성 관광 · 통영수상박물관 및 달아공원 관광	55
5차		경상권		11.01~11.02	· 통영오광대춤 관람 및 체험 · 거제 해금강 및 외도 관광	100
		소 계				



표 계속

구 분	대 상	장 소	기 간		내 용	인원
1차	장 애 인	수도권 경상권	제 주	11.06~11.08	· 한림공원 관광 · 코끼리랜드(공연 관람) · 승마체험 · 감귤따기체험 · 서귀포유람선관광	67
2차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11.14~11.16		39
		수도권 그 룹 홈				51
소 계					157	
1차	외국인 근로자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	수도권 충청권	충남 공주	11.25~11.26	· 국립공주박물관 및 무령왕릉 견학 · 스텐실/탁본/부채 및 제기만들기 · 나라별 제기차기 시합(즉석경연) · 계룡산 도예촌(도자기만들기 체험)	117
소 계					117	
총 계					1,015	

자료 : 문화관광부(2007.9), 전세서.

## 4. 국내 지역 관광개발의 과제<sup>4)</sup>

지역 관광자원은 지역에 월등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관광산업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적인 발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적 중심의 개발로 모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차별성 반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특성화 부족, 시설 및 정보화, 세계화 부족, 혁신 체계 구축 미비 등으로 인한 지역 문화관광산업 발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 1)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특성화 미흡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알려지지 않은 자연 및 문화유적(예: 고유한 모습의 농산어촌, 지역경관 등), 지역 인적자원(예: 지역출신의 예술가, 문학가, 예능보유자 등), 지역 특산품과 전통문화(예: 축제, 연극, 세시풍속 등) 등도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발굴과 육성이 미약하다.

지역관광 자원 개발은 지역의 특성 및 차별성을 포함한 테마 또는 콘텐츠가 없는 단순한 관광지 및 시설 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획일적 관광자원 개발 형태여서 현대인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감성적·체험적 관광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의 동기 유발과 만족도 제고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내국인이 해외여행 후 우리나라 관광자원 중 중점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한 것은 다음과 같다.

---

4) 문화관광부·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200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에  
서 요약 재정리

- 역사문화시설 : 민속촌(43.9%), 박물관(20.4%), 체험공방(20.2%), 공예촌(9.6%) 등
- 자연생태시설 : 관광농원(31.0%), 농촌체험 관광마을(29.5%), 삼림욕장(23.4%), 별장촌(11.0%) 등
- 위락시설 : 테마파크(43.6%), 세계음식촌(30.8%), 수변레스토랑(17.5%) 등
- 건강휴양시설 : 온천장(36.6%), 한방치료센터 (26.75), 기체험장(17.8%), 미용센터(14.0%) 등
- 모험/스포츠시설 : 스키장(33.7%), 골프장(29.5%), 패러글라이딩(18.6%), 크로스컨츄리장(16.8%) 등

그리고, 지역차원에서의 소규모 분산투자 또는 단기 목적의 투자 및 지역간 연계전략 부족으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미약하다.

지금까지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투자 형태는 여러 지역에 나눠주기식으로 소규모 분산투자 또는 단기사업 중심의 투자를 하여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별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사업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어 사업간 차별성이 없으며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업이 극히 드문 실정이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연계부족, 인근 지역과 관광시설 및 문화관광자원 연계부족, 지역의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부족 등으로 국내·외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2)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기반시설의 편중

국토공간상 문화관광자원 및 이용시설 분포의 특정 지역 편중으로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별 문화관광자원 분포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풍부하다.



〈 표 II-9〉 지역별 문화관광자원 분포 현황

자 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문 화	인물	386	141	88	94	53	116	15	949	251	499	392	176	471	574	446	30	4,681
	축제·의식	90	105	24	26	11	45	17	198	195	82	228	85	325	136	205	58	1,830
	민속·풍속	196	125	88	79	77	74	57	481	808	472	792	155	648	703	1,292	74	6,121
	마을	14	2	0	1	0	0	0	1	2	0	1	0	1	13	6	0	41
	유적지·사적지	213	61	57	84	28	21	33	378	194	240	327	146	1,446	365	453	280	4,326
	건축	412	247	222	173	103	131	61	692	398	757	681	480	1,118	1,767	1,214	95	8,551
	조각	77	32	56	31	18	21	18	236	169	202	244	133	391	398	208	44	2,278
	회화·서예	39	13	10	30	5	5	1	36	21	20	21	17	85	54	26	0	383
	서적·활자·기기	55	11	9	7	12	21	2	43	27	3	46	27	160	94	102	3	622
	공예·자기	62	8	5	9	5	6	4	28	12	3	24	24	25	42	25	5	287
	소계	1,544	745	559	534	312	440	208	3,042	2,077	2,278	2,756	1,243	4,670	4,146	3,977	589	29,120
자연 및 생태 환경	동·식물	16	9	5	7	2	0	1	39	53	20	25	40	79	58	79	55	488
	보호구역	4	3	0	0	0	0	2	1	6	0	2	0	5	1	4	7	35
	산악·평지자원	173	100	37	39	17	11	43	367	279	169	152	111	223	221	275	137	2,354
	수변·해양자원	26	52	15	56	11	9	12	188	128	66	80	74	234	179	131	41	1,302
	경승지	14	18	3	8	1	3	1	20	39	21	52	52	74	21	28	20	375
	소계	233	182	60	110	31	23	59	615	505	276	311	277	615	480	517	260	4,554
관광 장소 및 시설	관광지구	3	4	0	4	0	1	0	16	44	23	26	19	22	35	24	21	242
	공원	63	22	15	10	8	13	3	57	26	18	9	34	30	33	61	14	416
	전시관람시설	316	131	49	63	50	80	16	253	129	89	115	108	137	148	149	48	1,881
	체육시설	125	36	28	55	10	22	17	397	173	87	111	50	106	119	134	76	1,546
	숙박식음시설	497	242	54	97	106	38	35	597	317	117	184	111	334	414	199	70	3,412
	쇼핑시설	138	122	51	42	32	31	12	165	105	87	70	116	143	236	188	30	1,568
	교통시설	115	73	31	28	6	12	21	161	123	57	58	61	104	154	103	24	1,131
	유원·휴양·수련	34	46	26	67	13	17	14	175	287	89	132	103	199	178	169	74	1,623
	부대시설	83	44	18	19	11	13	7	56	26	19	21	25	42	40	28	7	459
	소 계	1,374	720	272	385	236	227	125	1,877	1,230	586	726	627	1,117	1,357	1,055	364	12,278
총 계		3,151	1,647	891	1,029	579	690	392	5,534	3,812	3,140	3,793	2,147	6,402	5,983	5,549	1,213	45,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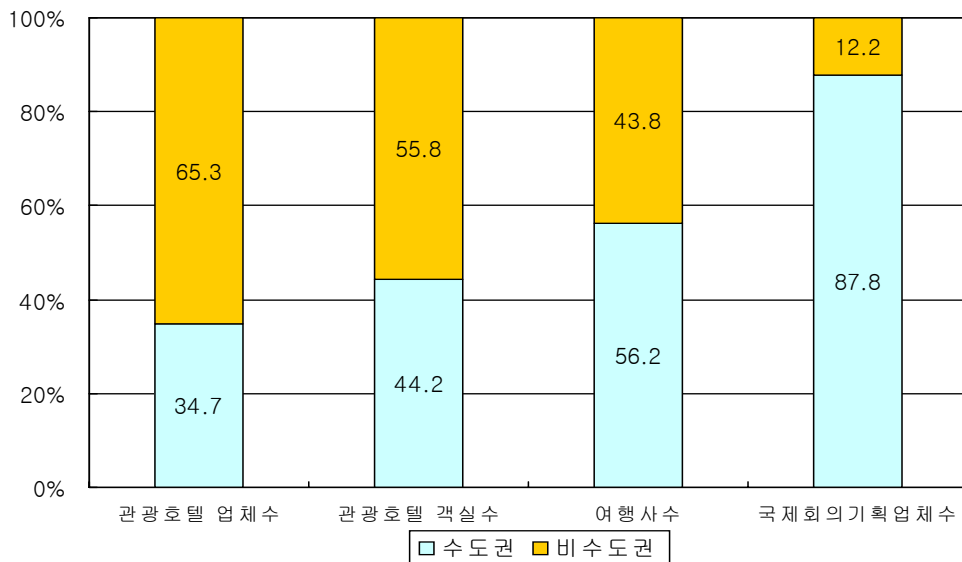
주 : 총자원수는 45,952개 임

자료: 문화관광부·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2007), 전거서.

그러나, 관광호텔, 여행업체, 국제회의산업 등 관광사업체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불균형적 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

- 관광호텔업체 전체 528개 업체 중 수도권 집중은 34.7% (2004. 6. 기준)  
이며 객실 수도권 집중은 전체(57,077실)의 44.2%임
- 전국 여행업체(총 8,500개소) 중 수도권 소재 업체는 전체 56.2%(4,647개소)에 달함
- 국제회의산업의 서울지역 편중: 국제회의기획업체(총 123개) 중 87.8%(108개)가 서울 소재이며, 국내개최 국제회의 298건 중 57.7%(172건)가 수도권에서 개최 (2003년)

(그림 II-10) 수도권·비수도권 관광사업체 분포 현황 (2004년)



자료:문화관광부 (2003, 2004).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구성자료 인용

지역별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수를 고려할 때 각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수는 개별 지역간 또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간에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 공급에 있어서도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숙박관광객의 경우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주요 목적지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수 대비 숙박관광객 점유율을 분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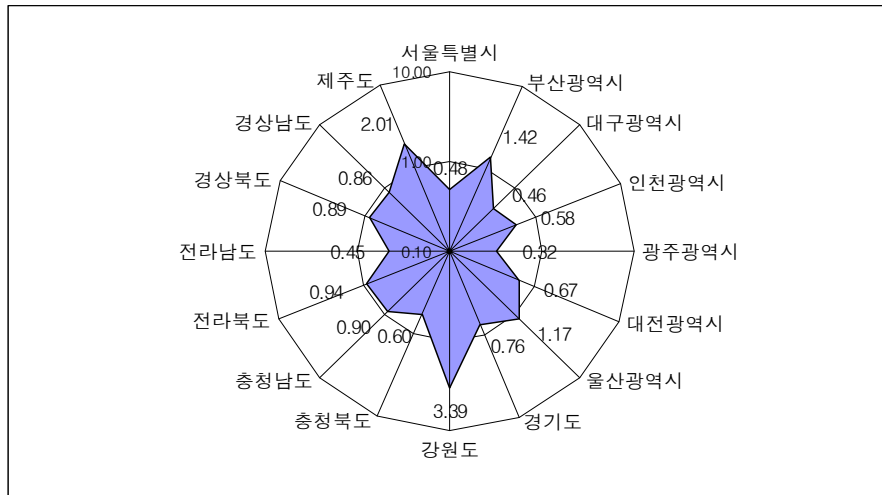
면 강원도(3.39), 제주도(2.01), 부산(1.42), 울산(1.17) 등의 순서로 나타나 강원도와 제주도가 숙박관광의 주요 목적지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수 대비 숙박관광객 점유율 분석에서 광주(0.32), 전남(0.45), 대구(0.46), 서울(0.48), 인천(0.58), 충북(0.60) 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숙박관광의 지역 불균형적 분포 현황을 알 수 있다.

당일관광객의 경우는 점유율에 있어서 경기도, 부산,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의 순이며, 대도시가 당일 목적지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수 대비 당일관광객 점유율을 분석하면 경기도가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1.87), 서울(1.56), 대구(1.50), 대전(1.27), 인천(1.12), 광주(1.11) 등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광역시가 주요 당일관광 목적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인구분포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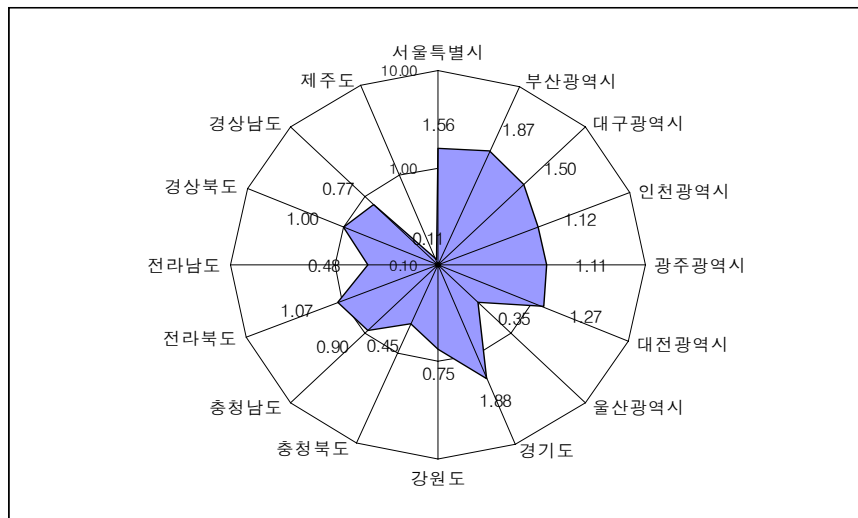
반면에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수 대비 당일관광객 점유율 분석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도는 낮게 나타나 지역 불균형적 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북(0.45), 전남(0.48) 등은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수 대비 당일관광객 점유율에서도 숙박관광객 점유율과 마찬가지로 낮게 나타나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II-11) 관광자원수 대비 지역별 숙박관광객 점유율



자료 : 문화관광부·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2007), 전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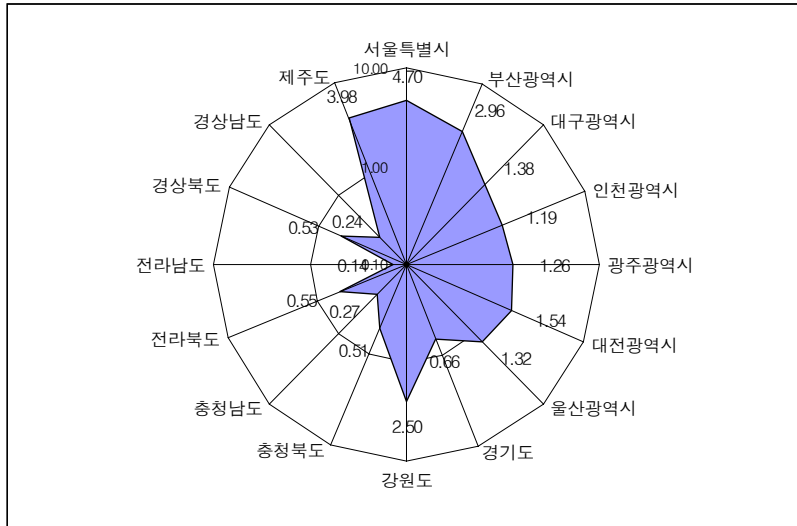
(그림 II-12) 관광자원 수 대비 지역별 당일관광객 점유율



자료 : 문화관광부·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2007), 전게서.



(그림 II-13) 관광자원 수 대비 지역별 숙박 객실수 비율



자료 : 문화관광부·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2007), 전제서.

숙박시설업 분포 현황에 있어서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등의 대도시와 제주도와 강원도에 숙박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충남은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수 대비 숙박객실수 비율을 분석하면 서울이 4.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2.96), 대전(1.54), 대구(1.38), 울산(1.32), 광주(1.26), 인천(1.19) 등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심으로 숙박시설이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서는 제주도와 강원도만이 높게 나타나 두 지역이 전통적인 숙박관광 목적지이며 이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 개발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전국대비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수 대비 숙박객실수를 고려할 때 대도시 및 강원·제주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상대적으로 숙박시설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의 관광산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 3) 지역 문화관광 개발의 혁신과 협력정책에 대한 노력 부족

지역 문화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능력 및 기획 능력을 갖춘 민간부문의 인재와 리더십이 중요하며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 문화관광은 공간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편중 개발, 수단적으로 대규모 하드웨어적 개발로 인해 진정으로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할 지역은 자생력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땅한 대안사업이 없어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이 필요한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의 소홀로 인해 리더십이 있는 인재부족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문화관광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역의 군·마을단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인 곳이 많으므로 지역 문화관광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계층의 대도시 유출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지역자본의 취약으로 인해 문화관광자원 및 시설의 개발과 관리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문화관광 발전은 지역주민, 자치단체, 중앙정부, 문화관광사업체, 전문가, 여타 관련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가 망라되어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지역 문화관광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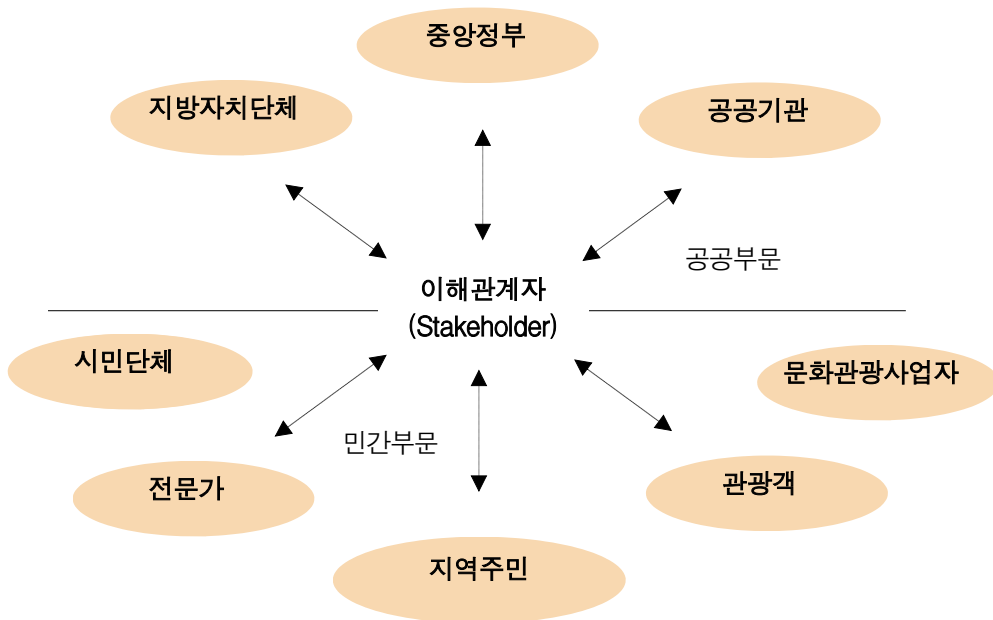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역내 문화관광 주체들 간의 협력시스템이 부족했으며 지역 문화관광정책에 있어서도 지역내 문화관광 협력과 지역간 문화관광 협력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였다.

물론 지금까지 일부 광역권 개발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단위의 개발 범위가 확대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협력정책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역 문화관광 발전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문화관광 관련 산업과 관련된 사업체가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할 법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한정된 관광사업체 중심 및 공공 주도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정책으로는 지역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II-14) 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이해관계자 집단



일반숙박업, 지역내 소규모 식당, 그리고 택시 등 운수업 등은 실제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이나 법정 관광사업이 아니어서 지역 관광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현행 관광진흥법 하에서 관광협회는 광역시·도 단위에서만 구성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인 시·군 단위는 관광협회 조직이 불가능하다.

#### 4)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내생적 발전 역량 미흡

문화관광산업은 대규모 재원조달이 어렵고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 대부분은 붕괴된 지역경제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스스로 문화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립기반이 상실되었다.

즉, 자립기반이 부족하여 외부 의존적이 되고 자본유치가 안되면 사업추진이 안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은 요원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발전대안으로서 역할인식도 낮은 실정이다.

지역의 다양하고 차별적인 고유한 문화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이 미흡하며 지역의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문화관광산업이 1차, 2차, 3차 산업과의 융합부족으로 시너지효과가 미미하다.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지역 문화관광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관광단지 건설,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 건설, 도로 및 기반시설 건설 등 하드웨어 중심의 획일적 개발이 주를 이루어 왔다.

지식기반사회에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문화관광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예비신청 중 문화관광 분야가 2003년 9월 현재 총 448개 중 233개로 52%를 차지하였으나 지역별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지역의 1차, 2차 및 3차 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부족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것이다.

더불어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발굴 및 상품화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문화관광 관련 주체별로 개별 기능에 따른 DB 구축 등으로 종합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도 미흡한 편이다.

#### 5)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시설수준으로 인한 수요창출 미흡

여가사회의 문화관광 패턴에 맞지 않는 노동사회 시설로 인한 불균형 발전

을 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대외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 경쟁력도 갖추지 못해 국민들이 국내에서의 문화관광 소비 보다 해외에서의 소비를 선호하고 있다.

1993년 이후 1997년을 제외하고 국민 해외여행 경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의 국민 중 30.2%가 현재까지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가운데 1회를 다녀온 비율이 14.5%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 1인 평균 해외여행 경험 횟수는 연 0.62회이다.

2003년 전체 국민의 15%(710만 명)가 해외여행을 경험하였으며, 동년 일본의 경우 전체 인구의 12.9%가 해외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해외여행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 대비 약 3.5배 정도의 해외여행 유출 현상을 보이며, 이는 국내 문화관광 인프라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되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소득수준 1만불 이상이지만 3만불 수준의 관광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 즉 해외여행경험이 많은 국민의 관광경험 및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원 및 시설 수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한 외래관광객은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 지역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문화관광상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취약하며, 지역 문화관광 활동 및 정보의 연계 부족으로 지역 관광산업 육성이 부진하며, 국제 수준의 지역 문화관광 수용기반 확충이 미흡하다.

## 6) 하드웨어 위주 문화관광정책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저해

문화관광시설과 공간 공급 중심의 지역 문화관광정책 추진으로 소프트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지금까지 지역 문화관광정책은 대규모 거점개발 등 하드웨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정치적 입장을 의식하여 수요예측이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문화관광 시설 개발위주의 지역 문화관광 정책으로 인해 개발이익의 지역 외 유출, 개발소요시간의 과다, 민자유치 한계

로 인한 개발추진상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것은 결국 지역주민 참여의 저조로 이어지고 문화관광 개발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지역의 내생적 문화관광발전모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다양한 대규모 사업들을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이용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는 정책고려가 소홀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문화관광 개발은 대규모 환경파괴를 수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역 문화관광 발전은 하드웨어적인 시설개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상품화 과정을 거치는 콘텐츠 지향적이고 소프트 지향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대규모의 인위적인 개발과정과 양적인 하드웨어 요소의 투입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 7) 자생적인 지역주도형의 문화관광 정책사업 추진이 미흡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관광을 지역의 논리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역 문화관광 발전전략은 ‘중앙의 논리,’ ‘개발사업자의 수익논리,’ ‘관광객 우선원칙’ 등으로 지역 문화관광 발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을 가꾼다는 주민자치의 개념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존중되고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회·문화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지역 문화관광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즉 지역발전 대안으로서 문화관광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하며,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역자본과 인력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발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 의존적, 외부 의존적 사고의 지속도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 문화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하드웨어 투입, 많은 재원투입, 오랜 시간 소요 등이 필요하다는 사고가 지역에서는 여전히 팽배하며 이로 인해 중앙 의존적, 외부 의존적이 되고 ‘계획은 있으나 추진은 없고, 추진은 있으나 성과는 없는’ 등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이 없었다.

몇몇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차원에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성공보다 실패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더불어 지자체는 과거 성장시대 중앙집권적 문화관광 행정을 그대로 축소·답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 정책사업의 시행체계, 정책대상의 조직화, 혁신역량의 배양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 8) 지역 문화관광정책의 통합조정력 부족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관광 관련 정책사업들은 입지별, 테마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지역 문화관광정책으로 인하여 제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부처별로 개발되는 문화관광자원간 명확한 구분이 안되고 주무부처간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부처간 경쟁으로 인하여 수요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미흡하며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방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지역 문화관광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자원낭비와 자원간,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다양한 여가관광공간을 개발·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각 부처별로 개발되는 공간 및 시설이 종합적으로 개발·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으로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부처별 중복개발, 여가관광공간간의 차별화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오고 있다.

## 제3장 충남 관광수요와 관광개발 실태분석 및 과제

### 1. 관광수요와 행태의 분석

#### 1) 관광수요 변화의 결정요인과 이해의 필요성

##### (1) 관광수요의 결정요인

관광수요는 관광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욕망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관광활동을 즐기고자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인자를 관광수요 결정인자라고 할 수 있다.

관광수요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인자의 종류나 영향력은 지역, 국가, 문화, 시기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관광수요 결정인자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관광수요자인 관광객들의 행위결과로 나타나는 관광수요 패턴은 단순히 경제적 변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관광수요 연구 중 관광수요변화의 결정인자로 거론되는 주요한 공통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한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느 특정의 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장래의 관광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상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찾아왔는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가, 관광객들은 얼마동안 체재하고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가, 자주 방문하는 관광의 대상(자원, 시설)은 무엇인가, 관광객들의 소비지출 규모는 어떠한가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McIntosh와 Goldner(1986)에 의하면 어느 특정의 목적지 또는 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는 개개인의 여행성향 및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연관저항(resistance of the link)의 역수의 함수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관광수요함수는  $D=f(P, R)$ 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의 여행성향(P)은 관광객의 심리묘사도 인물이나 여행동기,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에 의존하며, 저항(R)은 여러 종류의 목적지의 상대적인 매력도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관광대상지의 관광수요(D)는 시간적 거리, 경제적 거리, 문화적 거리, 심리적 거리, 목적지의 관광서비스의 비용이나 질, 광고나 판매촉진 그리고 계절성 등과 같은 변수의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즉, 다시 말해 관광수요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관광수요 패턴도 그에 따라 결정되고 변화된다. 여기에서 관광수요는 여행성향(P)과 저항(R)의 변수 변화에는 비례적으로 변화하지만, 각종 관광수요 변수의 변화에는 반비례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관광수요 패턴이 표출되는 것이다.

## (2) 관광수요변화의 결정변수와 이해의 필요성

관광수요의 변화에 따라 관광패턴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관광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관광수요의 변화는 소득수준이나 소득분포, 여가시간, 여행비용, 소비대상자원의 상대가격, 선택자원의 다양성 유무, 잠재수요자의 교육수준, 직업구조, 연령·생애주기의 단계, 사회·문화적 요인,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관광수요 행위의 결과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관광패턴이 표출된다<sup>5)</sup>.

한편, 국가 및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관광수요도 관광수요자들인 내국인 혹은 외국인들의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관광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관광지에 대한 관광패턴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

---

5) 김사현(1997), 관광경제학신론, 일신사에서 요약정리

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주목하면서 나름대로의 끊임없는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만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관광목적지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한 국가 혹은 하나의 지역이 관광목적지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광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매력자원으로서 가치경쟁력을 확충해 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관광수요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더불어서 관광패턴 변화에 주목을 하며, 나름대로의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관광수요의 창출을 도모해 나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충남관광의 지속적인 수요창출과 함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충남관광의 수요패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2) 충남과 전국 시·도간 여행실태 분석<sup>6)</sup>

### (1) 국민 여행성향 분석

국민 여행성향 분석의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여행성향 비교에서는 여행시기의 경우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에서 전체 국민과 순수관광목적 여행 모두가 주말에 다녀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자 유형에 있어서는 이 역시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에서 전체 국민과 순수관광 목적 여행 모두에서 가족·친지가 모두 1위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2위는 친구·연인으로 나타나 가족중심의 여행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6) 한국관광공사(2006), 「전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 전체 및 순수관광목적 결과 분석자료」 재정리.

〈표 III-1〉 국민 여행성향 분석

(단위: %)

구 분		전 체 관 광	순수관광 목적
여행 시기	숙박여행	주말(48.7)	주말(50.1)
		주중(20.7)	주중(23.3)
		명절(15.2)	휴가/방학(20.7)
	당일여행	주말(65.7)	주말(68.2)
		주중(29.2)	주중(26.3)
		연휴/공휴일(2.1)	연휴/공휴일(3.0)
동반자 유형	숙박여행	가족/친지(57.2)	가족/친지(45.2)
		친구/연인(19.3)	친구/연인(36.4)
		혼자서(13.4)	학교/학교 내 단체(4.8)
	당일여행	가족/친지(42.0)	가족/친지(43.7)
		친구/연인(28.3)	친구/연인(35.3)
		혼자서(14.1)	동호회(6.4)
동반자 수	숙박여행	2-3명(36.2)	2-3명(29.8)
		4-5명(29.5)	4-5명(29.8)
		1명(13.4)	6-10명(19.2)
	당일여행	2-3명(35.5)	2-3명(36.2)
		4-5명(24.4)	4-5명(29.9)
		1명(14.1)	21명 이상(13.2)
여행 방문지 활동	숙박여행	가족/친지/친구방문(49.9)	자연명승/풍경관람(60.7)
		휴식/휴양(36.5)	휴식/휴양(57.3)
		자연명승/풍경관람(34.2)	수영/수상레포츠/해변활동(24.6)
	당일여행	자연명승/풍경관람(41.6)	자연명승/풍경관람(60.5)
		휴식/휴양(32.0)	휴식/휴양(44.0)
		가족/친지/친구방문(21.6)	식도락 여행(27.0)

여행 체류기간	숙박여행	1박2일(64.4)	1박2일(57.5)
		2박3일(24.1)	2박3일(30.5)
		3박4일(5.9)	3박4일(7.1)
		(평균 2.6일)	(평균 2.6일)
	당일여행	6-7시간(20.8)	10-11시간(21.1)
		10-11시간(20.1)	6-7시간(20.4)
		8-9일(18.0)	8-9시간(18.4)
		(평균 9.0시간)	(평균 9.1시간)
숙박장소	숙박여행	가족/친지집(49.1)	모텔/여관(20.2)
		모텔/여관(12.6)	콘도미니엄(16.8)
		콘도미니엄(7.8)	팬션(16.8)
여행 교통수단	숙박여행	자가차량(69.8)	자가차량(69.1)
		열차(6.8)	전세(관광)버스(8.1)
		고속버스(6.2)	열차/비행기(5.9)
	당일여행	자가차량(67.0)	자가차량(69.1)
		전세(관광)버스(13.6)	전세(관광)버스(14.5)
		일반버스(8.6)	일반버스(7.4)
1인당 여행비용 (원)	숙박여행	264,525	125,828
	당일여행	106,429	38,811

주 : 응답율은 상위 3위까지만 제시함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6), 「전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 전체 및 순수관광목적 결과 분석자료

여행시 동반자수에 있어서는 숙박과 당일여행에서 전체 국민과 순수관광 목적에서 모두가 2-3명이 여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 방문활동에서 전체 국민의 숙박여행은 가족·친지·친구방문(49.1%)이 가장 많은 반면, 순수관광 목적의 숙박여행은 자연명승·풍경관람(60.7%)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

한, 당일관광은 전체 국민과 순수관광목적 모두가 자연명승·풍경관람이 가장 높아 아직도 정적인 관광활동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행체류 기간은 숙박여행의 경우 전체 국민과 순수관광목적 여행 모두가 1박2일형의 단기 여행이고, 당일관광은 전체 국민은 6-7시간, 순수관광목적 여행은 10-11시간으로서 관광목적 여행자의 관광활동시간이 4시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장소는 전체 국민은 가족·친지집이 가장 많아 방문활동 패턴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순수관광목적 여행은 모텔·여관(20.2%), 콘도미니엄(16.8%), 펜션(16.8%) 순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중저가형의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교통수단은 전체국민과 순수관광목적 여행에서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모두 자가차량이 60%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자가용 이용자를 위한 관광지 수용태세와 관광활동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인당 여행비용은 전체 국민의 숙박관광은 264,525원, 순수관광목적 여행은 125,828원이고, 당일관광은 전체 국민이 106,429원, 순수관광목적 여행이 38,811원으로서 전국 국민의 일반 여행보다 순수관광목적 여행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2) 시·도별 국내여행 방문지 비교**

시·도별 분석한 국내여행 방문지에서는 국내 숙박여행에서 2005년까지는 충남이 6위에서 2006년에는 강원, 경기, 경남에 이어서 충남이 4위를 차지하고 있어 숙박관광객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III-2〉국내여행 방문지(2004~2006년)

(단위: %)

구분 순위	국내숙박여행			국내당일여행		
	2006년 (n=3,470)	2005년 (n=3,502)	2004년 (n=2,376)	2006년 (n=4,246)	2005년 (n=4,212)	2004년 (n=2,503)
1위	강원(14.3)	강원(15.4)	강원(16.5)	경기(18.8)	경기(20.4)	경기(15.0)
2위	경기(13.1)	경북(10.5)	경기(10.1)	경남(12.3)	경남(10.5)	경남(12.0)
3위	경남(10.0)	전남(10.4)	경남(9.2)	서울(8.7)	전남(8.8)	전남(9.6)
4위	<b>충남(9.5)</b>	경남(10.2)	경북(9.0)	전남(8.4)	경북(8.7)	경북(9.3)
5위	전남(9.3)	경기(10.0)	전남(8.7)	<b>충남(8.0)</b>	<b>충남(8.0)</b>	<b>충남(8.4)</b>
6위	경북(7.7)	<b>충남(9.8)</b>	<b>충남(8.3)</b>	경북(7.6)	강원(7.7)	강원(7.5)
7위	서울(6.2)	서울(6.4)	서울(8.1)	강원(7.1)	전북(7.0)	전북(7.1)
8위	전북(5.3)	전북(6.3)	전북(6.8)	전북(5.0)	서울(6.8)	서울(6.5)
9위	충북(4.7)	충북(4.4)	충북(5.7)	충북(4.8)	충북(4.0)	충북(5.6)
10위	부산(4.3)	부산/제주(3.7)	부산(5.6)	부산/인천(4.2)	인천(3.9)	인천(4.6)
11위	제주(4.1)	-	제주(3.2)	-	부산(3.5)	부산(4.2)
12위	인천(3.0)	인천(2.8)	인천(2.3)	대구(3.4)	대구(3.4)	대구(3.5)
13위	대전(2.8)	대구(2.0)	대전(2.2)	대전(2.5)	울산(2.5)	대전(2.1)
14위	대구(2.5)	대전(1.5)	대구(1.9)	울산(1.9)	대전(2.0)	울산(2.0)
15위	광주(1.6)	광주(1.4)	광주(1.8)	광주(1.6)	광주(1.3)	광주(1.5)
16위	울산(1.4)	울산(1.2)	울산(0.5)	제주(1.4)	제주(0.9)	제주(1.0)
17위	북한(0.2)	북한(0.3)	북한(0.1)	북한(0.1)	북한(0.2)	북한(0.0)

주 : \* 응답 기준(Response Base)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6), 전제서.

국내 당일관광에 있어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여행 방문지 시·도중에서 계속적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강원과 경북보다 앞선 것으로 분석되어 대도시권 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활동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 (3) 시·도별 기억에 남는 방문지 및 향후 방문 희망지역 비교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에 있어서 시도·별 비교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위를 차지하고 있어 강원, 경남, 경북, 경기도에 이어 방문의 매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 및 향후 방문 희망 지역(2004~2006년)

(단위: %)

구분 순위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			향후 방문 희망 지역		
	2006년 (n=10,871)	2005년 (n=10,732)	2004년 (n=10,869)	2006년 (n=10,871)	2005년 (n=10,732)	2004년 (n=10,869)
1위	강원(15.0)	강원(14.9)	강원(16.1)	제주(34.1)	제주(32.0)	제주(33.3)
2위	경기(9.9)	경남(8.1)	경남(7.8)	북한(19.0)	북한(26.7)	북한(24.1)
3위	경남(9.6)	경북(8.0)	경기/경북(7.6)	강원(14.9)	강원(14.2)	강원(14.1)
4위	경북(8.3)	경기(7.7)	-	경북(6.4)	경북(5.8)	경북(5.6)
5위	<b>충남(7.8)</b>	<b>충남(7.2)</b>	<b>충남(7.3)</b>	전남(6.3)	전남(4.9)	부산/전남(5.2)
6위	전남(7.3)	전남(6.7)	전남(6.3)	부산(5.8)	부산(4.5)	-
7위	부산(4.8)	전북(4.6)	제주(4.8)	경남(3.5)	경남(3.5)	경남(3.6)
8위	서울/전북(4.5)	제주(4.5)	부산(4.5)	서울(2.0)	서울(2.1)	서울(2.0)
9위	-	부산(4.1)	전북(4.3)	<b>충남(1.5)</b>	<b>충남(1.3)</b>	<b>충남/전북(1.1)</b>
10위	제주(4.4)	서울(3.6)	서울(3.7)	경기/전북(1.2)	전북(1.2)	-
11위	충북(3.3)	충북/인천(2.7)	충북(3.4)	-	경기(0.8)	경기(1.0)
12위	인천(3.1)	-	인천(2.4)	충북(0.8)	인천/충북(0.5)	인천/충북(0.6)
13위	대구(1.6)	대구(1.3)	대구(1.5)	인천(0.7)	-	-
14위	울산(1.2)	울산(1.2)	울산(1.2)	대구(0.3)	울산(0.3)	광주(0.3)
15위	대전(0.8)	대전(0.7)	대전(0.8)	광주/울산(0.2)	광주(0.2)	대구/울산/ 대전(0.2)
16위	광주(0.7)	광주(0.4)	광주(0.6)	-	대구/대전(0.1)	-
17위	북한(0.2)	북한(0.3)	북한(0.3)	대전(0.1)	-	-
-	없음(13.1)	없음(21.3)	없음(20.4)	모름(1.8)	모름(1.3)	모름(2.2)

주 : \* 응답 기준(Response Base)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6), 전거서.

그러나 향후 방문 희망지역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9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지이기는 하나 향후 방문 희망 지역에 대한 의사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시·도별 방문지별 재방문 의사 및 타인 추천의사 비교

시·도별 방문지별 재방문 의사에서는 2005년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고, 2006년에는 재방문의사가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4〉 방문지별 재방문 의사 및 타인 추천 의사(2004~2006년)

(단위: %)

방문지역	재방문 의사			타인 추천 의사 (n=9,454)
	2006년 (n=9,454)	2005년 (n=8,457)	2004년 (n=8,684)	
서울	90.1	88.7	89.5	77.9
부산	92.7	93.4	90.8	87.7
대구	88.0	88.0	87.4	78.0
인천	86.7	87.6	86.1	79.0
광주	94.8	90.5	85.7	77.6
대전	89.4	89.2	88.9	76.2
울산	94.0	90.0	91.3	86.8
경기	92.0	88.7	89.9	81.7
강원	89.9	92.4	91.1	87.0
충북	90.0	83.2	89.7	85.3
충남	<b>89.3</b>	<b>91.2</b>	<b>85.3</b>	<b>83.9</b>
전북	91.0	90.1	90.2	82.1
전남	88.4	88.1	89.1	87.3
경북	90.5	89.5	89.2	89.3
경남	92.5	88.7	89.2	90.7
제주	92.6	93.3	87.7	93.0
북한	70.6	72.4	77.2	89.7
평 균	89.6	88.5	88.1	84.3

주 : 1) \* 응답자 기준(Respondent Base) / 타인추천의사는 2006년 신규문항

2) \*\* 긍정응답률 기준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6), 전게서.



또한, 타인 추천의사 역시 전체 평균인 84.3%보다 낮은 83.9%를 충남에 응답하고 있고, 전국에서 10위권을 차지하고 방문지별 재방문 의사와 마찬가지로 충남의 관광만족도를 높여 재방문과 타인 추천 의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5) 시·도별 방문지역 만족도 비교

시·도별 방문 만족도 조사에서는 충남은 만족도에서 전국의 평균치인 69.8%보다 낮은 68.0%이고, 전국 평균값(5점기준)인 3.80보다 낮은 3.76으로 나타났다.

〈표 III-5〉 국내여행 방문지역별 만족도(2006년)

(단위: %, 점)

방문지역	사례수	만족	보통	불만족	무응답	평균**
서울	(759)	67.0	27.5	4.4	1.1	3.75
부산	(550)	69.9	25.8	2.4	1.8	3.78
대구	(293)	55.0	38.4	5.2	1.3	3.58
인천	(383)	58.7	33.1	7.2	1.0	3.65
광주	(150)	72.9	22.3	4.8	0.0	3.83
대전	(161)	61.2	35.4	3.0	0.4	3.70
울산	(170)	72.2	26.8	1.0	0.0	3.78
경기	(1,356)	66.7	28.6	4.2	0.5	3.76
강원	(1,533)	72.2	22.6	4.5	0.7	3.83
충북	(475)	70.7	26.2	2.6	0.5	3.81
충남	(961)	68.0	26.4	4.3	1.3	3.76
전북	(593)	72.1	23.3	4.0	0.6	3.83
전남	(897)	73.9	21.6	3.6	1.0	3.84
경북	(1,011)	71.5	24.3	3.4	0.8	3.80
경남	(1,091)	72.8	21.8	4.2	1.2	3.82
제주	(455)	77.9	18.0	4.0	0.1	3.97
북한***	(21)	83.0	11.3	5.7	0.0	4.18
평 균	-	69.8	25.5	4.0	0.7	3.80

주 : 1) \* 응답자 기준(Respondent Base)

2) \*\* 평균은 5점 만점(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 2점, 매우 불만족: 1점) 기준

3) \*\*\* 북한은 사례수가 30명 미만으로 해석 시 주의 필요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6), 전거서.

이상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충남의 방문 만족도가 결국은 재방문 의사와 타인에 추천의사에 반영되고 있어 충남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3) 충남의 관광수요와 관광성향 분석

#### (1) 관광객 수요와 행태변화 전망

기존 연구결과(이인배·최영문, 2006)를 통해 충남의 관광수요를 전망하였다. 충남 관광객수 수요변화의 전망은, 앞에서 추정한 충청남도 관광객수(인회/지점) 수요에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변화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에는 당일관광이 절반을 차지하다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22%의 수준이며, 충남관광 1일당 목적지수로 1.6곳으로 대부분 한 장소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관광형태로 바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 충남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수요 변화 전망

(단위 : 천인, 지점)

구 분 \ 년 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관광객수 (인회/지점)	충남	숙박	56,682	65,992	81,073	96,825
		당일	28,636	28,223	32,911	38,854
		소계	85,318	94,215	113,984	135,679
충남 관광 1일당 목적지수(지점)			2.4	1.7	1.6	1.6

자료 : 이인배·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충남 점유율을 활용하여 충남의 관광객수(인회/지점)에 대한 숙박관광객수와 당일관광객수 변화추이를 계산한 결과, 2005년 숙박관광객 56,682천명, 당일관광객 28,636천명에서 2015년에는 숙박관광객 90,143천명 및 당일관광객 23,841천명, 그리고 2020년에는 숙박관광객 111,751천명 및 당일관광객 23,929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숙박관광객이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관광객수(인/일) 개념과 충남통계연보상의 관광객수(인회/지점)를 비교할 경우,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일 평균 목적지수는 2005년 2.0지점곳의 관광지 방문에서 2010년 1.7지점의 관광지 방문, 2015년 1.6지점의 관광지 방문 및 2020년 1.6지점의 관광지 방문 수준까지 떨어져서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점진적으로 선진국형 단일목적지 체류형 관광형태가 일반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남의 참가횟수(인/일)은 전국총량에서 충남 점유율을 곱한 것으로 숙박관광객과 당일관광객을 합한 충남의 참가횟수(인/일) 총량은 2005년 35백만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82백만명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전체의 관광비용 총량 즉, 여행비용 측면에서의 시장규모는 2005년 전국 14.5조원 대비 충남 1.3조원 규모에서 2010년 전국 19.2조원 대비 충남 2.2조원, 2015년 전국 23.9조원 대비 충남 3.0조원, 그리고 2020년에는 전국 28.5조원 대비 충남 3.5조원으로 나타나, 전국대비 충남은 2020년에 12.4% 수준까지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예측치와 충남 관광객수(인회/지점)  
수요예측결과와의 상호비교를 통한 충남관광 수요변화

(단위 : 천명, %, 원)

구 분 \ 년 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참가일수 (인/일)	충남	숙박	23,538	38,706	52,522	63,907
		당일	11,892	17,488	19,289	17,849
		소계	35,430	56,193	71,811	81,756
참가횟수 (인/회)	충남	숙박	10,696	18,996	26,896	33,619
		당일	11,891	17,488	19,289	17,849
		소계	22,587	36,484	46,185	51,468
참가인수 (인)	충남	숙박	3,834	4,749	5,172	5,253
		당일	3,129	4,484	4,946	4,462
		소계	6,963	9,233	10,118	9,715
총 여행비용 (백만원)	충남	숙박	1,014,084	1,791,759	2,534,679	3,166,602
		당일	333,066	443,150	451,211	373,175
		소계	1,347,150	2,234,909	2,985,890	3,539,777
	충남점유율		9.3	11.6	12.5	12.4

자료 : 이인배·최영문(2006), 전개서.

#### 4) 충남 여행행태 분석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조사부문별 결과를 각 시도별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충남의 관광성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숙박관광과 당일관광의 시·도별 비교

전국민이 선택하는 국내 여행 방문지에서 충청남도는 8.8%를 차지하여 경기(15.7%), 강원(11.2%), 경남(10.4%), 전남(9.5%), 경북(9.5%)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8〉 국내 여행 방문지역 시·도별 비교 분석

거주지 방문지	국민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서울	6.6	6.4	6.8	6.3	0.9	10.4	5.7	9.3	2.2	5.6	5.7	5.5	8.3	2.6	15.8	7.0	11.0	3.6
부산	3.6	3.7	3.5	0.4	1.0	-	12.3	2.0	22.2	4.6	3.2	5.8	1.3	2.2	-	2.0	3.3	1.0
대구	2.8	2.0	3.4	0.4	0.5	0.2	4.8	2.2	7.4	13.9	4.0	21.8	0.5	0.4	0.6	-	-	-
인천	3.4	2.8	3.9	4.9	2.3	6.8	0.2	0.5	-	0.5	1.1	-	13.9	5.6	24.8	0.2	0.5	-
광주	1.4	1.4	1.3	0.5	0.7	0.2	-	-	-	-	-	-	-	-	-	1.9	0.9	2.8
대전	1.8	1.5	2.0	0.7	1.6	-	0.4	0.5	0.4	0.4	0.5	0.4	1.6	1.8	1.4	1.5	1.7	1.3
울산	1.9	1.2	2.5	0.4	0.6	0.2	-	3.1	4.5	-	-	-	-	-	-	-	-	-
경기	15.7	10.0	20.4	41.5	20.4	57.5	1.6	2.7	0.9	1.6	2.2	1.1	22.7	16.6	30.7	1.2	2.7	-
강원	11.2	15.4	7.7	18.0	26.5	11.6	6.1	4.0	0.8	6.1	9.3	3.6	18.6	21.9	14.3	1.2	2.6	-
충북	4.2	4.4	4.0	4.2	4.1	4.2	2.2	2.2	1.3	2.2	2.3	2.1	3.4	4.1	2.6	1.2	2.7	-
충남	8.8	9.8	8.0	8.2	11.8	5.5	1.4	1.8	0.9	1.4	1.9	1.1	9.2	13.2	4.0	4.4	9.1	0.5
전북	6.7	6.3	7.0	3.7	6.2	1.9	2.6	1.5	0.8	2.6	4.3	1.2	4.8	6.6	2.5	6.9	5.9	7.7
전남	9.5	10.4	8.8	5.2	11.0	0.7	2.0	7.6	4.3	2.0	2.8	1.4	4.4	6.6	1.5	69.7	56.2	81.2
경북	9.5	10.5	8.7	3.6	7.6	0.5	42.7	17.3	16.6	42.7	39.6	45.3	6.8	11.4	0.7	0.5	-	0.9
경남	10.4	10.2	10.5	1.0	2.0	0.2	14.1	40.9	37.6	14.1	18.3	10.8	1.1	1.5	0.6	1.0	1.1	0.9
제주	2.5	3.7	1.6	1.1	2.6	-	2.0	3.7	-	2.0	4.5	-	3.3	5.4	0.6	1.0	2.2	-
북한	0.1	0.3	-	-	-	-	0.2	0.8	-	0.2	0.5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 방문지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서울	12.0	14.1	9.6	2.2	2.1	2.3	5.9	4.1	7.8	12.2	12.7	11.8	13.3	10.3	15.6	13.2	15.7	11.5
부산	1.8	2.6	0.9	4.8	7.9	3.4	1.3	2.2	0.4	2.4	4.9	-	2.4	3.9	1.1	2.4	4.7	0.8
대구	0.7	0.5	0.9	2.9	7.9	0.5	-	-	-	0.3	-	0.5	0.8	0.4	1.2	1.3	0.4	1.9
인천	0.2	0.4	-	-	-	-	8.8	6.6	10.9	1.8	2.8	0.8	2.3	3.6	1.2	2.1	3.6	1.1
광주	0.2	0.4	-	-	-	-	0.6	1.3	-	0.3	-	0.6	-	-	-	-	-	-
대전	2.9	0.0	6.2	-	-	-	0.6	0.8	0.3	0.0	-	-	6.0	4.9	7.0	9.7	4.6	13.3
울산	0.2	0.4	-	42.3	19.6	52.9	0.1	0.2	-	1.3	1.6	0.9	0.9	1.9	-	0.2	0.4	-
경기	4.1	6.8	1.0	0.3	1.1	-	29.0	14.8	43.7	11.8	11.8	11.8	5.8	7.4	4.5	9.5	13.0	7.1
강원	4.4	4.8	4.0	1.4	4.5	-	21.0	26.5	15.3	53.9	43.0	64.4	11.6	16.2	7.9	5.0	8.8	2.2
충북	16.9	15.5	18.5	0.7	2.2	-	3.7	5.1	2.2	1.1	0.5	1.6	30.7	16.5	42.1	4.2	5.6	3.2
충남	34.0	28.9	39.9	1.0	2.1	0.5	12.8	12.8	12.9	4.3	8.7	-	10.4	12.5	8.7	37.1	27.3	44.0
전북	12.8	13.0	12.6	-	-	0.0	4.2	6.1	2.1	0.5	1.0	-	2.9	1.2	4.2	5.6	5.6	5.6
전남	1.7	0.8	2.7	1.0	1.0	0.9	5.0	8.0	1.9	0.7	1.4	-	1.4	1.5	1.2	3.8	1.9	5.1
경북	4.8	7.7	1.4	29.1	19.8	33.4	5.0	7.4	2.4	5.4	3.4	7.2	7.0	10.2	4.5	2.3	2.4	2.3
경남	2.6	2.8	2.3	13.6	29.7	6.0	0.6	1.1	-	1.5	2.5	0.5	2.4	4.6	0.6	2.4	3.0	1.9
제주	0.7	1.3	-	0.4	1.1	-	1.3	2.6	-	2.8	5.6	-	2.0	4.6	-	1.1	2.7	-
북한	-	-	-	0.3	0.9	-	0.1	0.2	-	-	-	-	0.2	0.4	-	0.2	0.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방문지 거주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총 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서울	6.1	8.4	4.7	5.0	9.2	1.6	4.3	5.9	2.9	3.3	6.5	0.9	4.8	8.4	2.9
부산	0.8	1.0	0.7	1.7	3.1	0.5	4.3	4.4	4.2	13.4	14.9	12.2	2.9	8.4	-
대구	0.2	0.3	0.2	0.6	1.0	0.3	18.4	19.6	17.5	5.5	2.3	7.9	-	-	-
인천	1.6	3.5	0.5	0.5	1.2	-	0.3	0.7	-	0.2	0.5	-	1.5	4.3	-
광주	1.1	1.2	1.1	17.4	15.9	18.6	0.2	0.4	-	0.1	0.3	-	2.4	6.1	0.4
대전	7.8	7.8	7.8	0.8	1.7	0.2	0.5	-	0.9	0.5	0.4	0.5	-	-	-
울산	0.3	0.7	-	0.1	0.2	-	0.9	1.0	0.9	0.9	1.3	0.6	-	-	-
경기	3.5	7.5	1.3	1.4	2.4	0.7	1.5	2.2	0.9	1.2	2.5	0.2	0.8	0.8	0.7
강원	1.1	2.6	0.3	1.2	2.4	0.3	8.5	10.5	6.7	2.4	5.0	0.4	-	-	-
충북	2.2	3.4	1.5	0.6	0.9	0.3	2.0	2.4	1.7	1.0	2.0	0.2	1.1	3.3	-
충남	7.8	8.8	7.3	1.1	1.6	0.6	0.8	1.4	0.3	1.3	1.7	0.9	0.5	1.5	-
전북	55.1	36.9	65.4	7.2	7.4	7.1	0.8	0.8	0.9	1.5	1.5	1.4	-	-	-
전남	6.9	9.5	5.4	55.7	43.4	65.4	4.3	5.0	3.6	4.6	5.9	3.6	0.3	0.8	-
경북	1.5	1.7	1.4	0.8	1.1	5.4	46.4	37.6	54.1	4.3	6.6	2.5	0.2	0.7	-
경남	3.0	4.0	2.5	3.7	3.6	1.4	4.3	3.0	5.5	59.3	46.9	68.7	0.8	2.3	-
제주	0.8	2.3	-	2.1	4.8	2.5	2.5	5.3	-	0.5	1.1	-	84.8	63.3	96.0
북한	0.1	0.3	-	0.1	0.2	-	-	-	-	0.3	0.6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5), 국민여행실태조사.

또한, 시도별 방문지에서 충청남도를 방문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37.1%), 대전(34.0%), 경기(12.8%), 충북(10.4%), 인천(9.2%) 등의 순이었다. 이들중 숙박여행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28.9%)과 대전(27.3%)을 제외하고, 인천(13.2%), 경기(12.8%), 서울(11.8%) 등으로 수도권에서 충남을 주요 숙박여행지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충남 여행시기 분석

충남을 방문하여 여행하는 시기에 대한 분석으로, 2006년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객은 숙박여행을 주말(55.8%)에 가장 많이 다녔으며, 이어서 휴가/방학, 주중 등의 순이었다. 당일여행을 다니는 경우에도 충남 방문 여행객은 주말(61.2%)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당일여행은 감소하고, 숙박여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 충남 여행시기 분석

(단위 : %)

구 분	숙박여행			당일여행		
	2006	2005	2004	2006	2005	2004
사례수	(684)	(744)	(682)	(958)	(945)	(829)
주중	17.2	20.1	21.8	34.0	32.7	29.7
주말	55.8	52.8	52.5	61.2	62.5	65.4
휴가/방학	22.5	23.7	22.2	2.0	1.6	1.8
명절	1.1	0.5	0.3	0.1	0.3	0.1
연휴/공휴일	3.2	2.9	3.1	2.6	2.6	2.9
모름/무응답	0.2	0.0	0.1	0.0	0.2	0.1

주 : Base :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 수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제서.

### (3) 충남 여행동반자 유형과 동반자수 분석

충남을 방문하는 여행동반자 유형 분석 결과, 2006년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객은 가족/친지(54.3%)와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친구/연인 등의 순이었다. 당일여행의 경우에도 충남 방문 여행객은 가족/친지(43.4%)와 함께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 여행동반자수의 분석결과는 2006년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객은 숙박여행 시 4-5명(34.0%)과 동행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2-3명(29.4%)의 순이다. 혼자서 숙박여행을 가는 비율은 1.5%로 매우 낮았다. 당일 여행은 2-3명(32.3%)과 함께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10〉 충남 여행동반자 유형 분석

(단위 : %)

구 분	숙박여행			당일여행		
	2006	2005	2004	2006	2005	2004
사례 수	(684)	(744)	(682)	(958)	(945)	(829)
혼자서	1.5	2.2	1.5	3.3	3.6	2.1
가족/친지	54.3	52.0	43.6	43.4	41.5	39.1
친구/연인	32.2	37.5	39.7	30.9	34.9	37.1
직장/직장내 단체	4.6	1.9	4.9	4.5	3.3	3.9
학교/학교내 단체	4.0	3.4	5.6	1.3	1.0	1.2
종교단체	0.3	0.2	0.6	1.2	1.4	1.6
유관/지역 단체	1.1	0.3	0.8	4.4	5.9	5.1
동호회	1.8	2.3	2.7	7.5	6.7	7.8
여행사 모집	0.0	0.1	0.0	0.2	0.4	0.4
기타	0.1	1.1	0.5	3.3	1.3	1.8

주 : Base :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 수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게서.

〈표 III-11〉 충남 여행동반자수 분석

(단위 : %)

구 분	숙박여행			당일여행		
	2006	2005	2004	2006	2005	2004
사례 수	(684)	(744)	(682)	(958)	(945)	(829)
1명	1.5	2.2	1.5	3.3	3.6	2.1
2-3명	29.4	30.8	25.2	32.2	30.7	35.9
4-5명	34.0	34.4	37.0	28.9	30.9	28.1
6-10명	20.6	19.4	16.4	13.0	15.0	14.2
11-20명	9.4	8.9	13.3	7.4	4.6	6.1
21명 이상	5.0	4.2	6.6	15.2	15.2	13.5
평균(명)	7.6	7.1	8.5	10.4	10.1	9.6

주 : Base :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 수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게서.



#### (4) 충남 여행 체류기간 및 소요시간 분석

2006년 순수관광 목적 충남방문 여행객은 숙박여행 시 1박 2일(66.5%)동안 체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2박 3일(24.8%) 순이다.

숙박여행 1회 평균체류기간은 2.3일이다. 당일여행 시 소요 시간으로 10-11시간(23.0%)이 가장 많고, 이어서 5시간 이하(20.9%) 순이다. 당일여행 1회 평균 소요시간은 8.9시간이다.

#### (5) 충남 여행 방문지 주요 관광활동 분석

2006년 순수관광 목적 숙박여행 시 충남 방문 여행객의 주 활동으로 휴식/휴양(66.2%), 자연명승/풍경감상(54.3%), 수영/수상/해변활동(37.2%)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다.

당일여행의 경우에는 자연명승/풍경감상(55.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고, 이어서 휴식/휴양, 식도락여행 등의 순이다.

〈표 III-12〉 충남 여행체류기간 및 소요시간 분석

(단위 : %)

구 분	숙박여행			구 분	당일여행		
	2006	2005	2004		2006	2005	2004
사례 수	(684)	(744)	(682)	사례 수	(958)	(945)	(829)
0박2일	3.3	1.8	3.1	5시간이하	20.9	11.7	14.2
1박2일	66.5	67.1	63.5	6-7시간	15.3	11.1	16.0
2박3일	24.8	25.7	26.2	8-9시간	17.8	16.8	16.0
3박4일	4.4	4.5	5.9	10-11시간	23.0	26.8	22.7
4박5일	0.7	1.0	0.8	12-13시간	11.3	15.1	16.3
5박6일	0.2	0.0	0.5	14-15시간	8.3	12.9	9.5
6박7일이상	0.1	0.1	0.1	16시간이상	3.5	5.5	5.4
평균(일)	2.3	2.3	2.4	평균(시간)	8.9	10.0	9.6

주 : Base :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 수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제서.

〈표 III-13〉 충남 여행방문지 주요 활동 분석

(단위 : %)

구 분	숙박여행			당일여행		
	2006	2005	2004	2006	2005	2004
사례수	(684)	(744)	(682)	(958)	(945)	(829)
1위	휴식/휴양 66.2	자연명승/풍경감상 67.3	자연명승/풍경감상 62.0	자연명승/풍경감상 55.7	자연명승/풍경감상 72.2	자연명승/풍경감상 61.9
2위	자연명승/풍경감상 54.3	휴식/휴양 51.5	휴식/휴양 48.4	휴식/휴양 41.2	휴식/휴양 37.4	휴식/휴양 38.3
3위	수영/수상/해변활동 37.2	수영/해변활동 37.1	수영/해변활동 40.1	식도락여행 28.7	수영/해변활동 15.1	수영/해변활동 16.1
4위	식도락여행 24.2	유흥/오락 16.7	유흥/오락 24.7	수영/수상/해변활동 17.8	등산/캠핑/하이킹 12.2	유흥/오락 14.8
5위	유흥/오락 15.4	문화유적지 방문 10.0	문화유적지 방문 11.9	등산/캠핑/하이킹 12.9	문화유적지 방문 10.6	등산/캠핑/하이킹 13.2

주 : 1) Base :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 수      2) 복수응답임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거서.

## (6) 충남 여행시 숙박장소 분석

2006년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객의 숙박장소로 펜션(21.0%)이 가장 높고, 이어서 모텔/여관, 콘도미니엄 등의 순이다. 이를 볼 때, 펜션이 충남 방문 시 여행객의 주요 숙박 장소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4〉 충남 여행시 숙박장소 분석

(단위 : %)

구 분	2006	2005	2004
사례 수	(684)	(744)	(682)
1위	펜션 21.0	민박 21.2	민박 25.8
2위	모텔/여관 18.6	펜션 21.1	모텔/여관 18.6
3위	콘도미니엄 18.5	모텔/여관 19.7	펜션 16.0
4위	민박 16.1	콘도미니엄 11.4	콘도미니엄 12.5
5위	가족/친지집 7.0	가족/친지집 9.7	야영 6.0

주 : Base :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 수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거서.

## (7) 충남 여행시 교통수단 분석

2006년 충남 방문 여행객은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객은 숙박여행 시 자가차량(83.7%)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전세/관광버스 등의 순이다. 당일여행의 경우도 자가차량(72.4%)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세/관광버스의 순이다.

〈표 III-15〉 충남 여행시 교통수단 분석

(단위 : %)

구분	숙박여행			당일여행		
	2006	2005	2004	2006	2005	2004
사례수	(684)	(744)	(682)	(958)	(945)	(829)
1위	자기차량 83.7	자기차량 82.8	자기차량 81.3	자기차량 72.4	자기차량 73.0	자기차량 77.4
2위	전세/관광버스 5.1	전세/관광버스 6.0	전세/관광버스 6.2	전세/관광버스 17.9	전세/관광버스 18.4	전세/관광버스 16.0
3위	고속버스 3.8	일반열차 4.7	고속버스 4.6	일반버스/시외버스 5.9	일반버스 2.8	일반버스 2.4
4위	일반열차 3.1	고속버스 3.5	열차 3.3	고속버스 0.7	일반열차 2.3	고속버스 1.4
5위	일반버스/시외버스 2.8	일반버스 1.5	렌트차량 2.7	지하철 0.5	고속버스 1.9	렌트차량 1.0

주 : 1) Base :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 수

2) 복수응답임

3) 2004년의 일반열차를 2005년 조사부터 일반열차(무궁화 및 새마을호)와 고속철도(KTX)로 분리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제서.

## (8) 충남 여행시 여행 1회 기준 평균 비용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객이 지불한 여행 1회 기준 1인 평균 숙박여행 비용은 93,739원, 당일여행 비용은 39,861원이다. 여행 1회 기준 1인 평균 비용은 숙박여행의 경우 5-7만원 미만(22.0%)이 가장 많고, 당일 여행의 경우 3만원 미만(40.6%)이 가장 많다.

〈표 III-16〉 충남 여행시 1회 기준 여행비용

(단위 : %)

구 분	숙박여행			당일여행		
	2006	2005	2004	2006	2005	2004
사례 수	(684)	(744)	(682)	(958)	(945)	(829)
3만원 미만	4.8	6.1	7.0	40.6	44.9	39.5
3-5만원 미만	13.4	13.3	15.6	28.2	25.5	30.4
5-7만원 미만	22.0	21.3	23.3	19.2	17.9	17.1
7-10만원 미만	20.4	19.0	16.8	5.0	4.2	4.6
10-15만원 미만	20.6	26.4	22.7	5.6	5.0	6.5
15-20만원 미만	10.0	8.6	7.2	0.8	1.2	1.2
20만원 이상	8.8	5.2	7.3	0.7	1.3	0.8
평균(원)	92,739	88,694	88,621	39,861	40,124	40,836

주 : Base :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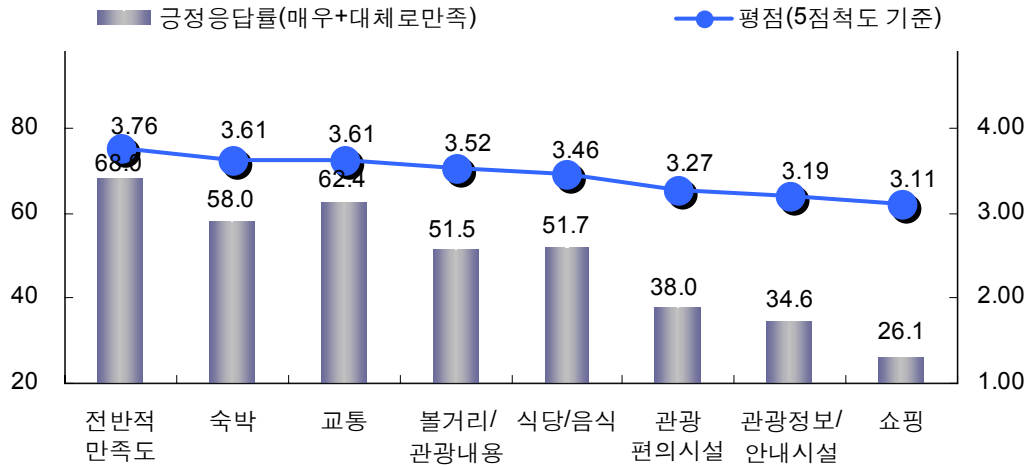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제서.

## (9) 충남 여행시 만족도

2006년 충남을 방문한 여행객 중 68.0%가 충남 여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충남 여행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76점이다. 충남을 방문한 여행객은 숙박(3.61점, 58.0%)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교통(3.61점, 62.4%), 볼거리/관광내용(3.52점, 51.5%)의 순이다. 반면, 쇼핑(3.11점, 26.1%), 관광안내시설(3.19점, 34.6%), 관광편의시설(3.27점, 38.0%)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III-1) 충남 여행의 만족도

(단위 : %)



주 : 1) 5점 척도(매우 만족: 5점, 대체로 만족: 4점, 보통: 3점, 대체로 불만: 2점, 매우 불만족: 1점)

2) Base : 2006 충남 방문 여행자(n=961, 숙박 경우만 n=735).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거서.

## (10) 충남 여행의 개선사항

2006년 충남을 방문한 여행객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사항으로, 숙박 분야는 가격인하(33.9%), 교통 분야는 도로 확충(19.0%), 불거리/관광내용 분야는 지역별 특색/독창성(38.9%), 식당/음식 분야는 청결 및 위생(28.8%)에 대한 개선요청이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쇼핑분야는 독창성(24.8%), 관광정보/안내시설 분야는 지역관광안내 책자(26.4%), 관광편의시설 분야는 화장실(30.6%)에 대한 개선요청이 가장 높았다.

〈표 III-17〉 충남 여행시 개선 요구사항

(단위 : %)

구 분	사례수	2005	2004	2006
숙박	(735)	가격인하 (33.9)	숙박지주변 관광정보 (18.0)	청결 및 위생 (15.9)
교통	(961)	도로확충 (19.0)	주차공간확충 (17.3)	교통안내정보 (15.7)
볼거리/관광내용	(961)	지역별 특색/독창성 (38.9)	축제/이벤트 내용 빈약 (15.1)	재미/흥미 (13.1)
식당/음식	(961)	청결 및 위생 (28.8)	음식 맛 (26.7)	가격 인하 (16.6)
관광편의시설	(961)	화장실 (30.6)	휴식장소 (12.0)	가족관광 편의시설 (9.0)
관광정보/안내시설	(961)	지역관광안내 책자 (26.4)	지역관광안내소 안내정보 (22.8)	안내표지판 (22.4)
쇼핑	(961)	독창성 (24.8)	품질 (21.9)	가격 (19.9)

주 : Base : 순수관광 목적 충남 방문 여행 수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게서.

### (11) 충남 여행에 대한 전국과 충남의 차이분석

2006년 충남을 방문한 여행객의 전반적 만족도는 3.76점으로, 모든 지역의 전체 만족도 3.79점 대비 0.03점 낮았다. 세부 분야별 전체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관광정보/안내시설(-0.12점), 볼거리/관광내용(-0.10점), 관광편의시설(-0.08점), 식당/음식(-0.07점)의 순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숙박관광과 당일관광에서 전국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중상위 수준의 방문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의 만족도는 앞의 분석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III-18〉 전국과 충남 여행의 만족도 차이(GAP)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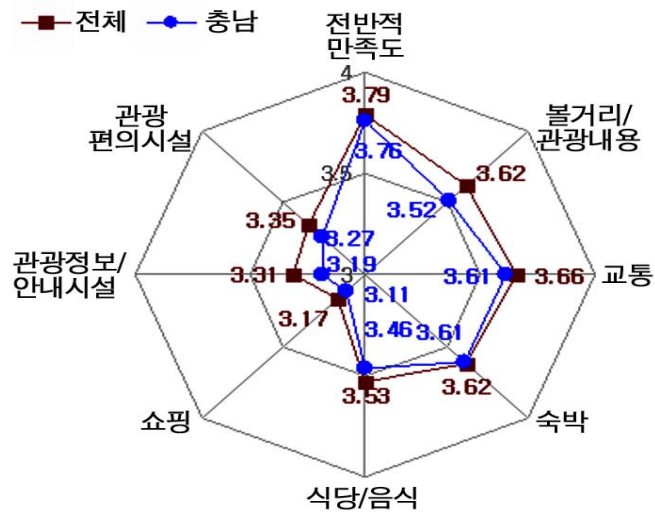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전 체 (A)	충 남 (B)	차이(GAP) (B-A)
전반적 만족도	3.79	3.76	-0.03
불거리/관광내용	3.62	3.52	-0.10
교통	3.66	3.61	-0.05
숙박	3.62	3.61	-0.01
식당/음식	3.53	3.46	-0.07
쇼핑	3.17	3.11	-0.06
관광정보/안내시설	3.31	3.19	-0.12
관광편의시설	3.35	3.27	-0.18

주 : GAP = 충남 만족도 평균 - 전체 만족도 평균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게서

(그림 III-2) 전국과 충남 여행의 만족도 차이(GAP)분석도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전게서.

## 5) 충남 권역별 관광객 행태 특성<sup>7)</sup>

### (1) 해양관광권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기존에 소외되어 왔던 서해안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켰으며, 관광객과 주요 관광지간의 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켜 주었다.

향후 당진~대전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등 동서축의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내륙지역의 관광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내륙지역과 해안지역 관광자원간의 효과적인 연계개발 및 내륙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기존 관광지의 정비, 관광상품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현재 서해안 지역에서 해안내륙 지역 관광객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해안가 지역의 관광객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꽃지해수욕장 같은 해안지역 관광지 관광객 수는 증가한 반면, 무령왕릉, 공산성과 같은 내륙형 관광지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다.

현재 해양관광 참여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해안 50%, 남해안 34%, 서해안 13%, 제주 3%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해양관광수요를 대상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서해안 지역은 특히 음식과 관련된 관광지가 포구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어 향토음식의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충청남도의 홍성 남당리, 서산 간월도, 서천 마량리, 태안 원북 등의 향토음식이 관광자원화 되고 있다.

또한, 서해안의 독특한 자연현상과 관광축제 등이 관광상품화 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당진 왜목마을, 태안 신두리, 태안·당진·홍성·서천 갯벌체험, 서산·서천에서 철새관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7) 한국관광공사(2005), 서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 도종합수정계획과 충청남도(2007),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등에서 요약 재정리



## (2) 백제 · 금강문화 관광권

백제권 지역은 풍부한 역사·문화 유적이 있어 관광자원의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백제역사재현단지, 백제의 집 건립 등 다각적인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이 활발함에 따라 관광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 백제권 관광지의 목적지별 관광객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19.7%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12.2% 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문화유적 관광지(부소산성, 정림사지 등)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백제권 관광지 관광객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2006년에 부소산성이 22.8%, 정림사지 26.2%, 공산성이 2.9%, 공주박물관 29.9%감소했으나 무령왕릉만 32.3%가 증가 하였다.

최근 서동연꽃축제 개최장소인 궁남지는 관광객이 46.7% 증가하여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다음으로 무령왕릉과 구드래관광지가 증가하였다.

## (3) 대도시 근교권

대도시근교권의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대전시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은 수를 차지하며, 이들은 대부분이 가족친지와 함께 등산이나 공원에서 휴식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논산 탐정호, 금산 주변의 저수지 등에서 낚시, 주변 골프장에서의 레저스포츠, 논산과 금산 주변의 특산물 체험, 계룡산, 서대산 등 주변 산의 등산 활동을 위해서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논산딸기축제, 계룡산 분청사기축제, 강경젓갈축제, 금산인삼축제 등 지역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이 있다.

관광객 중에는 대전과 연결되는 고속국도 혹은 국도, 철도를 통해 대전시를 통과하거나 공주와 논산, 계룡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전을 경유해 통과하는

방문객들도 있다.

대도시 근교권 관광지들의 관광객수가 2005년을 기준으로 2006년에 동학사는 23.7%, 갑사는 30.9%, 신원사 23.7% 감소했으나 금산인삼종합전시관은 14.3%, 서대산 드림리조트 4.7%, 논산그린투어리즘(딸기체험관광) 43.2%가 증가하였다.

#### **(4) 내포문화관광권**

내포문화관광권을 찾는 방문객의 유형은 당진의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 유적탐방과 서해 해변을 따라 입지하고 있는 해안레포츠활동, 당진 북부지역의 바다체험, 그리고 내륙의 입지한 역사 및 먹거리체험 등으로 나뉘어진다.

역사유적 관광지로 불교(마애불, 사찰, 사지), 천주교, 관방, 성곽 등이 있으며, 무형민속자원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서해안의 포구, 갯벌 체험, 해수욕장, 신두사구 등과 왜목마을, 안면도, 간월도 관광지 등이 있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많은 수도권지역의 관광객들과 전라도 지역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관광교통체계 구축 미흡, 관광상품개발의 미약, 관광수요의 계절적 편중, 외부 관광수용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증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서해안권의 대동맥이 될 서해안고속도로 완공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개최를 통한 관광수요의 급증으로 지역 관광시설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내포문화관광권 관광지들의 관광객수가 2005년을 기준으로 2006년에 김좌진장군생가 80.3%, 한용운선생생가 45.7%, 홍주의사총 50.0%, 간월도 관광지 92.7%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 **(5) 역사·온천 휴양권**

역사·온천 휴양권을 찾는 방문객은 주로 아산,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온천자원을 통한 휴식 및 천안의 역사유적탐방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축제이벤트로 다양하고 독특한 축제 이벤트를 개최하여 주춤해져가는 온천지구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최근 천안에 홍타령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역사·온천 휴양권 관광지들의 관광객수가 2005년을 기준으로 2006년에 독립기념관은 4.4% 감소하였고, 온양온천은 6.2%, 아산온천 5.1%, 도고온천은 0.1% 증가하였다

## 2. 관광개발실태 분석

### 1) 충남 관광도시와 관광지 개발실태

충남은 국토의 중심에 있으며 자연공원, 관광지, 골프장, 온천,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연공원은 계룡산과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2개의 국립공원과 칠갑산, 덕산, 대둔산 등 3개의 도립공원, 그리고 연기 고북저수지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광도시와 관광지, 온천, 관광특구, 농·산·어촌 관광체험마을 등을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1) 태안 관광레저기업도시 조성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로 선정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sup>8)</sup>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변경안 심의 의결이 있고서 약 한달 여 만에 전국 기업도시 시범사업 6곳 중 가장 먼저 정부 승인을 받고 2007년 10월 착공하였다.

---

8) 국토의 계획적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2005년 8월, 6개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된 바 있는데, 이 중 충남 태안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표 III-19〉 태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위 치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면 적	14,734천 m <sup>2</sup> (445.7만평), 2007~2011 (도시조성비 11,526억원)
참여기업	현대건설주식회사
도입 시설	테마파크, 아카데미타운, 생태공원, 골프장, 국제비즈니스 단지 등

자료 : 태안군(2007),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연구 재정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공공청사, 도서관과 같은 공공편익시설과 골프장, 클럽하우스, 숙박시설과 산업기능을 담당하는 첨단복합시설, 엔터테인먼트와 관련이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 테마파크, 아카데미타운, 국제 비즈니스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2) 관광특구지정

2007년 현재 관광특구<sup>9)</sup>는 전국에 24개소로 전체 면적이 2,765.31km<sup>2</sup>다. 충남은 관광특구로 보령 해수욕장지역과 아산시 온천지역 등 관광거점 2개 지역을 1997년 1월 18일 지정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면적은 6.23km<sup>2</sup>가 지정되었다.

9) 관광특구는 1993년 12월 27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써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서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의 제한을 배제 또는 완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관광사업 활동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수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표 III-20〉 전국대비 충청남도 관광특구 지정현황(2007년)

지역	특구명	갯수	면적	지 역
			(단위:km <sup>2</sup> )	
충남	아산시 온천	2	3.71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지역, 남포면 월전리 죽도지역,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 해수욕장 및 석대도 지역
	보령 해수욕장		2.52	아산시 온천1동, 권곡동, 모종동, 득산동, 방축동 지역, 도고면 도고온천지역, 음봉면 아산 온천지역
전국		24	2,765.31	

자료 : 충청남도(2006), 도정백서.

### (3) 지정관광지 조성

2006년 현재 지정관광지<sup>10)</sup>는 전국에 221개소이며, 충남은 삼교호, 구드래, 태조산, 신정호, 안면도 등 총 25개소가 분포하여 전체 면적 18.489km<sup>2</sup>, 전국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10)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개발 제한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식·음료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관광지 안내도 등 기반시설과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련장, 샤워·탈의장, 물품보관소 등 편의시설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이용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 및 휴식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지정하여 공공·편의시설, 숙박·상가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을 유치·개발하고 있다.

〈표 III-21〉 충청남도 지정관광지 현황(2006년)

관광지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지정일	관광지 성격	비 고
계	25지구				
안면도	태안군	6,109,194	‘91.02.22	국제적 관광휴양지	추진중
예당저수지 관광지	예산군	393,723	‘87.06.03	가족휴양중심 관광지	추진중
덕산온천 관광지	예산군	723,865	‘86.06.28	온천자원개발	추진중
삽교호 관광지	당진군	202,983	‘83.10.10	가족휴양중심 관광지	개발중단
난지도 관광지	당진군	140,000	‘00.09.07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중
왜목마을 관광지	당진군	392,253	‘02.02.26	가족휴양, 일출관광	확대 추진중
간월도 관광지	서산시	149,800	‘00.05.04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중
남당 관광지	홍성군	526,200	‘04.03.18	해양요리테마 관광지	추진중
태조산 관광지	천안시	331,000	‘85.07.24	청소년 수련시설	완료
용연저수지관광지	천안시	264,000	‘88.07.12	가족휴양중심 관광지	추진중
각원사 관광지	천안시	82,294	‘90.04.19	가족휴양중심 관광지	개발중단
천안종합휴양 관광지	천안시	3,318,258	‘96.07.29	온천자원개발	확대 추진중
신정호 관광지	아산시	378,142	‘71.05.20	가족휴양중심 관광지	개발중단
아산온천 관광지	아산시	844,000	‘91.03.15	온천숙박 중심관광지	개발중단
구드래 관광지	부여군	148,515	‘69.01.21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완료
칠갑산 도립온천	청양군	140,102	‘95.10.5	온천자원개발	조성계획변경중
곰나루 관광지	공주시	139,000	‘87.7.24	가족휴양중심 관광지	추진중
마곡사 관광지	공주시	126,000	‘93.11.9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추진중
마곡온천 관광지	공주시	621,592	‘96.9.16	온천자원개발	추진중
공주문화 관광지	공주시	799,056	‘96.10.24	백제문화 중심 관광지	추진중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2,150,000	‘69.1.21	해수욕장 중심관광지	개발중단
무창포 해수욕장	보령시	337,901	‘86.8.20	해수욕장 중심관광지	추진중
죽도 관광지	보령시	73,380	‘90.4.19	해양스포츠 및 휴양시설	추진중
금강하구둑 관광지	서천군	277,680	‘93.9.22	해양 및 놀이시설	추진완료단계

자료 : 충청남도(2007), 도정백서 재정리.

#### (4) 문화<sup>11)</sup> 및 생태·녹색관광자원<sup>12)</sup> 개발

1999년 6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면서 시작된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 사업의 수는 2005년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3%)을 보이며 평균 67.4%의 증가율로 2006년에는 131개로 사업수가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표 III-22〉 전국의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현황

(단위: 개소, %)

연도	문화 관광자원	증가율	생태·녹색관광자원	증가율
1999년	6	-	-	-
2000년	20	233	-	-
2001년	40	100	-	-
2002년	50	25	-	-
2003년	60	20	14	-
2004년	92	53	14	-
2005년	95	3	18	29
2006년	131	38	26	44

주 : 2000년~2002년까지는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포함한 사업수임(2003년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분리됨)

자료 : 문화관광부·경희대학교 산하협력단(200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11)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 및 레저·스포츠자원 등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사업이다.

12)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3년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분리되어 자연을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태자원을 관광과 접목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육성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생태자원과 녹색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하여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유도하고 초보단계에 있는 생태·녹색관광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대규모 시설 조성 중심의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소규모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인위적인 관광매력물 조성보다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성과 특정 테마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중심의 다양한 관광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세분화되는 국민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복원·선양, 생태자원의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조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분리되어 지원되고 있는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3년 14개 사업이 지원 되었으며, 2006년 26개 사업에 지원되어 환경 및 생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2005년 9월 기준 전국대비 충남의 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자원사업은 전국적으로 168개지만 충남의 경우 9개에 불과하며 생태·녹색관광자원사업은 전국적으로 2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남은 3개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표 III-23〉 전국대비 충남 관광개발사업 현황

지역	문화관광자원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사업	전체 사업비
전국	168개	24개	3,028,803백만원
충남	9개	3개	73,300백만원

자료 : 문화관광부·경희대학교 산하협력단(2007), 전게서.

충청남도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개 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7개 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1개 사업이 진행중이다.



〈표 III-24〉 충남 문화관광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현황

사업분류	사업명	지역	주요시설	사업기간(년)	총사업비(백만원)
문화관광자원	사비의 길 관광명소화	부여	사비성문, 광장조성	03~05	3,500
	부여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	부여	역사문화거리조성, 결절부 포켓공원 조성	06~07	4,140
	역사무예촌 조성	부여	전통무예수련원, 마상무예장, 무예훈련장, 연무대, 마굿간	02~10	8,220
	백제문화제 국제화	부여	전시실(백제복식 전시, 사비천도 행렬 모형 제작, 사진패널, 전시영상 등), 체험실:(백제복식 체험시설, 탁본체험, 사진찍기, 탐쌍기, 전돌쌍기, 웅상 및 장식 등)	02~05	600
	강경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강경	역사문화권역개발(옥녀봉 종교문화지구 조성, 황산포구 경관지구 조성), 근대문화권역개발(근대문화 가로경관 조성, 강경노동조합 내항지구 조성)	03~10	13,206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예산	통담장, 원흥장사우, 의좋은형제집, 화장실, 정자, 표지석, 연못정비, 홍살문복원, 비석공원, 의좋은형제공원, 의좋은형제전시관, 공용주차장, 역사탐방로, 조경시설	04~08	6,050
	독살복원 및 체험학습장 조성	태안	독살복원, 체험학습장, 주차장, 공중화장실, 진입도로, 부대시설	05~08	4,000
	해미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서산	민속가옥 및 옥사복원, 해자복원, 순라길 조성, 경관조명 설치, 원형광장 조성, 상징문 건립, 주차장·화장실 등 부대시설,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	02~10	12,212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	홍성	관아복원, 의병공원 조성	01~20	14,255
생태·녹색관광자원	금강상류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	금산	당초사업계획(자연생태관찰로 개설, 습지공원 조성, 조류조망시설, 야외자연생태학습장), 변경 사업계획(자연생태학습장 조성)	05~07	1,050
	비인만 갯벌체험관광마을 조성	서천	광장 4개소, 청소년수련장 1개소, 갯벌체험로 3개소, 진입도로개설, 공중화장실 2동, 취사장 3동, 산책로, 상·하수도시설, 조경시설, 가로등 66등, 주차장 4개소, 기타 편의시설	02~06	4,192
	갯벌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보령	편의시설(화장실, 세족실), 진입도로, 광장, 주차장	03~06	1,875

자료 : 문화관광부·경희대학교 산하협력단(200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재정리.

지역별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태안군 1개 사업, 예산군 1개 사업, 부여군 4개 사업, 서산시 1개 사업, 논산시 1개 사업, 홍성군 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서천군 1개 사업, 보령시 1개 사업, 금산군 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현황<sup>13)</sup>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6개 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에 2개 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3개 권역,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6개 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생태복원에 3개 마을이 지정되어 사업중이다.

〈표 III-25〉 농·산·어촌체험마을 관련 사업현황(2005년)

유형	주관	전국	충남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림부	123개 마을	16개 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농촌진흥청	31개 마을	2개 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림부	40개 권역	3개 권역
어촌체험마을사업	해양수산부	58개 마을	6개 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생태복원	환경부	신규 12개 마을	2개 마을
		재지정 7개 마을	1개 마을

13) 농촌체험 관련사업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다. 농림부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기반정비와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하드웨어를 정비할 수 있으며, 각각 면과 마을당 70억과 2억씩 지원해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으로 자연친화적 농촌조성과 높은 소득과 정이 살아있는 지역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하여 15~20억을 마을당 지원해주고 있다. 그 외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생태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5) 온천지구 지정

충남의 온천지구는 온양, 도고, 덕산, 아산 등 12개소가 운영 또는 개발 중이다. 골프장은 5개소가 운영 중이고 4개소가 공사 중이며, 정안, 천안, 백제, West Beach, T.A.B.D, 안면도관광지, 안면도대부초지 등 7개소와 태안기업도시내 골프장 7개소가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표 III-26〉온천지구 현황(2005년)

구 분	면적(천평)	지구지정일
아산 온양	161	81. 9.22
아산 도고 기곡	210	81. 9.22
아산 음봉	366	89.11.14
예산 덕산	935	81. 9.22
공주 마곡	245	93. 3. 4
홍성 홍성읍	233	93.11.25
예산 수덕	283	92. 4.15
공주 동학사	162	87. 5.22
청양 도림	161	94.10.22
천안 성남	288	94. 1.27
아산 도고 향산	7	97. 5.10
공주 갑사	273	05. 3. 9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06)

〈표 III-27〉골프장 현황(2005년)

골프장명		위 치	규모(홀)
운 영 중	도고C.C	아산 선장 신성	회원 18
	코오롱 우정힐스 C.C	천안 목천 윤전	회원 18
	IMG Nation C.C	연기 전의 유천	회원 27
	천안상록 C.C	천안 수신 장산	정규 대중 27
	에딘버러 C.C	금산 진산 행정	회원 18
공 사 중	버드우드 C.C	천안 병천 매성	회원 18 대중 6
	태안 비치컨트리클럽	태안 근흥 정죽	회원 18
	정안 C.C	공주 정안 인풍	대중 18
	퍼스트밸리 C.C	서산 대산 화곡	회원 18

자료 : 충청남도(2006), 도정백서.

## (6) 해수욕장 분포 현황

충남의 해수욕장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에 총 36개소가 분포하며, 태안군과 보령시 이용객이 가장 많다.

〈표 III-28〉해수욕장 분포 현황(2005년)

시군별	개소수 (개소)	2005년 이용객수(명)	비 고
계	36	27,058,585	-
보령시	5	11,999,945	대천, 무창포, 원산도, 호도, 웅두
서천군	1	2,917,000	춘장대
태안군	29	12,021,940	만리포, 몽산포, 연포, 삼봉, 꽃지, 백사장, 학암포, 구레포, 청포대, 신두리 등 29개소
당진군	1	119,700	난지도

자료 : 충청남도(2006), 전게서.

## (7) 자연휴양림 현황

충남의 자연휴양림은 칠갑산, 안면도, 만수산, 성주산, 용봉산, 금강, 남이, 영인산 등 11개소와 산림욕장은 성주산, 태조산, 남산, 장항 등 8개소를 포함한 총 19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다.

〈표 III-29〉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현황(2005년)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소)	실 적									계 획 2005~2008
			계	98까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충 남	계	21(60)	19(50)	13(23)	2(5)	1(2)	(3)	1(5)	1(4)	(4)	1(4)	2(10)
	자연 휴양림	11(60)	11(50)	9(23)	(5)	1(2)	(3)	(5)	(4)	(4)	1(4)	(10)
	산림욕장	10	8	4	2	-	-	1	1	-		2

주 : ( )는 기존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 사업수입

자료: 충청남도(2006), 전게서.

## 2) 충남 관광지원시설 실태

### (1) 관광숙박업<sup>14)</sup>

2005년 12월말 현재 관광호텔업의 등록 현황은 전국 558개 업체에 5만 8,950실로 2004년에 비해 185실이 감소되었다.

〈표 III-30〉관광호텔업 등록 현황(2005년)

(단위 : 개)

구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미정		합계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서울	17	9,337	22	5,093	32	3,686	25	1,551	11	619	7	408	114	20,694
부산	5	2,309	5	953	13	1,257	14	709	14	589	4	249	55	6,068
대구	1	342	7	551	15	881	5	247	-	-	1	32	29	2,053
인천	2	700	4	655	5	289	11	468	7	291	3	181	32	2,584
광주	-	-	3	259	8	491	5	223	2	68	2	103	20	1,144
대전	-	-	2	411	7	465	11	468	2	62	3	154	25	1,550
울산	2	495	-	-	-	-	2	146	1	38	1	75	6	754
경기	-	-	4	480	23	1,540	15	754	7	284	13	931	62	3,989
강원	1	477	9	1,386	11	722	3	152	2	94	3	155	29	2,986
충북	-	-	1	180	17	1,201	2	73	3	97	-	-	23	1,551
<b>충남</b>	<b>-</b>	<b>-</b>	<b>2</b>	<b>270</b>	<b>3</b>	<b>324</b>	<b>5</b>	<b>217</b>	<b>2</b>	<b>75</b>	<b>-</b>	<b>-</b>	<b>12</b>	<b>886</b>
전북	1	118	2	277	5	383	4	203	0	0	-	-	12	981
전남	-	-	1	58	8	542	5	229	7	267	1	50	22	1,146
경북	5	1,698	3	521	15	910	12	690	10	458	3	127	48	4,404
경남	-	-	3	411	13	1,115	7	365	2	67	0	0	25	1,958
제주	11	3,193	4	575	18	1,598	5	284	5	251	1	303	44	6,204
계	45	18,669	72	12,080	193	15,394	131	6,779	75	3,260	42	2,768	558	58,950

주 : 등급미정은 신규등록업체 및 등급유효기간 만료업체로서 현재일 기준 등급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업체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2005), 문화관광부(2006), 2006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14) 관광숙박업은 그 동안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해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99년 5월 10일) 국민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가족호텔업으로 통합하고, 해상관광호텔업은 수상관광호텔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개정(2005년 4월 17일)을 통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4개 업체에 20,694실로 총 객실 수의 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부산으로 55개 업체에 6,068실, 제주가 44개 업체에 6,204실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중 충남은 8개 업체에 886실을 갖추고 있다.

〈표 III-31〉관광호텔 객실이용율 (2005년)

(단위 : %)

지역 \ 등급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전 국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서울	67	56	72	60	74	54	58	34	53	23	69	56
부산	62	35	63	33	51	31	32	10	23	6	52	28
대구	59	12	45	15	31	9	12	1	46	4	38	10
인천	68	32	68	49	52	27	53	21	79	59	65	36
광주	-	-	45	10	42	7	45	14	41	3	43	8
대전	-	-	67	29	45	6	22	2	63	2	52	16
울산	54	38	-	-	-	-	22	14	35	29	46	32
경기	-	-	72	45	51	39	43	23	45	24	50	32
강원	66	2	58	14	28	6	23	4	-	-	52	10
충북	-	-	45	4	40	10	17	3	42	17	41	9
충남	-	-	71	57	40	19	44	30	11	5	59	34
전북	69	6	41	18	28	16	20	1	-	-	40	11
전남	-	-	17	1	38	5	33	11	26	1	38	6
경북	48	12	55	23	42	17	27	10	33	14	43	14
경남	28	21	52	28	36	13	25	4	23	0	36	14
제주	62	23	60	7	64	22	46	2	42	0	61	21
전국	64	44	64	42	52	29	39	18	43	20	57	37

주 : 1) 외국인 이용율은 등급별 이용인원에 대한 비율이며, 전체 이용율은 등급별 연 판매가능실수에 대한 연 판매실수 비율

2)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은 미포함

3) 상기 통계치는 관광호텔 운영실적 집계대상 업체(관광호텔 485개사, 가족호텔 5개사, 전통호텔 1개사)에 한함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2005), 문화관광부(2006), 2006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전국 각 시도의 2005년도 관광호텔 등급별 이용률을 보면 서울, 인천, 제주, 경기, 충남지역의 호텔 이용률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특등급과 1등급호텔 등

의 상위등급 호텔을 보다 많이 이용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의 고급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대부분이 특2등급 이상 호텔을 이용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1등급 이하 호텔들의 시설 개·보수 및 서비스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휴양콘도미니엄업<sup>15)</sup>의 현황은 2005년 12월말 현재 전국 123개소 중 충남은 8개소이다. 객실수는 전국 27,692실 중에 충남은 1,403실로 5.1%를 차지하고 있어 동해안과 접해 있는 강원도와 경북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표 III-32〉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현황(2005년)

(단위 : 개소)

구 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콘 도 수	2	1	13	40	7	8	7	4	11	4	26	123
객 실 수	661	150	2,564	3,736	1,782	1,403	845	590	2,359	677	2,925	27,692

자료 : 한국휴양콘도미니엄업협회(2005), 문화관광부(2006), 2006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충청남도의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이 11개소, 가족호텔이 1개소, 콘도미니엄 6개소가 있으며, 11개의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건설 중에 있다. 숙박시설 중 아산시에 10개소가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관광기반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거점지역에 일정규모이상의 고급 숙박시설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15) 우리나라는 1982년 12월 31일자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종으로 신설하였다.

〈표 III-33〉 충청남도 관광숙박시설 현황

(단위: 개소, 실)

구분	계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호텔	객실	호텔	객실	호텔	객실	호텔	객실
계	18 (11)	2,002 (1,785)	11 (5)	820 (637)	6 (5)	1,082 (1,098)	1	100
천안시	1 (2)	100 (85)	- (2)	- (85)	-	-	1	100
공주시	- (2)	- (485)	- (1)	- (83)	- (1)	- (402)	-	-
보령시	1 (4)	305 (322)	(1)	(193)	1 (3)	305 (129)	-	-
아산시	10 (4)	1,110 (670)	6 (2)	601 (276)	4 (2)	509 (394)	-	-
서천군	(1)	(50)	-	-	-	-	(1)	(50)
논산시	2	66	2	66	-	-	-	-
예산군	2 (1)	110 (173)	2	110	(1)	(173)	-	-
태안군	1	248	-	-	1	248	-	-
당진군	1	43	1	43	-	-	-	-

주 : ( )내 숫자는 건설중인 호텔임

자료 : 충청남도(2006) 내부자료

이상에서 살펴본 관광숙박업소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숙박업소는 전국 33,031개소가 있는데 충남은 2,168개소가 있어 6.6%를 차지하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전국에서 충남의 방문하는 숙박관광객의 비율로 본다면 아직도 충분치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4〉 숙박업 현황(2005년)

(단위 : 개)

구분 시 · 도	숙박업소 현황		
계	33,031		
서울	4,129	강원	2,382
부산	2,763	충북	1,200
대구	1,241	충남	2,168
인천	1,551	전북	1,532
광주	1,003	전남	1,852
대전	1,056	경북	2,566
울산	825	경남	2,976
경기	5,026	제주	761

자료 : 보건복지부(2005), 문화관광부(2006), 2006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2) 관광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2005년 12월말 현재 관광객이용시설업<sup>16)</sup>의 등록 현황을 보면 전문휴양업 20개 업체, 종합휴양업 14개 업체, 관광유람선업 13개 업체, 관광공연장업 2개 업체,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23개 업체이다. 충청남도에는 이중 종합휴양업이 1개소, 전문휴양업이 2개소가 있다.

〈표 III-35〉 시·도별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현황(2005년)

(단위 : 개)

구 분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서울	1	69	2	-
부산	2	10	-	1
대구	-	1	1	-
인천	3	-	1	-
광주	-	-	-	-
대전	-	-	-	1
울산	-	-	-	-
경기	-	16	1	3
강원	-	1	5	1
충북	-	-	-	-
충남	-	-	1	2
전북	3	1	1	1
전남	2	1	-	1
경북	-	9	1	1
경남	1	1	1	-
제주	1	14	-	9
계	13	123	14	20

자료 : 문화관광부(2006), 2006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6)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휴양업은 종합휴양업과 전문휴양업<sup>17)</sup>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2005년 12월말 현재 총 34개 업체가 등록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종합휴양업 제1종은 11개업체, 종합휴양업 제2종은 5개 업체, 전문휴양업은 18개 업체가 등록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충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종합휴양업 제1종 1개 업체, 전문휴양업 2개 업체 등이 지정되어 있다.

〈표 III-36〉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등록 현황(2005년)

등록업종	업 체 명	위 치	시 설 규 모(㎡)		등 록 일
			부지면적	등 록 주 요 시 설	
종합휴양업 (제1종)	천안상록리조트	천안시 수신면 잠산리	256,166	○ 유원시설, 수영장 - 운동, 오락시설 - 자연학습장 등	'02.12.26
전문휴양업	서대산 레저타운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1,761,554	○ 유기장 - 운동·오락시설 - 수영장 등	'90. 7.26
	아산스파비스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92,484	○ 온천장, 수영장 ○ 눈썰매장, 공연장	'01. 4. 9

자료 : 문화관광부(2006), 2006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요약

2005년 12월 현재 관광편의시설업<sup>18)</sup>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1,205개소에 달하며 이 중 ‘관광사진업’은 28개 업체이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및 ‘관광

17) 휴양업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관광여가형태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여가시설, 휴양시설, 관광시설, 문화·역사시설, 체육시설 등 15개종의 관광휴양시설을 관광휴양업종에 포함하였다. 종합휴양업은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춘 제1종 종합휴양업과 관광숙박시설과 제 1종 종합휴양업 시설을 함께 갖추고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구분된다.

18) 관광편의시설업은 종전의 관광지정시설업이 변경된 것으로서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을 제외한 사업이나 시설 가운데 관광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으로 지정된 관광편의시설업으로는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등 8가지가 있다.

토속주 판매업'은 현재 지정업체가 없다. 관광식당업은 총 834개 업체이며 관광유흥음식점 93개 업체,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243개 업체, 시내순환관광업 7개 업체로 집계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관광편의시설업은 이중 관광식당업만 17개소가 있다.

〈표 III-37〉 관광편의시설업 시·도별 지정 현황(2005년)

(단위 : 개소)

업 종 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관 광 편 의 시 설 업	관광유흥음식점업	67	24	-	-	-	-	1	-	-	-	-	-	-	1	-	-	93
	가. 한국음식점업	10	11	-	-	-	-	1	-	-	-	-	-	-	1	-	-	23
	나. 관광극장식당업	57	13	-	-	-	-	-	-	-	-	-	-	-	-	-	-	70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8	9	11	4	4	-	7	161	1	-	-	22	1	13	2	-	243
	관 광 식 당 업	344	66	39	35	21	64	16	114	20	7	17	22	22	10	15	22	834
	시내 순환관광업	1	1	-	1	-	1	-	-	3	-	-	-	-	-	-	-	7
	관 광 사 진 업	18	6	-	-	-	-	-	1	-	-	-	-	-	-	-	3	28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	-	-	-	-	-	-	-	-	-	-	-	-	-	-	-	-
	관광토속주판매업	-	-	-	-	-	-	-	-	-	-	-	-	-	-	-	-	-
	소 계	438	106	50	40	25	65	24	276	24	7	17	44	23	24	17	25	1,205

주 : '관광펜션업'은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05), 문화관광부(2006), 2006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2006년 5월 현재 전국의 유원시설업<sup>19)</sup>은 총 234개소이다. 이 중 충남은 총

19) 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종전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중 종합유원시설업과 기타 유기장업이 관광진흥법의 개정(1999년 2월 8일)으로 관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1개소로서 종합유원시설업 2개소, 일반유원시설업 12개소, 기타 유원시설업은 7개소가 있다.

〈표 III-38〉 유원시설업체 현황(2006년)

(단위 : 개소)

시 · 도	총 계	종 합	일 반	기 타
서 울	11	4	4	3
부 산	18	3	11	4
대 구	9	2	6	1
인 천	12	1	6	5
광 주	3	2	1	0
대 전	8	3	1	4
울 산	5	0	4	1
경 기	54	7	32	15
강 원	24	3	12	9
충 북	13	2	6	5
충 남	21	2	12	7
전 북	16	1	11	4
전 남	12	0	6	6
경 북	9	3	4	2
경 남	10	4	3	3
제 주	9	0	7	2
계	234	37	126	71

자료 : 문화관광부(2006), 2006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유원시설업에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3개의 업종으로 분류된다. 종합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일반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이며,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2005년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원시설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업 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 (3) 여행업

관광객의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업<sup>20)</sup>은 전국에 9,623개소로서 외국인을 국내에 유치하는 일반여행업은 794개소,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담당하는 국외여행업은 4,985개소, 다양한 국민관광수요를 위한 국내여행업은 3,844개소가 있다. 이 중 충청남도 관광여행업은 총 264개소로 일반여행업 2개소, 국외여행업 102개소, 국내여행업 160개소가 있다.

〈표 III-39〉여행업 등록 현황(2005년)

(단위 : 개)

구 분	소 계	일 반	국 외	국 내
서 울	4,364	613	2,673	1,078
부 산	733	35	391	307
대 구	371	5	183	183
인 천	165	7	78	80
광 주	254	10	123	121
대 전	335	3	168	164
울 산	97	3	44	50
경 기	976	31	428	517
강 원	235	14	97	124
충 북	208	10	85	113
충 남	264	2	102	160
전 북	321	4	148	169
전 남	310	6	116	188
경 북	267	7	114	146
경 남	447	7	189	251
제 주	276	37	46	193
계	9,623	794	4,985	3,844

주 : 여행업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여행업체에 한해서 통계를 집계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계한 관광사업체 통계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한국일반여행업협회(2005년), 문화관광부(2006), 2006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재인용

20) 여행업은 관광산업 발전의 동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여행업의 종류에는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국내여행업의 3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 3) 충남 관광상품과 지역특산물 실태

#### (1) 지역축제

2006년 현재 충남에서는 31개의 향토문화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전통민속축제 4개, 지역문화제 8개, 특산물축제 13개, 이벤트축제 6개 등이 개최되고 있다. 이 중 향토축제 중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2006년에는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문화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성웅이순신축제 등 5개 축제가 선정되어 개최되고 있다.

〈표 III-40〉 충남지역의 문화관광부 지정축제(2006년)

축제명	기간	주요프로그램
아산 성웅이순신 축제	4월 27일 ~ 5월 1일 (5일간)	주제전시관(거북선 탁본뜨기, 이순신 퍼즐맞추기 등), 승마체험, 활쏘기 체험, 이순신 휘호 체험, 감옥 및 형틀 체험, 이순신 서바이벌게임 체험, 전통거리(떡메치기, 거북선 향토염색 체험 등), 민속놀이 마당(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등), 풀잎공예 등
서천 한산모시문 화제	5월 4일 ~ 9일 (6일간)	한산모시길쌈시연, 저산팔읍길쌈놀이, 모시옷패션쇼, 한산모시새벽시장
보령 머드축제	7월 15일 ~ 7월 21일 (7일간)	형머드탕, 머드키드탕, 머드비누만들기, 머드교도소, 머드챌린저, 머드서핑, 머드핸드프린팅, 머드도자기체험, 머드인간마네킹, 머드씨름장, 머드장애물, 머드슈퍼슬라이딩, 머드바르고 카약타기, 전국대전해변머드풋살대회, 갯벌극기체험, 갯벌스키체험, 보령갯벌체험 마라톤대회
금산 인삼축제	9월 27일 ~ 9월 29일	인삼캐기체험, 한·약초썰기, 인삼요리만들어먹기, 한방비누만들기, 천연인삼스킨만들기, 무료피부테스트, 페이스페인팅, 인삼까기, 인삼말리기, 인삼접기, 인삼병만들어가기, 인삼주내리기, 인삼새끼꼬기, 인삼덧발염기, 인삼발짜기, 짚풀공예, 인삼곤충만들기
강경 젓갈 축제	10월 19일 ~ 23일 (5일간)	내외국인 젓갈김치 담그기, 황석어젓 만들기, 젓갈반찬만들기, 젓갈과 지게꾼, 젓갈 담는 아낙네, 젓갈퀴즈와 1000원 경매전, 젓갈 주먹밥, 황산골 선비밥상, 놀이공예체험관, 젓가락왕 선발대회, 웰빙 발효음식 체험관, 조랑말 마차체험 등

〈표 III-41〉 2005년 향토문화축제 개최실태분석(2006년)

(단위: 종)

시군	축 제 명	개최시기	장 소	행사종목
계	31건			1,052
천안시(1)	천안흥타령축제	9.30~10.3 (4일간)	천안삼거리공원 일원	48
공주시(3)	계룡산 산신제	4.21~24(4일)	신원사 일원	23
	백제문화제(대제)	10.7~10(4일)	공산성 일원	41
	계룡산 분청사기축제	4.8~12(5일)	반포면 상신리 일원	10
보령시(1)	보령머드축제	7.16~22(7일)	대천해수욕장	53
아산시(2)	성웅이순신축제	4.26~5.1(6일)	현충사 일원	72
	짚풀문화제	10.21~23(3)	외암민속마을	65
서산시(1)	해미읍성병영체험	4.29~5.1(3일)	서산해미읍성 일원	12
논산시(1)	강경젓갈축제	10.20~24(5일)	강경포구, 젓갈시장	73
	논산딸기축제	4.8~10(3일)	논산천 둔치 일원	47
계룡시(1)	계룡축제	9.23~24(2일)	계룡시청 광장 일원	40
금산군(2)	금산인삼축제	9.2~11(10일)	인삼엑스포광장 일원	54
	금강민속축제	7.30~7.31(2일)	부리면 평촌리	15
연기군(1)	도원문화제	4.15~17(3일)	문화예술회관 일원	16
	조치원복숭아축제	8.12~13(2일)	고려대학교 캠퍼스	29
부여군(3)	서동연꽃축제	7.21~26(6일)	부여 서동공원 일원	47
	굿뜨래 수박축제	6.2~3(2일)	청소년수련관 일원	27
	백제문화제(소제)	10.3~5(3일)	부여군 일원	8
서천군(2)	한산모시문화제	5.1~6(6일)	한산모서관 일원	59
	동백꽃꾸미축제	3.26~4.8(14일)	서면 마량리	17
청양군(2)	칠갑산장승문화축제	4.22~23(2일)	칠갑산 장승공원	25
	청양고추·구기자축제	8.30~31(2일)	지천 백세건강공원	37
홍성군(4)	만해제	10.4~5(2일)	한용운선생 생가지	12
	남당리대하축제	9.10~10.31(52일)	서부면 남당리	14
	광천토굴새우젓 및 조선 김대축제	10.6~10(5일)	광천읍 일원	33
	내포사랑큰축제	10.1~3(3일)	홍성읍 일원	42
예산군(2)	매현문화제	4.28~5.1(4일)	충의사 일원	18
	추사문화제	10.7~9(3일)	추사고택 일원	21
태안군(2)	안면도국제공연예술축제	4.28~5.15(18일)	안면읍 꽃지공원	30
	자염축제	8. 17(1일)	근흥면 남금마을	12
당진군(1)	상록문화제	10.7~9(3일)	당진 일원	45

자료: 충청남도(2006), 도정백서.

## (2)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템플스테이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도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은 전국 41개소로 5만 2,504명(내국인 4만 5,887명, 외국인 6,617명)이 이용하여 2004년 36개 사찰의 3만 6,902명(내국인 3만 3,695명, 외국인 3,207명)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2006년도 충남 템플스테이 이용현황

구 분	연평균 이용객(명)			주요프로그램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까지	
부석사	355	981	586	봄에는 산에 피는 이름 모를 들꽃을 주제로, 여름에는 산사 체험을 중심으로,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등,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마곡사	1,616	2,179	918	기업연수, 가족명상, 부부명상, 실직자 프로그램 등 직장인, 가족, 부부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대상을 지정한 특별한 프로그램 진행
무상사	584	324	-	외국인 스님들의 언어와 생활문화 체험, 한국 불교의 전통수행법
수덕사	1,337	1,147	262	공양, 다도, 덕숭산 산행, 염색체험 등
영평사	-	1,078	591	구절초가 만개한 10월 내내 산사음악회와 예술인 초청공연 및 우리 차 시음회, 각종 예술품 전시회, 시낭송회 등을 개최
갑사	2,019	5,618	305	사찰의 일상을 체험하는 기본프로그램 및 삼림욕시간과 불교무술, 탁본체험, 도예 프로그램 등
지장정사	-	-	1,222	무료급식봉사, 독거노인돕기 등 사찰체험뿐만 아니라 봉사체험프로그램 진행

자료: 1) 충청남도(2006), 충청남도 종교자원의 잠재력과 활용방안연구.

2)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06), 내부자료



정부는 사찰문화 체험을 위한 숙박시설로 템플스테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숙박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004년도 36개 사찰(15억원), 2005년도 41개 사찰(15억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충남 지역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템플스테이 사찰로 7개의 사찰(갑사, 마곡사, 수덕사, 무상사, 부석사, 영평사, 지장정사)이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찰별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운영인력이 부족하고 시설면에서는 숙박시설 및 교육시설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월말 현재 충남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및 이용객 및 주요프로그램 현황은 다음 <표Ⅲ-42>와 같다.

### **(3) 관광코스과 상설 프로그램 운영**

충청남도 관광코스 설정 기본방향으로 관광객들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배후도시, 관광지,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관광코스는 당일 관광코스과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지역간 거리와 시간에 맞춰 각 코스를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I-43〉 충남권 당일 관광코스

일정	지역	코스
당일	천안	독립기념관 - 유관순열사 사적지 - 상록리조트 - 천안삼거리
	아산	광덕산 - 외암리 민속마을 - 맹사성 고택 - 현충사 - 온양온천
	공주	무령왕릉 - 공주국립박물관 - 계룡산 도예촌 -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보령	무창포 - 대천해수욕장 - 석탄박물관 - 성주사지 - 보령화력 발전소
	서산	해미읍성 - 개심사 - 서산마애삼존불 - 보원사지
	논산	관촉사 - 강경 미내다리 - 견훤묘 - 쌍계사 - 계백묘 - 개태사
	계룡	괴목정 - 솟을추 - 암용추 - 천마산
	금산	칠백의총 - 대둔산도립공원 - 적벽강과 대장금촬영지
	연기	봉산 향나무 - 오봉산 - 연화사 - 향토박물관 - 비암사
	부여	부소산성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궁남지 - 서동요 드라마세트장
	서천	한산모시마을 - 신성리 갈대밭 - 춘장대 - 문헌서원 - 희리산 자연휴양림
	당진	삼교호 - 도비도 - 기지시줄다리기 - 솔피성지 - 필경사 (심훈의 상록수)
	예산	추사고택 - 예당저수지 - 수덕사 - 윤봉길의사 사적지 - 덕산온천
	홍성	김좌진 장군생가지 - 한용운 선사 생가지 - 고산사 - 광천토굴새우젓 - 홍주성
	태안	천리포수목원 - 안흥항 - 꽃지해수욕장 - 안면도 자연휴양림
	청양	칠갑산 장승 - 장곡사 - 청양 삼존불입상
	천안-아산	독립기념관 - 유관순열사 사적지 - 온양민속박물관 - 현충사
	아산-당진	외암민속마을 - 맹사성 고택 - 온양민속박물관 - 현충사 - 이충무공의 묘 - 삼교호(함상박물관) - 행담도
	공주-청양-보령-예산	마곡사 - 장곡사 - 무량사 - 수덕사
	예산-서산	추사고택 - 남연군묘 - 수덕사 - 해미읍성 - 개심사 - 서산마애삼존불
	서산-태안	해미읍성 - 간월도 - 서산AB지구 - 안면도자연휴양림 - 꽃지해수욕장
	예산-홍성	추사고택 - 수덕사 - 홍주성 - 한용운선사생가 - 김좌진 장군생가 - 고산사

〈표 III-44〉 충남권 1박2일 관광코스

일정	지역	코스
1박2일	당진-서산 예산-홍성 -아산	삼교호(함상박물관)-솔뫼성지-남연군묘-해미읍성-개심사-이화목 장-수덕사-덕산온천(숙박)-윤봉길의사 생가-김좌진 장군생가-한 용운선사 생가-추사고택-현충사-이충무공의 묘
	천안-아산 -예산	유관순 기념관-독립기념관-외암리 민속마을-온양온천(숙박)-현 충사-세계꽃식물원-매사성고택-추사고택-삼교호
	보령-청양 -아산	대전해수욕장-석탄박물관-성주사지-냉풍욕장-장곡사-칠갑산도 립공원(숙박)-마곡사-도고온천-외암리 민속마을-현충사
	당진-서산 -태안	행남도-서산마애삼존불-보원사지-개심사-해미읍성-간월도-꽃지 해수욕장(숙박)-안면도자연휴양림(수목원)-안흥항-만리포해수욕 장-천리포 수목원
	보령-서천	무량사-성주사지-석탄박물관-춘장대-한산모시장(숙박)-부소산성 -무령왕릉-공산성
	금산-공주 -예산	칠백의총-대둔산-유성(숙박)-동학사-공주국립박물관-송산리고분 - 공산성-마곡사-삼교호
	천안-공주 -서천	독립기념관-유관순열사 사적지-공주공산성-공주박물관(숙박)-계 룡산(동학사·갑사)-부여 정림사지- 부소산성-서천 춘장대
	공주-부여	곰나루-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우금치고개-부 여(숙박)-백마강-부소산성-부여국립박물관-정림사지-궁남지
	홍성-보령	김좌진 생가-한용운 생가-홍주성-오서산(숙박)-보령화력발전소- 보령해수욕장-성주사지-석탄박물관
	천안-연기	천안삼거리-독립기념관-유관순 열사 사적지-상록리조트(숙박)- 봉산 향나무-연화사-연기대첩비-향토박물관-비암사
	부여-논산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국립박물관-궁남지-능산리고분-부여(숙 박)윤증고택-관촉사-견훤묘-계백묘-개태사
	논산-금산	관촉사-쌍계사-대둔산(숙박)-인삼종합전시장-인삼약초시장-태영 박물관-칠백의총 - 대장금 촬영지

〈표 III-45〉 충남권 2박3일 관광코스

일정	지역	코스
2박3일	당진-예산- 홍성-보령-서천	삼교호(함상박물관) - 솔미성지 - 필경사(심훈의 상록수) - 남연군묘 - 해미읍성 - 개심사 - 수덕사 - 덕산온천(숙박) - 윤봉길의사 생가 - 김좌진 장군생가 - 한용운선사 생가 - 보령화력발전소 - 대천해수욕장(숙박) - 석탄박물관 - 성주사지 - 무량사 - 한산모시마을 - 신성리 갈대밭 - 춘장대 - 문헌서원
	천안-아산- 예산-홍성-서산	유관순 기념관 - 독립기념관 - 외암리 민속마을 - 현충사 - 맹사성고택 - 도고온천(숙박) - 추사고택 - 예당저수지 - 최영장군사당과 성삼문선생 유허지 - 홍주성 - 한국고건 축박물관 - 수덕사 - 남연군묘 - 덕산온천(숙박) - 해미읍성 - 개심사 - 서산마애삼존불 - 보원사지
	천안-공주- 부여-보령	독립기념관 - 유관순열사 사적지 - 공주 곶나루 - 공산성 - 공주박물관 - 계룡산(숙박) - 동학사·갑사 - 부여 정림사지 - 부소산성 - 마곡사(숙박) - 춘장대 - 무량사 - 성주사지 - 석탄박물관 - 대천해수욕장
	당진-서산- 태안-예산	행남도 - 서산마애삼존불 - 보원사지 - 개심사 - 해미읍성 - 간월도 - 꽃지해수욕장(숙박) - 안면도자연휴양림(수목원) - 만리포해수욕장 - 천리포 수목원 - 수덕사 - 윤봉길의사 사적지 - 덕산온천(숙박) - 가야산 - 예당저수지 - 추사고택 - 삼교호(함상박물관)
	금산-논산- 공주-부여-서천- 보령	칠백의총 - 대둔산 - 윤증고택 - 관촉사 - 견훤묘 - 계백묘 - 곶나루 - 송산리고분군 - 무령왕릉 - 공주(숙박) - 국립공주박물관 - 우금치고개 - 백마강 - 부소산성 - 부여국립박물관 - 정림사지 - 궁남지 - 춘장대(숙박) - 한산모시장 - 성주사지 - 석탄박물관 - 대천해수욕장

자료: 충청남도(2006), 도정백서.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전국 각 지역의 독특한 전통공연예술을 상설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목적지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가 일주일 내외의 단기간 동안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설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관광객이 그 장소에 가면 동일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화관광축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조하여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지원·육성을 위한 부족 재원 지원, 국내·외 홍보강화, 국내·외 여행사 연계 마케팅 실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외국어 안내물 제작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부여군 부소산성과 궁남지, 정림사지에서 백제대왕 행차재현을 하는데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풍물공연과 기공무, 쌍검무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주시 공산성 금서루 일원에서는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을 하는데 주요프로그램으로 출정식과 수문병근무교대식이 있다.

#### **(4) 농·특산물 및 먹거리**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특산물로는 금산군의 인삼, 서천군의 모시, 보령시의 벼루 등이 있다. 충남의 먹거리로는 보령시의 꽃게 매운탕, 논산시의 위어회와 황복탕, 금산군의 인삼어죽, 청양군의 표고버섯전골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표 III-46〉 충청남도 시군별 농·특산물 지정현황(2005년)

구 분	농 수 축 산 물 류	가 공 식 품 류
천안시	성환배, 입장거봉포도, 광덕호두, 상환개구리참외, 안양골배, 아우내 오이, 한신수밤메론, 넷고을버섯	병천황토방순대, 두레앙와인
공주시	정안밤, 우성오이, 신포곶고추	계룡백일주
보령시	사현포도, 백제골산채, 껌질째먹는 한방사과	까나리액젓, 대천맛김, 청라운행한과
아산시	아산염작배	선장김치, 탕정와인
서산시	서산6쪽마늘, 서산감천배	서산어리굴젓, 새댁김치, 들국화주
논산시	신선딸기, 산과들에딸기, 한방인삼 딸기, 해찬들한방딸기, 녹원축산돈 정육	가야곡왕주, 간장·된장·쌈장, 양촌감식초, 생생포도즙, 고향참·들기름
계룡시	-	계룡산물엿, 영지디골드·대추골드
금산군	백삼·태극삼, 추부갯잎, 땅두릅, 고려홍삼, 진생원포크, 태극삼·홍삼, 홍삼·태극삼	인삼주, 홍삼한과, 홍삼액, 홍삼진과·홍삼진과골드·홍삼절편, 홍삼경옥고차, 홍삼농축액
연기군	복숭아, 느타리버섯	-
부여군	방울토마토, 부여밤, 참실콩나물, 구룡아침딸기, 백마강수박, 아가리 쿠스건조버섯, 양송이버섯, 백마강메론	인동주, 청옥김치·단무지, 아가리 쿠스버섯 캡슐·정제·과립·환제·미용비누
서천군	서천냉각쌀, 어메니티서천쌀	한산소곡주, 서천자하젓, 향토매운맛김, 바다로 21, 겨울바다맑은 김, 雪味조미김
청양군	청양구기자, 칠갑산토종닭	한울김치, 구기자한과, 아이디어 녹용, 둔송구기주, 참게장
홍성군	완숙토마토	광천토굴새우젓
예산군	신암팽이버섯	삽다리짬
태안군	태안꽃게, 태안대하, 갯바람건고추, 태안6쪽마늘	정산포돌김, 태안자염
당진군	당진쌀, 당진가화포도, 황토갯바람 석문사과	-
기타 (농협중앙회)	청풍명월쌀	-

자료: 충청남도(2006), 도정백서.

#### 4) 충남 관광안내와 홍보 실태

관광안내시설로는 천안시 관광안내소를 비롯하여 총 7개소(대전역 포함)의 상설안내소가 있으며, 22명의 안내원이 상주 근무하면서 관광, 교통, 문화, 유적지 안내 등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I-47〉 관광객 안내소 현황(2005년)

명 칭	위 치	안내원	자료제공 내용
계	7개소	22명	
대전역 종합관광안내소	대전역 구내	2	영1, 중1
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	부소산성 주차장내	7	영2, 중2, 일2, 일반1
천안시 관광안내소	천안역 광장	1	영1
공주시 관광안내소	공산성 서문	5	영2, 일1, 중2
보령시 관광안내소	대전역 구내	3	영1, 일1, 중1
아산시 관광안내소	온양온천역 구내	2	영1, 일1
천안아산역 관광안내소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구내	2	영1, 중1

자료: 충청남도(2006), 도정백서.

### 3. 충남 관광수요와 개발실태 분석의 도출 과제

#### 1) 관광객과 관광자원의 편중성 극복

##### (1)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객의 균형적 배분 유도

충청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권역별로 구분해 보면,<sup>21)</sup> 해양관광권이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내포문화관광권 18.7%, 역사온천관광권 11.7%, 백제금강문화관광권 7.9%, 대도시근교권 2.9%로서 서해안 중심의 해양

21) 권역별 구분은 「충청남도 3차종합계획변경계획」과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적용함

관광권에 57.4%가 편중되어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령, 서산, 태안, 홍성 등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해양관광권과 내포문화관광권이 서해안고속도로의 영향으로 관광객 비율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패턴을 충남지역으로 고르게 확산하는 관광수급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III-48〉 충청남도 관광권역별 관광객 방문객 분포

(단위: 명, %)

구 분	지 역	관광객수(천명)	비 율(%)
해양관광권	태안, 보령, 서천	48,979	57.4
백제금강문화관광권	공주, 부여, 논산	7,953	9.3
내포문화관광권	서산, 홍성, 당진, 예산	15,988	18.7
역사온천관광권	천안, 아산	9,946	11.7
대도시근교권	연기, 금산, 계룡	2,452	2.9
계	-	85,318	100.0

자료: 충청남도(2006), 충남관광이동통계자료.

## (2) 관광자원의 분포 특성에 대응하는 효율적 관리와 운영 필요

충청남도의 관광자원군 분석결과 자연형 관광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보령시, 태안군), 인문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공주시, 부여군), 레저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아산시, 부여군, 당진군), 시설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천안시, 아산시), 기타 차별화된 자원군을 발견하기 어려운 지역(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과 같은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표 III-49〉 시군별 관광자원군 분포 특성 분석

지역	자연자원			인문자원			레저자원			시설자원			전체자원		
	보유	추정	잔차	보유	추정	잔차	보유	추정	잔차	보유	추정	잔차	보유	추정	잔차
천안시	5	6.62	-0.25	81	79.41	0.04	8	9.05	-0.37	14	12.72	0.45	108	98.26	0.23
공주시	5	7.64	-0.41	196	151.39	1.03	6	3.60	0.84	9	7.35	0.58	216	166.15	1.20
보령시	31	33.27	-0.35	67	156.18	-2.05	5	7.11	-0.73	3	8.33	-1.87	106	163.74	-1.39
아산시	3	12.37	-1.46	75	70.20	0.11	14	14.61	-0.21	20	19.00	0.35	112	143.17	-0.75
서산시	11	3.97	1.10	72	72.77	-0.02	2	5.12	-1.08	1	5.56	-1.60	86	113.23	-0.66
논산시	6	1.64	0.68	137	60.91	1.75	1	2.26	-0.44	5	5.17	-0.06	149	114.29	0.84
금산군	14	2.69	1.76	57	76.74	-0.45	2	1.48	0.18	5	3.88	0.39	78	107.08	-0.70
연기군	3	2.53	0.07	42	71.42	-0.68	1	1.83	-0.29	3	4.22	-0.43	49	43.20	0.14
부여군	1	4.41	-0.53	201	141.65	1.36	10	4.82	1.80	4	5.86	-0.65	216	137.20	1.90
서천군	2	7.07	-0.79	52	66.12	-0.32	4	4.95	-0.33	6	3.70	0.81	64	88.17	-0.58
청양군	7	1.89	0.80	51	66.13	-0.35	3	2.91	0.03	5	3.28	0.60	66	66.97	-0.02
홍성군	1	3.20	-0.99	72	69.01	0.07	1	3.43	-0.84	6	4.30	0.60	80	121.29	-1.00
예산군	6	12.73	-1.05	118	92.62	0.58	2	4.78	-0.97	10	5.42	1.61	136	89.88	1.11
태안군	43	33.08	1.55	43	64.53	-0.49	9	6.44	0.89	5	5.09	-0.03	100	96.34	0.09
당진군	3	7.88	-0.76	51	75.94	-0.57	11	6.62	1.52	3	5.13	-0.75	68	85.00	-0.41

자료 : 임명재(2007), “확장형모형을 활용한 관광목적지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관광학회 4권 2호

그러므로, 충남의 시군별 관광자원 분포의 차별화된 특성을 발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 경우 관광자원 환경과 사회 및 경제여건을 고려한 관광개발과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별화된 특성이 발견되는 지역의 경우 기존의 관광매력성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sup>22)</sup>

22) 임명재(2007), “확장형모형을 활용한 관광목적지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관광학회 4권 2호에서 요약정리함

## 2) 계절적 집중의 분산과 4계절 이용 확대 필요

### (1) 하절기 중심의 관광객 집중현상을 4계절로 이용패턴 분산

충청남도의 관광객들이 계절적으로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의 관광객 이용패턴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충청남도를 방문한 관광객수를 봄(3·4·5월), 여름(6·7·8월), 가을(9·10·11월), 겨울(12·1·2월) 등 4계절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표 III-50〉 충청남도 계절별 관광객 이용특성

구 분	기 간	관광객수(명)	소 계(명)	비 율(%)
봄	2005년 3월	3,902,511	13,917,858	16.3
	2005년 4월	4,843,142		
	2005년 5월	5,172,205		
여름	2005년 6월	4,894,498	44,489,051	52.1
	2005년 7월	15,042,456		
	2005년 8월	24,552,097		
가을	2005년 9월	7,256,740	16,947,941	19.9
	2005년 10월	5,852,704		
	2005년 11월	3,838,497		
겨울	2005년 12월	3,587,565	9,963,659	11.7
	2005년 1월	3,197,226		
	2005년 2월	3,178,868		
계		85,318,509	85,318,509	100.0

자료: 충청남도(2006), 충남관광이동통계자료.

충청남도의 계절별 이용성향에서는 봄 16.3%, 여름 52.1%, 가을 19.9%, 겨울 11.7%로 관광객수의 이용비율은 겨울을 제외하고, 행락철인 봄과 가을보다는 휴가철인 여름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절적인 편중성을 극복하고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목적지로서 관광자원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발굴·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해수욕장 집중에서 다양한 역사·자연관광자원에 분산 유치 필요

충청남도는 관광객들이 하절기 중심의 해수욕장 이용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 85,318천명의 관광객중 해수욕장 이용객이 27,058천명으로 31.7%가 해수욕장에 집중되고 있다.

해수욕장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에 총 36개소가 분포하며, 태안군과 보령시가 가장 많이 방문하고, 홍성군은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중되게 방문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충청남도는 3계절 이용형태의 관광목적지이며, 계절별로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공간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코스과 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수와 여름철 이용객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여름철 이외에 다른 계절에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자체적인 수용대책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I-51〉 해수욕장 분포 현황

시군별	개소수 (개소)	2005년 이용객수(명)	비 고
계	36	27,058,585	-
보령시	5	11,999,945	대천, 무창포, 원산도, 호도, 용두
서천군	1	2,917,000	춘장대
태안군	29	12,021,940	만리포, 몽산포, 연포, 삼봉, 꽃지, 백사장, 학암포, 구레포, 청포대, 신두리 등 29개소
당진군	1	119,700	난지도

자료: 충청남도(2006), 도정백서.

## 3) 관광자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추진 필요

### (1) 관광수요와 공급분석에 의한 공간개발의 효율적 추진

현재 많은 관광공간과 시설들이 지정되어 왔으나 실제 조성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에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장소로 민박과 펜션, 모텔과 여관이 이용되고 있어 차별화되면서 고급화된 숙박시설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용교통수단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자가차량을 이용하나 일부의 관광객이 전세와 관광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교통편익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대안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관광지 수급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광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동시수용력에 의한 부족분이 547천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과 공간의 효율적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III-52〉 충청남도 관광수급 분석

(단위 : 천명)

구 분	2005년	2010년	2020년
공급능력	647	763	1,037
최대수요	997	1,100	1,585
수급비교	△350	△337	△547

자료 : 충청남도(2006),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 (2) 관광자원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공급방안의 마련

다음 <표III-53>에서의 관광자원 개발규모의 비교에서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앞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레저스포츠 시설과 공간이나 가족단위의 체험형의 관광자원이 충청남도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공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III-53〉 관광개발 자원유형과 규모 비교

(단위 : km<sup>2</sup>)

구 분		전 국				충 남			
		1996		2005		1996		2005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자연 공원	국립공원	20	6,473.1	20	6,579.85	2	390.138	2	384.312
	도립공원	20	730.4	23	783.82	3	78.443	3	92.07
	군립공원	27	239.4	33	441.43	1	1.95	1	1.95
	소 계	67	7,442.9	76	7,805.1	6	470.531	6	478.33
관 광 지		153	180.2	225	153.802	20	11.942	25	13.499
관 광 단 지		8	40.4	15	104.46	-	-	-	-
휴양업(종합/전문)		28	25.9	34	34.61	1	1.762	3	2.11
체육 시설	골 프 장	96	112.3	191	193.93	3	3.495	5	5.319
	스 키 장	11	11.3	14	16.42	-	-	-	-
	요 트 장	1	0.023	1	0.023	-	-	-	-
	승 마 장	4	0.037	24	0.292	-	-	3	-
	소 계	112	123.66	230	210.665	3	3.495	8	5.319 <sup>5)</sup>
도 시 공 원		9,326	885.885	10,459	1,021.102 <sup>1)</sup>	610	50.877	638	53.919 <sup>2)</sup>
청소년수련시설		432	13.0	687 <sup>3)</sup>	-	37	1.067	40	-
유 원 지		164	125.0	234	-	7	2.212	21	-
자 연 휴 양 림		61	1,115.4	98	1,188.96	7	19.610	12	27.959
관 광 농 원		294	7.3	392	-	41	0.902	37	-
온 천 지 구		86	134.9	135	187.126	10	9.524	12	10.002 <sup>4)</sup>
합 계		10,731	10,094.545	12,585	10,705.825	742	571.922	802	591.138

주 : 1) 행자부, 한국도시연감, 2005      2)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3)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5

4) 2004년 자료, <http://tour.go.kr/>    5) 승마장 면적 계산안됨

자료 : 1) 문화관광부(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구성.

2) 통계청(2005), 한국통계연감

3) 충청남도(2005), 충남통계연보.

4) <http://tour.go.kr/>

#### 4) 관광객의 행태변화에 적합한 능동적 관광정책의 추진 요구

##### (1) 관광객의 이용수요를 고려한 관광지원시설의 활성화 필요

주5일 근무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에 따라 충남 관광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지역 관광객의 증감률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근교권이 14.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앞의 관광수요와 행태분석 및 관광자원의 개발실태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충남은 전국에서 숙박여행지로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광호텔업 등록은 전국 20,694실 중 886실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로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며, 관광숙박시설도 18개 업체중 10개 업체가 아산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아래의 분석과 같이 아산지역이 포함된 역사온천지역의 관광객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를 차지고 있어 거의 정체된 상태로서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III-54〉 충청남도 관광권역별 관광객 증감율 분석

(단위: 명, %)

구 분	1996년 관광객수(명)	2005년 관광객수(천명)	연평균증가율(%)
해양관광권	20,755,450	48,978,931	10.0
백제금강문화관광권	4,494,893	7,953,309	6.5
내포문화관광권	4,771,279	15,987,829	14.4
역사온천관광권	8,759,553	9,946,247	1.4
대도시근교권	700,488	2,452,193	14.9
계	39,481,663	85,318,509	8.9

##### (2) 자원특성과 이용수요에 적합한 관광공급 정책의 추진

앞의 <표III-54>에서는 관광객이 지역별로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해안권의 관광자원 유형별 수급분석에서도 자연휴양형, 레저스포츠형, 위락형, 해양형 관광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아래

의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 관광 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의 서해안에서도 해양관광활동의 수요를 고려한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III-55〉 해양관광 참여인구 및 전망

구 분	1997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10년
해양 관광 참여인구	74,143	72,129	84,404	92,060	116,431
해 수 욕	56,579	55,042	63,643	68,741	83,080
바다낚시	5,200	5,059	5,849	65,78	8,658
해양스포츠	1,034	1,006	1,574	2,394	6,368
해양연관형	11,330	11,022	13,338	14,347	18,325

자료: 해양수산부(200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 (3)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의한 관광산업 피해 대응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는 일본 나호카호(1997년)의 1.7배, 한국 여수 씨프린스호(1995년)의 2.5배 규모로, 충남 피해 6개 시군지역은 충남지역 방문 관광객의 2/3 및 관광지출액의 73%를 점유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6〉 2000-2006년 충남 서해안 관광객수 변화추이 및 증감율

(단위 : 명, %)

년도	충남(전체)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2000	56,796,029	15,534,452	1,582,859	3,255,247	1,115,944	9,791,603	2,791,959
2001	55,284,467	12,898,383	1,586,427	2,535,613	779,278	11,150,097	3,354,602
2002	63,221,151	14,929,255	1,877,131	2,197,492	1,356,081	14,681,979	3,273,121
2003	65,861,111	15,093,676	1,922,637	3,299,755	1,577,359	14,923,253	3,673,094
2004	67,520,223	14,871,278	1,963,347	3,714,956	1,837,334	15,997,326	3,397,575
2005	85,318,509	19,156,053	2,421,684	10,133,478	2,323,354	19,689,400	4,450,435
2006	85,700,667	19,650,926	3,271,110	7,498,768	2,356,625	20,627,493	4,613,716
평균증감율 (‘00-’06)	7.5	5.0	13.6	29.0	17.4	13.7	9.5

자 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1996-2004년) 및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해외의 사례로 초기 유류유출량이 유사한 유럽 프레스티지호(2002년) 사건 발생후 1차년도 영향은, Prestige호로 인한 익년도 관광파급효과에서 프랑스 남서해안은 사고 익년도에 프랑스해안지역 관광객 예약율 50% 감소 및 관광산업의 60%가 전업하였고, 스페인 Galicia지방은 사고 익년도에 내국인 숙박여행객 15% 및 외국인 숙박여행객 20%가 감소하였다.

충남의 경우 기 관광수요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조사를 통해 6개 시군의 관광객수요를 추정한 결과, 주요 피해지역인 태안군 관광객수는 2008년에 한 해 동안 40% 감소하고, 서해안 6개 시군 전체로는 관광객수가 21.8%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전화위복 기회의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최영문, 2007).

## 5) 사회구조와 현대적 여행패턴의 변화에 맞는 관광개발 요구

### (1) 관광행태의 변화에 적합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의 제공 필요

충남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대부분 주말이나 휴가 또는 방학에 이용하며, 1박2일의 숙박이 주류를 이루면서 자연명승 관람(1위), 휴양과 휴식(2위), 수변과 해변활동(3위) 등이 주요 관광활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관광자원과 시설은 총량적인 공급확대도 중요하지만 행태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자원과 시설의 공급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도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농어촌체험관광과 자연휴양림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 개발로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하면서 이들 수요자 변화에 충족시키는 관광활동기회를 제공해야한다.

특히, 개성적인 관광활동의 추구하고 가족지향형으로의 관광활동 변화로 독창성 있는 저가형·가족형·체험형 관광개발, 특히 레포츠형과 같은 동적 관광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목적지수가 점차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



고 있는 것에서도 관광활동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과거 1999년에는 충남 관광시 1일당 3.7지점을 방문하던 것이 2005년에는 2.4지점을 방문하였고, 2020년에는 1.6지점으로서 거의 한 목적지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관광활동의 수요와 방문목적지수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자원과 시설의 개발은 물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관광코스의 발굴·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관광지별로는 관광객들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관광편의시설도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표 III-57〉 충청남도 관광시 1일당 목적지수 변화

(단위 : 지점)

구 분	1999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충남 관광시 1일당 목적지수	3.7	2.3	2.3	2.4	1.7	1.7	1.6

## (2)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및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른 관광활동의 확대는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관광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득계층에 따른 관광활동의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가중이 우려된다.<sup>23)</sup>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주5일 근무제와 노령화인구의 증가에 따른 충청남도에서도 기존의 다양한 관광객들을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공간과 시설, 관광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23) 윤양수·김의식(2002), 레저행태 변화와 여가공간 조성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6) 관광수급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필요

국제적 관광환경의 변화와 국내의 관광환경변화, 충청남도의 고속도로와 철도, 고속간선망의 구축 등의 지역변화여건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소비자 개인특성과 관광패턴의 변화는 복합적으로 관광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전국민여행실태조사와 충남 관광통계의 수요변화를 통해서 충남의 관광수요 특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속에서 관광객의 방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앞 표의 관광권역별 관광객 증가의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주5일근무제의 영향을 받는 해양관광권과 내포문화권, 대도시근교권 등은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반면, 역사온천관광권은 고속철도의 개통이 이루어졌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자가용 중심의 가족형 체험중심의 관광성향이 현대의 관광성향이기에 때문에 관광객의 증가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도 못하고, 관광객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역의 관광환경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개선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관광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제4장 충남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

### 1. 충남 관광개발의 이념과 목표

오늘날의 관광개발은 막연한 기대나 한정된 의지로서만 접근하는 분야가 아니라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 과제와 목표 등을 바탕으로 기본방침이 세워지고 개발내용과 방법, 추진주체와 절차 등이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sup>24)</sup>

그 중에서도 특히 자원조건이나 시장조건, 개발시기, 경영조건, 재정조건 등은 실현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성급한 모방이나 비전문가에 의한 개념 없는 시도는 양적인 팽창은 있을지언정 질적인 내실은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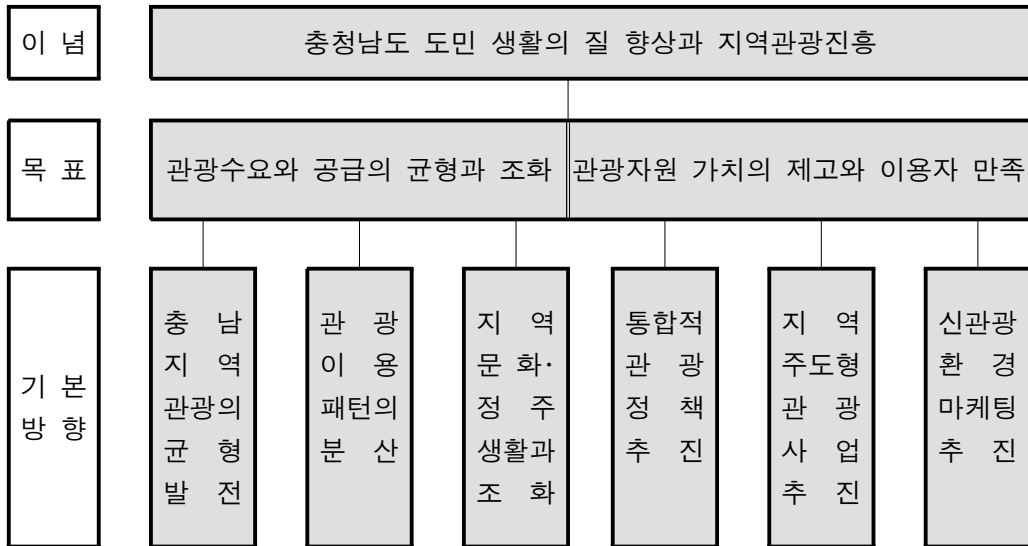
이러한 차원에서 충청남도 관광개발의 이념을 제시해 본다면, 도민 생활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두고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지역 자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 지역관광의 균형발전, 관광 이용패턴의 분산, 지역문화·정주생활과의 조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 새로운 관광환경에 맞는 충남 관광마케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24) 안종윤(1990), “올바른 한국관광개발의 기본체계모형의 시론”, 『관광학연구』, 제14호에서 요약.

(그림 IV-1) 충남 관광개발의 이념과 목표



## 2. 충남 관광개발 추진의 기본방향

### 1) 충남 지역관광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충남은 현재 보령과 태안, 서천 중심의 해양관광권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천안과 아산, 공주와 부여 등은 관광도시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 도시와 지역에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과 내륙 도시기반형 관광공급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충남은 5대 관광권으로 해양관광권, 백제금강문화관광권, 내포문화관광권, 역사온천관광권, 대도시근교권 등을 정하고, 권역마다 거점형 관광도시를 집중 육성하기 때문에 관광권역 뿐만 아니라 권역내 개별 관광지와 연계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2) 계절적 편중보다는 분산형 관광 이용패턴의 정책 추진

충청남도의 관광객들은 계절적으로 하절기 중심의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여름철의 관광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나머지 봄과 가을, 겨울철에도 꾸준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4계절로 이용패턴을 조화 있게 분산하는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충남의 관광시 1일당 목적지수 변화에 있어서도 1999년 3.7곳에서 2020년에는 1.6곳으로 방문목적지가 단일장소로 방문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체류관광거점과 주변의 다양한 연계 관광지를 선택적으로 개발하고, 단일지역의 장기체류는 계절적인 분산 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계절성을 고려한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 3) 지역문화와 새로운 관광패턴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자원 개발

충남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은 기존 지역문화 그 자체가 관광으로 연결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전통을 간직한 지역문화와 관광자원개발이 분리되지 않도록 지역문화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충남의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지역 정주형 관광개발로써 지역문화와 결합되는 관광기반시설과 관광상품, 관광인력자원의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1차, 2차산업에 관광이라는 3차산업적 요소를 부합하여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관광개발과 지역산업의 융합이 더 없이 중요하다.<sup>25)</sup>

충남의 관광산업은 지역의 농특산물, 공예품 등 지역 전통산업 육성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여가생활을 연계 개발하고, 기존 산업간 융복합, 감성·문화 결합, 신사업모델 창조<sup>26)</sup>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토록 추진해야 한다.

---

25) 김성진(2006), 지속가능한 정주형 관광개발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요약

26) 강신겸(2006),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2006 관광아카데미 관광개발과정 교육교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재정리.

#### 4) 인접 지역과 관련 관광사업간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충남 관광자원은 유형별 특성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이 행정구역상에 한 지역에만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시도나 시·군간에 중복되어 있어 상호간에 협력적으로 관광자원이나 상품, 관광코스의 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간에 관광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도 관광자원과 상품 등의 개발은 관광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지방정부의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통합적 관광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5) 지역주도형 관광정책과 추진방식의 채택

충남 관광자원과 상품의 개발을 위한 사업과 관광정책의 추진은 기존에 공공부문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민간, 지역단체 등에서 관광지 및 축제, 관광시설 등의 사업추진에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광자원개발과 사업추진에 다각적인 추진방식을 채택한다.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과 농촌체험마을 조성, 지역축제의 개최, 여행사 관광상품의 개발 등은 민간기업과 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광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관광개발 수단을 다각화와 복합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역 관광자원개발과 축제의 개최 등은 최근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이 증대되어 사업추진에 있어 의사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 거버넌스 체계에 의한 관광정책 추진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 6) 관광충남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집중적 관광마케팅 전개

최근의 관광패턴은 가족여행, SIT관광, 복지관광, 실버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므로 충남의 관광상품의 제공에 있어서도 관광객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

관광안내와 홍보마케팅에 있어서도 관광객의 표적시장에 따른 상품에 따라서 지역 관광정보와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참여형·협력형 국내관광의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관광홍보와 정보의 제공, 관광상품의 예약과 판매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보매체의 다각적인 이용수단의 변화와 UCC에 의한 홍보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에 의한 새로운 개념의 관광홍보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관광홍보 방식의 준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세계화와 메가이벤트 개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등은 한류와 연계하면서 다양한 방송매체에서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연계를 통한 관광홍보도 추진해야 한다.

## 7)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대응 환경관광지대 육성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태안 및 주변의 충남 서해안 지역 관광산업의 피해를 극복하고, 이를 전회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피해지역과 인접지역을 환경관광지역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환경관광지대의 조성 과 환경관광 장소마케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태안군 사고해역의 해안과 주변을 ‘환경관광지대’로 조성하고, 이들 지대에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환경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환경명소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름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소재로한 환경전시관과 교육 및 체험관광지 조성은 물론, 이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환경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환경관광 및 자원봉사활동, 서해안 해산물 판매와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메가이벤트와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촉진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관광마케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3. 충남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

#### 1) 충남 관광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접근 개념

일반적으로 관광을 형성하는 구조로서는 주체(관광객), 객체(관광자원), 매체(편의시설)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관광시장(수요)과 관광자원(공급)을 연결하는 교통, 정보, 서비스 등과 같은 일련의 시스템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관광객은 ‘경험의 질 보장’이라는 일종의 변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며 관광자원(매력물)을 공급하는 지역주민이나 기업체 등은 경제적인 편익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희망하게 된다. 여기에서 바로 관광개발이 등장하게 된다.

관광개발이란 관광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거나 높임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경험을 보장하여 그 효과에 힘입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거나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성, 시장성,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상지에 인력과 자본, 기술 등 유·무형의 투자를 하여 발전을 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결국 오늘날의 관광개발 분야도 단편적인 형태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영역과 접근체계를 가져야 된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먼저 관광자원개발은 관광객이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활용방안을 시작으로 잠재력 높은 매력개발, 또는 새로운 신규자원의 발굴과 창출노력이 포함된다. 동시에 기존이든 신규이든 간에 자원으로서의 가치유지 노력과 이용자를 위한 경험의 질 보장, 그리고 수급간의 균형유지를 위한 제반적인 서비스 관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관광시장개발은 관광 상품화(merchandising)를 중심으로 관광루트와 코스를 개발하여 기존의 관광자원들에 대한 상품가치를 향상시킨다든지 고유성과 표준성을 조절하여 마케팅적 사고에 입각한 관광객 욕구만족을 위한 노력, 기타 일시적 수요환기나 신 수요창출을 위한 여러 형태의 이벤트를 만들어 내는 것들을 포함한다.

끝으로 관광제도개발은 현실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발주체에 대한 내·외부적

---

27) 장인식(2004), “관광개발의 학문적 성격과 범위”, 『여가관광연구』, 제1권 제2호 재정리



인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으로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과 방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관광인프라와 같은 기반부문과 관광활동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숙박·위락부문, 기타 관광지역에서의 친절과 같은 서비스부문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IV-2) 충남 관광개발 전략의 접근개념

관광개발의 세부영역				
관광자원		관광시장		관광제도
개발과 관리		수요창출과 환기		관광진흥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활용/복원/창출</li> <li>○ 인적자원개발</li> <li>○ 관리: 자원시설/서비스/이용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상품화: 루트, 코스개발</li> <li>○ 명소마케팅 계획</li> <li>○ 이벤트, 축제 개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행정: 급부, 질서</li> <li>○ 관광정책: 기획, 조정, 통제</li> <li>○ 기본구조: 기반, 기본, 표층</li> </ul>
투자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료 : 장인식(2006), '광역자치단체 관광개발의 과제와 방향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국제관광연구』 제4권 제3호, 국제관광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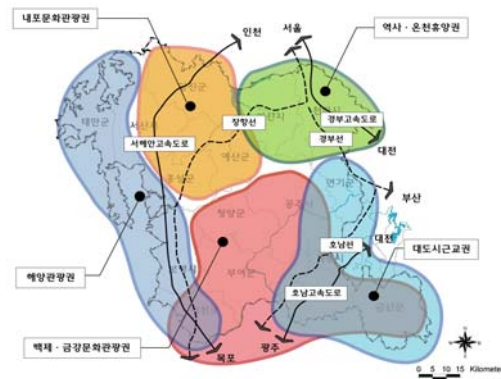
## 2)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 (1) 권역별 거점 관광도시 육성과 연계 관광코스 개발

충남의 지역특성별 관광권역 설정과 대표적 특화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한다. 충남의 5대 관광권인 해양관광권, 내포문화관광권, 백제·금강문화관광권, 역사·온천휴양권, 대도시근교권 등을 관광자원 특성과 관광객 행태에 맞도록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명소를 특화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채되어 있는 지정관광지 조성의 활성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명소관광지를 육성한다. 그리고, 테마형 역사문화자원과 종교관광자원을 대상으로 관광편익시설의 조성과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제공한다.

(그림 IV-3) 충남 관광권 구분도



자료 : 충청남도(2006),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표 IV-1〉 관광권역 설정 및 관광특화 주제

구 분	범 위	거 점	부거점	특화주제
백제·금강 문화 관광권	공주, 논산, 부여, 청양, 금산, 서천, 계룡	공주 부여	논산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의 생태축 을 연계한 문화·역사·생태관광
내포문화 관광권	서산, 홍성, 당진, 예산	예산·홍성 (신도청)	서산	내포역사문화권의 인물, 종교, 민속 자원과 연안 관광중심의 역사문화· 해양관광
해양 관광권	보령, 태안, 서천	보령 태안	서천	안면·보령의 해양관광거점기능을 중 심으로 하는 해양, 연안, 생태, 휴양 등의 해양 휴양관광
역사·온천 휴양권	천안, 아산	천안	아산	충절의 역사문화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문화·휴양관광
대도시 근교권	공주, 논산, 연기, 금산, 계룡	연기 (행복도시)	계룡	대도시근교형 관광위락지역으로 행 복도시, 산악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휴양·도시·문화관광

주 : 관광권역은 입지 및 자원특성에 따라 중복 설정

자료 : 충청남도(2007),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더불어 충남 여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원 조성 및 학습·교육·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또한, 농산어촌 어메니티자원의 관광자원화와 시골 재래시장을 주말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충남의 관광권역별 관광거점과 대도시배후 테마관광지개발, 관광거점 연계

형 관광명소의 발굴·육성,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한 관광자원개발 및 이벤트 개최 등의 각 추진시책별 사업유형에 따라 세부시책과 개발사업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시책 및 개발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2〉 충청남도 관광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관광권역별 관광거점과 대도시 배후 테마관광지 개발	대도시 배후 관광지와 국제관광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제호 종합개발(부여 반산, 90만평)</li> <li>· 안면도국제관광지(꽃지·지포지구, 185만평)</li> <li>·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건설(442만평)</li> </ul>
	온천테마 보양·체험관광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산만권 해양휴양지구(아산, 330천㎡)</li> <li>· 온천·옹기전시체험관 건립(아산 도고, 5,253평)</li> <li>· 외암리민속마을 보존 및 관광기반 확충(저자거리, 민속발물관)</li> </ul>
관광거점 연계형 관광명소의 발굴·육성	명소관광지 및 역사테마관광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지정관광지 정비 및 조성(25개소)</li> <li>· 한국최초 성경전래지 성역화 사업(서천 마량)</li> <li>· 봉선리유적 공원화 사업(서천 봉선, 29천평)</li> </ul>
	생태관광자원 및 농어촌관광활성화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정호생태관광지구(논산 탐정, 16천평)</li> <li>·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예산 예당, 33천평)</li> <li>·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1식)</li> </ul>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한 관광자원 개발 및 이벤트 개최	레포츠형 위락과 웰빙체험관광 및 문화컨텐츠 관광상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리너시설 조성(보령, 서천, 홍성, 당진)</li> <li>· 태안그린웰빙파크 조성(태안 원북, 210천평)</li> <li>· 의좋은형제 체험관광촌(예산 대흥, 20천평)</li> </ul>
	메가이벤트의 정기 개최와 시군 협력 관광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최(1식: 계룡)</li> <li>· 세계역사엑스포(Hispo) 개최(1식: 부여)</li> <li>· 서해안Sea Food페어(보령, 서산, 태안, 홍성, 당진, 서천)</li> </ul>

자료 : 충청남도(2006),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 규정의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의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 관광개발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표Ⅳ-3〉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제시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역	형태	사업	사업비
해양관광권	태안, 보령, 서천	지정관광지	안면도	1,047,428
			대천해수욕장	1,456,221
			무창포해수욕장	142,493
			석대도	11,000
			죽도	39,135
			금강하구둑	36,600
			신성리갈대밭	3,100
			춘장대해수욕장	62,080
		예정관광지	만리포해수욕장	64,400
			원산도	95,000
		문화관광자원	성경전래지 테마공원	9,500
			독살복원 체험학습장	4,000
		생태·녹색관광자원	비인만갯벌체험관광지	4,192
			송석리어촌체험마을	8,000
			유부도생태관광지	15,000
		계	15개 사업	2,998,149
백제금강문화관광권	공주, 부여, 논산, 청양	지정관광지	곰나루	3,446
			마곡사	32,125
			마곡온천	215,566
			공주문화	295,944
			구드래	1,682
		신규관광지	갑사온천	86,234
			서동요역사	14,220
			청양	17,900
		문화관광자원	계백장군 테마공원	2,800
		생태·녹색관광자원	탑정호 생태관광지	2,900
			지천지구생태학습장	3,283
		계	11개 사업	676,100

구분	지역	형태	사업	사업비
내포문화 관광권	서산, 홍성, 당진, 예산	지정 관광지	간월도	77,710
			남당지구	41,798
			궁리어사지구	3,470
			삼교호	39,100
			난지도	62,100
			왜목마을	48,300
			예당저수지	8,848
			덕산온천	304,686
		신규관광지	창리	21,010
			도비도농어촌휴양지	55,000
		문화관광자원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6,050
		생태·녹색관광 자원	예당호중앙생태체험장	6,050
		계	12개 사업	674,122
역사온천 관광권	천안, 아산	지정 관광지	태조산	1,575
			용연저수지	72,330
			각원사	104,300
			천안온천	585,300
			신정호	8,138
			아산온천	396,363
		신규관광지	조류사파리	6,710
		문화관광자원	골드힐카운티	173,000
			강당골	14,604
		생태·녹색관광 자원	동산식물원	12,000
		계	10개 사업	1,374,320
대도시근 교권	연기, 금산, 계룡	문화관광자원	개삼터	18,000
			운주산성	30,000
		생태·녹색관광 자원	금강하류야생생태체험장	1,160
			고북저수지생태학습장	4,500
		계	4개 사업	53,660
계	-	-	52개 사업	5,776,351

자료 : 충청남도(2007),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재정리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제시된 사업을 관광권역별로 보면 해양관광권 사업 15개, 백제·금강문화관광권사업 11개, 내포문화관광권사업 12개, 역사온천관광권 10개, 대도시근교권 4개 사업 등 총 52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사업형태별 사업으로 충청남도의 기존의 법정 관광(단)지, 관광(단)지, 예정관광지, 문화관광자원, 생태·녹색관광자원으로 나뉘며, 각 사업별 현황은 앞의 <표Ⅳ-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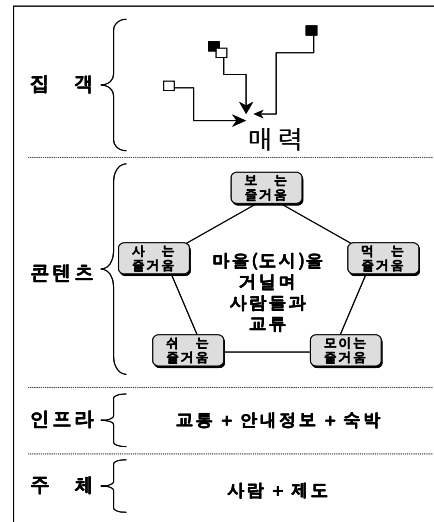
권역별 사업비를 보면 해양관광권이 2,998,149백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개수도 가장 많은 15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 (2) 관광기능을 극대화 하는 거점관광도시와 개별관광지 개발

### ① 충남의 관광거점 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

관광도 시스템이다. 따라서 관광거점도시는 강한 집객력이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고, 사고, 먹고, 모이고, 쉬고, 관광도시를 거닐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즐거움이 있는 콘텐츠도 구비해야 한다.

충남 역시 관광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한 교통, 안내정보, 숙박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거점 기능을 하는 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충남관광의 허브관광도시로 개발한다.



[관광시스템]

(그림 IV-4) 관광거점도시 개발구상도



자료 : 충청남도(2006), 상계서

#### 일본의 관광거점도시의 전략적 육성 사례 :

홋카이도의 작은 항구도시, 오타루(小樽)를 보자. 인구는 15만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1,0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방문한다. 오타루의 집객력은 오타루 운하와 러브레터로 상징되는 로망스에서 나온다. 그리고 오타루를 방문하면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 지금은 박물관, 유리공예 상가, 호프집, 레스토랑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창고 건축물과 운하가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경관을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다. 창고건축물의 호프집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 또는 골목의 시장에서 커다란 킹크랩을 사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르골이나 유리공예품을 사는 즐거움은 여행의 추억을 오래 간직시킨다. 도시가 눈으로 덮인 2월에 개최되는 눈빛 길 축제(小樽雪あかりの路) 등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 벌어지는 이벤트도 즐겁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타루의 가장 큰 즐거움은 도시를 천천히 거닐며 맛보는 독특한 도시의 분위기와 또 열심히 살아가는 도시민들을 만나는 즐거움이다.

오타루역 앞의 관광안내소에서는 오타루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정보까지 쉽게 구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외국의 방문객을 위한 안내정보도 구비되어 있다. 관광안내소 바로 앞에서 오타루산책버스를 타면 도시의 주요 지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도시의 곳곳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정갈한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호텔에서 만나는 종사원이나 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은 더 이상 친절할 수 없을 정도이다. 도시 발전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결성된 오타루매니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역사적 건축물 및 경관지구 보존조례를 제정해 창고 등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경관지구를 지정해 두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것이 “재산권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를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한다.

충남의 자원과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관광거점도시를 개발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다. 새로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신도청도시를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는 신관광도시로 개발한다.

그리고 아산은 휴양과 웰빙 관광객을 위하여 온천이 집중한 도시에 온천·보양관광도시를 개발한다. 내륙으로는 백제문화권 중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계하는 배후지역에 역사문화관광도시를 개발한다.

서해안은 환황해권 관광거점 기능을 수용하는 서해안관광벨트 중심의 해양관광휴양거점 전진기지를 조성한다.

충남관광의 지역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관광권 이외에 다른 관광권에도 특성화된 거점관광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지역편중을 완화시켜 나가려는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권역의 특성화 개발과 함께 권역별 관광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어트랙션 기능의 강화를 위한 관광거점 랜드마크시설의 개발이나 거점도시의 전략적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관광거점 지역간 연계도로망의 특성화개발을 통해 테마형의 관광도로를 조성함으로써 관광접근성의 향상과 매력자원요소의 지역관광명소화 개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② 다양한 소재의 명소관광자원 개발과 상호 연계 네트워크 구축

충남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시와 마을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위도와 기후대가 비슷한 지역의 세계적 관광명소는 대부분 도시 또는 마을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충남의 기존 도시와 마을을 중심으로 소도읍과 관광마을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육성하고, 이를 거점관광도시와 연계하는 관광루트의 관광목적지로 개발한다.

그리고 특정지역으로의 관광객 집중을 완화하고 분산수용을 위해서는 관광소외지역에 대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 내륙의 농촌지



역을 중심으로 특산물이나 특색 있는 자원발굴을 통한 녹색농촌 관광마을 혹은 테마형의 관광휴양마을, 휴양펜션 빌리지 등과 같은 테마형의 관광마을이나 관광시설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역방문객들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자원이나 관광매력 콘텐츠 자원의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이용이 편리한 효과적인 관광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보다 다양한 관광매력 코스의 개발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분포된 자원의 특성에 따라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네트워크형의 테마관광벨트를 조성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매력적인 테마브랜드형 관광코스를 개발 육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해안의 해양관광권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관광유인 루트를 개발하고, 충남과 연결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연계 이용망 구축을 통해 지역관광자원의 다차원적인 활용을 통해 관광객들의 집중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전략 혹은 관광클러스터화 전략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 혹은 충북, 전북과의 광역관광연계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지정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문화관광부는 관광목적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관광콘텐츠·프로그램 등이 미흡하여 매력도를 상실한 기존 관광지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모델을 제시하고, 획일화된 관광지 조성·개발·이용행태 등을 지양하여 관광지 특성에 맞는 정비·관리·운영·홍보 및 연계관광지 개발,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등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선정 대상으로 하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신청을 종합·조정하여 2개소 이내로 신청하고 이를 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지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종 1개소를 선정하면, 정부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15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단치단체에서 국고 지원액의 50% 이상을 부담한다.

그리고 관광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에서는 관광지로서의 매력도가 가시화될 때까지 구체적인 관광지 개발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 등을 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시설 개선, 지역 관광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 개발을 강화하여 관광지로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표 IV-4〉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내용

분 류	구 분	리모델링 요소	리모델링 시행
H/W 하드웨어 측면	민간 영역	• 옥외광고물, 환경색채, 조명 및 건축 외관, 조경공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저해요소의 제거</li> <li>• 경관관리요소의 개선</li> <li>• 경관형성요소의 창출</li> </ul>
	공공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원(녹지, 수림, 문화자원 등) 및 동선체계, 경관 등</li> <li>• 가로시설물,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보도, 식재 및 안내판, 야외광고물, 조형물, 배너, 환경색채, 조경공간 등</li> </ul>	
S/W 소프트웨 어 측면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축제 및 이벤트,</li> <li>• 주민참여, 문화체험,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 아이템 찾기</li> <li>• 상징적 아이템 찾기</li> <li>• 체험적 아이템 찾기</li> <li>• 연계적 아이템 찾기</li> </ul>
	홍보·마케팅 안내시스템	• 관광안내센터, 관광안내정보, 관광지 홍보 등	
	경영	• 예산 확보 및 사업 타당성	
H/W 휴먼웨어 측면	지역상인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의체 구성,</li> <li>• 운영관리 조직 설계 및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리</li> <li>• 전문가지원체계 구축</li> <li>• 국내·외 현장학습 및 교육</li> <li>• 방문객 관리 프로그램</li> </ul>
	관리자 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 양성</li> <li>• 관광사업자의 서비스교육 등</li> </ul>	
	관광객	• 관광객 만족관리 등	

자료 : 문화관광부(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충청남도에서도 2007년 현재 25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고, 이들 관광지 중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관광지가 있으므로, 기존에 관광지가 개발이 미흡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지역은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 관광지 리모델링 추진 사례 :

2005년도에는 강원도 영월의 ‘고씨동굴’과 2006년도에는 전라남도 영암의 ‘영산호’가 그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 □ 2005년 대상지 : 강원도 영월 ‘고씨동굴’ 추진 경과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추진방향 설정('04. 11~'05. 2)
- 2005년도 리모델링 대상지 접수 및 선정('05. 3~5)
  - 강원도 ‘영월 고씨동굴’ 등 8개 시·도 12개 관광지 신청
  - 강원도 ‘영월 고씨동굴’ 2005년도 대상지 선정
- ‘관광지리모델링 활성화 전략’ 연구용역 ('05. 7~12,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영월 고씨동굴’ 리모델링 추진 전략 수립
  - 리모델링추진위원회 구성('05. 11)
  - ‘영월 고씨동굴’ 추진 방안 마련('05. 11~12)
    - 리모델링추진위원회 구성 및 문화관광부(위원회)와 영월군과의 업무협약 체결
    - 리모델링 기본 콘셉트 및 범위 등 과업지시서 마련
- 리모델링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06. 2~)

#### □ 2006년 대상지 : 전남 영암 ‘영산호’ 추진 경과

- 2006년 리모델링 대상지 신청('06. 4. 12~5. 12)
- 대상지 평가 및 선정('06. 5~6)
  - 서면심사에 의한 1차 후보 대상지 선정(2개소) : 5. 30
    - 경기도 산정호수 관광지, 전라남도 영산호 관광지
  - 2차 현장실사 등에 의한 최종 선정 : 6. 13~6. 15
    - 전라남도 영암 ‘영산호 관광지’ 선정
- 리모델링 사업 업무협약 체결('06. 8월 중)
- 리모델링 대상지 기본계획서 수립 및 사업시행 등('06. 9~ )

### 3) 관광시장 수요창출과 환기

#### (1) 하절기 중심의 관광패턴을 4계절형으로 분산 유치

충청남도의 관광객들은 계절적으로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6월, 7월, 8월인 여름철에 52.1%를 차지하여 하절기 중심의 관광객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4계절로 이용패턴을 조화있게 분산하는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한다.

## ①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패턴 극복

충남지역 방문객들의 시기적, 계절적 편중은 그간에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이룩한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상품이 성공을 거두면서 여름철 관광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충남은 여름철에 선호되는 해수욕장과 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시기적으로 하계 휴가시즌이 이때 시작되어 해수욕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충남 관광패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특정 시기에 너무 과도한 관광객이 집중됨으로써 특정지역에 교통혼란의 초래와 함께 수용능력의 초과에 따른 관광만족도 저하와 자원훼손, 무분별한 바가지 상혼 등장 등으로 인하여 지역관광의 이미지 실추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에 이러한 계절적 관광편중 현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의 마련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 ② 계절별 테마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접목

충남관광의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목적지로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광콘텐츠 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계절별로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된 관광프로그램 발굴 육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절별로 수용이 가능한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설공간의 개발뿐만 아니라 계절별 관광코스과 더불어 다채로운 관광활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자원분포를 감안하여 계절별로 특성화된 관광드라이브코스를 개발하거나 계절별로 이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휴양공간 등의 개발을 전략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IV-5〉 충남 춘절기 관광자원 전략 개발 예시

구분	산/계곡	하천/강	바다/해양	역사문화	특산품	먹거리	지역축제	기타
천안	태조산, 광덕산, 위례산, 성거산, 태학산, 은석산			천안삼거리공원, 독립기념관, 각원사, 유관순열사유적지, 광덕사, 망향의동산, 만일사, 천원삼태리마애불	성환배, 입장포도, 관덕호두, 개구리참외	병천순대, 두레앙와인		상록랜드
공주	계룡산국립공원(갑사, 동학사, 신원사), 마곡사			지당세계만물박물관, 계룡산도예촌	정안밤, 우성오이, 신평꽃고추	계룡백일부	동학사 봄꽃 축제(4.5~4.15) 마곡사 신록축제(4.21~22) 웅진성 수문병교대식(4월~10월) 계룡산분청사기축제(4.12~4.15)	
보령	성주산(성주사지)				사현포도, 백제골산채	주꾸미볶음, 회, 샤브샤브	무창포주꾸미축제(3.18~4.9) 오천향키조개축제(4.16~4.22)	
아산	봉곡사				아산염작배	선장김치, 탕정 와인	아산성웅이순신축제(4.27~5.1)	
서산	팔봉산			해미읍성	서산6쪽마늘	어리굴젓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10.12~10.14)	
논산	계룡산국립공원(갑사, 동학사, 신원사), 대둔산도립공원, 관촉사			백제군사박물관	딸기, 꽃감	가야곡왕주, 매운탕, 황복	논산딸기축제(4.6~4.8)	
계룡	계룡산국립공원(갑사, 동학사, 신원사)			사계고택, 신도주추석	계룡산물엿			
금산	대둔산도립공원, 서대산				인삼, 추부갯잎	어죽, 매운탕	비단고을산꽃축제(4월 중)	
연기	비암사			연기향토사료관	복숭아		모목축제(3.17) 도원문화제(4.19~4.20) 왕의물축제(4.30)	

구분	산/계곡	하천/강	바다/해양	역사문화	특산품	먹거리	지역축제	기타
부여	만수산, 대조사, 부소산성, 낙화암, 정림사지, 백제왕궁터,	백마강유람			부여토마토, 버섯, 수박, 메론	우여회	은산별신제(3.21~3.25) 갯개포구우여축제(3월말) 세도토마토축제(4.13~4.15) 석성양송이축제(4월중)	
서천					모시, 냉각쌀	주꾸미볶음, 회, 샤브샤브	동백꽃주꾸미축제(3.24~4.6) 자연산키조개축제(4.29~5.12) 자연산광어/도미축제(5.13~5.26)	
청양	칠갑산도립공원				구기자, 고추	한과, 참게장	칠갑산장승문화축제(4.12~4.15)	
홍성	용봉산, 오서산				토굴새우젓, 갈산토기, 김,	새조개샤브샤브, 키조개샤브샤브, 광어회, 도미회, 매운탕	남당리새조개축제(2.3~3.4)	
예산	덕산도립공원(수덕사)			한국건축박물관	예산애호박, 사과	매운탕	예산달집축제(3.3) 윤봉길문화축제(4.28~4.29)	
태안	백화산				꽃게, 대하, 마늘, 자염	세발낙지탕		
당진			삼교호관광지		당진쌀, 가화포도, 초락도약쑥	간재미회무침, 간재미회	기지사줄다리기(4.14~4.15) 면천진달래민속축제(4월중) 장고항실치축제(4월중) 순성매화벚꽃축제(4월중) 우강벚꽃길건강달리기대회(4월중)	

### ③ 역발상을 통한 해수욕장 활용의 다차원화

여름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계절에도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아이템을 발굴 접목하거나 주변 관광지나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겨울바다 갯벌여행, 해수욕장 연날리기 프로그램, 해양온수욕장

개발, 겨울바다 가족캠프파이어 개최, 해양동굴수족관 건설, 겨울바다 보양식 상품개발 등의 역발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전략적 관광콘텐츠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수욕장과 같은 해양관광자원 이용의 계절적 이용편중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관광자원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가격차별화를 통한 충남관광 그랜드세일 전개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관광수요는 관광자원 및 시설이용에 대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이에 충남관광이 4계절 방문목적지로서의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관광객의 계절별 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의 경우는 유희관광자원 및 시설을 이용하여 가격할인을 통한 그랜드세일 마케팅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방문촉진을 유도해 나가는 전략적 마케팅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방문이 적은 다른 계절에 보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수욕장 주변이나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관광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숙박가격 할인주간 등을 설정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계절별 특성화 자원의 발굴 조성 강화

충남지역 관광객들의 계절적 편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적 경쟁력을 가진 매력관광자원이나 시설 확충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충남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에 대한 특성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들 자원이나 시설의 계절적, 시기적 이용패턴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의 관광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계절별 특성화 자원 발굴 조성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겨울철과 봄철, 가을철 행락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나 자원시설의 확충을 보다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계절별 방문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관광권역별 혹은 거점관광지별로 테마형의 야간관광명소나 경관 등을 조성하여 주간중심의 관광패턴을 야간시간대까지 연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관광이용 패턴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⑥ 복융합 관광으로 계절의 편중성 극복

충남관광객 이용의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는 관광자원 개발방식으로 4계절 관광자원화를 유도해야 한다.

관광과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이 융합된 관광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고, 관광과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산업 각각의 “0.5차 더하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해수욕장 중심의 하절기 관광패턴을 동절기와 춘추절기로 분산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축제·이벤트 행사 등을 지역내 관광자원과 산업 등을 연계한 복융합 관광산업으로 개발한다.

## (2) 충남의 지역별 관광객 이용패턴에 적합한 관광자원 개발

### ① 시·군별 특성에 맞는 대표 관광자원과 관광명소의 개발

시군별로 입지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표 관광자원과 관광명소를 육성한다.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어메니티자원은 지역사회의 관광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충남의 청정한 자연, 아름다운 풍경, 개성 있는 문화적 전통 등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다움, 여유로움, 감성 등 어메니티를 체험하는 관광자원으로 제공한다.

관광개발은 디자인이다. 관광가치를 디자인해서 가치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데, 충청남도 역시 관광자원의 개발은 디자인을 통해 질적 선진화를 서둘러 지역 관광개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 ② 관광권역별 관광상품과 문화콘텐츠 상품의 개발

충남의 계절별·관광시장 지역별 관광상품 제공방안이 유효해 보인다. 태안, 보령, 서천은 충청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5대 권역중 해양관광권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주로 여름을 중심으로 보령머드축제, 2009년에 재개최를 추진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의 축제와 연계된 지역 관광상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백제·금강문화관광권인 공주, 논산, 부여, 청양, 금산, 서천, 계룡 등의 지역은 봄, 가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금산인삼축제, 백제문화제, 한산모시제와 연계한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생태관광자원을 아우르는 관광상품은 자녀를 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또한, 문화컨텐츠 상품을 제공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 한다. 웰빙생활과 현대 관광수요에 적합한 관광상품으로 건강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먹거리 서비스 제공 및 체험상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역사자원과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소재로 하는 문화컨텐츠 상품 개발과 판매를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한류 대중문화를 충남의 자원과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권역	시군	산/계곡	하천/강	바다/해양	역사문화	특산품	음식	지역축제	기타
백제문화관광권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갑사, 동학사, 신원사), 마곡사, 금강자연휴양림	금강		지당세계만물박물관, 계룡산도예촌, 박동진판소리전수관, 공산성, 고마나루, 송산리고분군, 국립공주박물관, 공주산림박물관, 석장리구석기전시관, 공주황새바위	딸기, 신풍꽃고추, 공주우성오이, 신풍참수박, 방울토마토, 공주정안밤, 공주사과, 웅진쌀	따로국밥, 산채정식	동학사 봄꽃 축제(4.5~4.15) 마곡사 신록축제(4.21~22) 웅진성 수문병교대식(4월~10월) 계룡산분청사기축제(4.12~4.15) 웅진성 수문병교대식(4월~10월) 고마나루축제(7.14~8.12)	금강유황온천
	부여군	만수산, 대조사, 부소산성, 낙화암, 정림사지, 백제왕궁터, 만수산, 대조사, 만수산자연휴양림	백마강		부여서동공원, 구드래공원, 국립부여박물관	원추리나물, 구룡아침딸기, 세도방울토마토, 석성양송이, 부여오이, 맥문동, 굿뜨래수박, 부여메론, 부여밤, 고구마, 파프리카	우여회, 돌쌈밥, 장어구이	성홍산해맞이축제(1.1) 은산별신제(3.21~3.25) 갯개포구우여축제(3월말) 세도토마토축제(4.13~4.15) 석성양송이축제(4월중) 굿뜨래수박축제(6월초) 서동연꽃축제(7월중) 알밤축제(9~10월중) 백제문화제(10.11~10.16) 알밤축제(9~10월)	
	논산시	계룡산 국립공원(갑사, 동학사, 신원사), 대둔산, 도립공원,	탑정저수지		백제군사박물관, 축사	딸기, 논산사과, 논산배, 황산벌특미, 찰쌀보리쌀, 강경젓갈, 대추, 꽃감, 맛사마, 간장, 국간장, 고향참·들기름, 양촌감, 식초, 가야곡, 왕주, 생생포도즙	우여회, 황복탕, 오골계, 연산순대	논산딸기축제(4.6~4.8) 추억의병영체험축제(6월중) 강경젓갈축제(10.12~10.16) 연산대추축제(11월중) 양촌꽃감축제(11월중)	

권역	시군	산/계곡	하천/강	바다/해양	역사문화	특산품	음식	지역축제	기타
내 문화관광권	서산시	광봉산		간월암, 도갯벌체험, 서산 A, B 지구	해미읍성	서산육쪽마늘, 굴, 서산감천배, 새들만 기러기오는 쌀, 뜰부기와 함께 자란 쌀, 간월도어리굴젓, 생강	굴밥, 우럭젓국, 박숙밀국, 낙지탕, 꽃게탕, 게국, 지찌개, 대하, 새조개, 샤브샤브, 전어무침, 어죽	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미정) 서산6쪽마늘축제(미정) 간월도바다음식축제(미정) 삼길포우럭축제(6.1~6.3)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10.12~10.14) 안견문화제(10.13)	
	홍성군	용봉산, 오서산		홍성갯벌체험	홍성생가, 백야생가	새조개, 주꾸미, 굴, 키조개,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 쪽파, 완숙토마토, 사과, 배, 오리농작물, 새우젓, 조선킴, 돼지고기, 한우, 청정계란	대하, 꽃게탕, 새조개, 샤브샤브, 전어무침, 전어회	남당리새조개축제(2.3~3.4) 내포사랑큰축제(9월말~10월초) 만해제(9월말~10월초) 남당대하축제(9~10월)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대축제(10월) 김좌진장군전승기념축제(10.24~10.25)	홍성온천
	당진군		왜목마을, 삽교호, 난지도, 해수욕장, 송악한진포구갯벌체험	삽교호	솔피성지, 신궁합덕당	당진달래, 간재미, 당진딸기, 방울토마토, 당진오이, 초락도 약쑥, 송악향토감자, 쪽파, 밤호박, 당진가화포도, 면천파리꽃고추, 당진사과, 당진배, 석문사과, 해나루쌀, 당진두레배, 자라	간재미회무침, 간재미회, 자라탕, 추어탕, 어죽, 실치회	한진해돋이축제(12.31~1.1) 안섬풍어당굿(2.26~2.27) 기지시줄다리기(4.14~4.15) 면천진달래 민속축제(4월중) 장고항 실치축제(4월중) 순성 매화벚꽃축제(4월중) 우강벚꽃길 건강달리기대회(4월중) 함상축제(5월말) 한진바지락축제(6월) 남이장군송모제(9월중) 상록문화제(10월) 쌀사랑음식축제(10월) 삽교호바다사랑축제(10.21~10.23) 왜목해돋이축제(12.31~1.1)	도비도해수탕
	예산군	덕산도립공원(덕사)	예당저수지		한국건축박물관, 여사울임존성	예산애호박, 오이, 쪽파, 수박, 토마토, 파리고추, 예산사과, 황금쌀	떡갈비, 한우	예산달집축제(3.3) 윤봉길문화축제(4.28~4.29) 예당호반축제(8월초) 예산풍물제(9월중순) 추사문화제(10월 초) 의종은형제축제(11월초)	덕산온천

권역	시군	산/계곡	하천/강	바다/해양	역사문화	특산품	음식	지역축제	기타
역사 온천 관광	천안시	태조산, 광덕산, 위례산, 성거산, 태학산, 은석산, 광덕산계곡, 성거산계곡, 북면계곡, 유왕골계곡, 태조산공원, 유성관광농원, 태학산자연휴양림			천안삼거리공원, 독립기념관, 각원사, 유관순열사유적지, 광덕사, 망향의 동산, 만일사, 천원삼태리마애불	천안오이, 아우내오이, 성환개구리참외, 수신메론, 한신수박·메론, 입장·성거 거봉포도, 천안안양골배, 성환배, 광덕호두, 해뜰한우·포크	병천순대	아우내봉화제(2.28) 입장 거봉포도축제(8월말) 천안흥타령축제(10.3~10.7) 천안시성환배축제(10월중)	상록생태마을, 태조산논생태마을, 상록랜드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세계꽃식물원			봉곡사, 외암리민속마을, 온양민속박물관, 공세리성당	완숙토마토, 아산오이, 도고쪽파, 방울토마토, 탕정포도, 아산사과, 아산배, 아산염작배, 아산맑은쌀, 선장김치, 황토한약재래토종닭, 아람포크		아산성웅이순신축제(4.27~5.1)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10.19~10.21)	아산온천, 온천, 도고온천

권역	시군	산/계곡	하천/강	바다/해양	역사문화	특산품	음식	지역축제	기타
대도시 근교권	연기군	오봉산	금강		연기향토사료관, 운주산성, 비암사	수박, 조치원복숭아, 연기복숭아, 토마토, 배	숯불돼지갈비, 백숙	묘목축제(3.17) 도원문화제(4.19~4.20) 왕의물축제(4.30) 수박축제(6.2) 복숭아축제(8.11~8.12) 한가위덤&덤축제	
	금산군	대둔산도립공원, 서대산, 진산자연휴양림, 남이자연휴양림	금강		칠백의총	홍삼, 홍삼액, 백삼, 택극삼, 진생원포크(돈육), 추부깻잎, 추부포도, 금산고려인삼, 금산인삼주	어죽, 추어탕, 전통삼계탕	비단고을산꽃축제(4월중) 금강민속축제(7.28~7.29) 금산인삼축제(9월중)	
	계룡시	계룡산국립공원(갑사, 동학사, 신원사)			신도주추석	계룡산물엿, 영지디골드, 대추골드		계룡축제(9월중)	

### ③ 광역 관광벨트와 관광루트 관광상품 개발

충청남도, 대전, 충청북도의 권역관광개발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통합 관광협력네트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권역 관광상품의 개념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백제문화권으로 분류되며 역사관광지역으로 그 성격이 차별화된다. 대전은 현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의 도시로서 그에 적합한 관광매력물을 만들어나아야 한다.

이들 광역관광권내에서 관광벨트 및 관광루트의 형성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의 분포특성과 테마를 연계하여 상호 네트워크형의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그리고 해안과 내륙을 연계하는 테마관광도로 조성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또한, 새로운 관광패턴형의 항공·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는 관광루트도 구축한다.

## 4) 관광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한 충남의 관광진흥 추진

### (1) 관광자원 입지와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광기회 제공

#### ①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추진

관광은 관광객, 관광산업, 관광자원 외에도 지역사회(local community)라는 4요소로 구성된다. 관광개발의 공간적 대상은 지역사회 그 자체여야 한다. 주민의 삶과 문화가 누적된 생활공간 그 자체가 관광개발의 영역이다.

21세기의 도시(지역) 개발은 관광개발이어야 한다. 충남의 관광개발은 방문객을 위한 관광개발과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이어야 한다.

특히, 충남지역의 관광자원에서 보이지 않은 것(invisible)이 관광객을 사로잡도록 한다. 세계적 관광명소는 두 가지 유형으로 기념비적인 건조물과 기념비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것이다.

충청남도 역시 로렐라이 언덕과 인어공주 동상과 같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콘텐츠(노래와 동화)를 개발한 사례와 같이 그 동안 소프트웨어(software)보다 하드웨어(hardware)를 우선했고, 콘텐츠(contents)보다 컨테이너(container)를 중시했다면, 액터(actor)보다 프로젝트(project)에 관심을 두었었던 관광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② 정부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거버넌스에 의한 관광개발 추진

협치(governance)가 관광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 우리의 관광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규정할 수 있다. 바람직한 자치단체 주도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형 개발로 전환하고, 신규개발은 최소화해야 하며, 그리고 규제 합리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충청남도에서도 지역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지역단체와 사람들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점차 확대될 것이고 그 그룹에서 리더십을 갖춘 리더도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 ③ 인접 시군간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충청남도는 관광자원의 특성이 다양하고 잠재력이 있으나 이러한 관광자원을 연결해주는 관광상품이 부족하다. 그동안 개별적인 지역별 관광상품화 노력은 많았지만 광역적인 연계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지역축제의 경우도 축제기간에만 당일관광객들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방문객들을 숙박관광객으로 유도하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충청남도 16개 시·군 지자체간 관광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상품 개발과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 따라서 광역적 관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의 이용성과 관광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역시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2) 수요자별 관광객 유치 촉진과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

### ① 충청남도 홍보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개

관광홍보를 하는 이유는 관광소비자에게 충남을 관광지로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여러 관광지를 나열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관광자 선택 시 혼란만 가중시키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홍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충남의 거점 관광지나 초기 개발 관광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점관광지나 초기관광지의 집중적 홍보는 인근 소규모 관광지의 발전에 일단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충남 지역전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홍보를 위해서는 거점관광지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충남이 가지는 기존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종합하고 소구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홍보활동의 전문성과 종합성,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홍보에 있어서 지자체 단체간의 합동 홍보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을 브랜드화 하고 명소화 하는데는 축제가 효과적이고 가시적이다. 지역축제는 장소를 파는 관광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충남과 시군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집중 육성하고, 국제규모의 메가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충남지역의 관광홍보 전략은 주로 특정지역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옴으로써 이들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부터는 이와 같은 관광홍보 전략을 충남내륙지역의 또 다른 관광매력이나 자원요소를 보다 집중 부각시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②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다양성 유도

충청남도 관광자 방문은 50%이상이 서해안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서해안을 거점으로 하여 충남 내륙으로의 벨트화 또는 루트화 하여 충남관광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홍보강화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서해안 관광의 또 다른 특성은 성수기가 여름으로 한정 되어 비수기가 길다는 것이다. 비수기가 긴 관광지에서의 관광산업체는 경영에 압박으로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서도 서해안지역과 내륙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코스에 개발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내륙연결도로망의 확충과 정비를 추진하고, 이러한 루트를 관광벨트나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방문비율이 낮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매력 요소자원의 새로운 발굴을 도모하여 집중 부각시켜 나갈 수 있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 대표브랜드와 관광매력시설이나 자원요소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홍보토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분산수용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③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공세적 자세로 추진

충남 홍보는 기회와 장점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단점은 보완해야 하지만 홍보입장에서는 충청남도 관광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관광객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 관광홍보는 관광사업자나 관광분야 종사원 입장이 아닌 관광객 입장에서 알려야 한다. 관광객이 관광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큰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는 접근성이다.

충청남도는 서울, 수도권, 대전지역을 배후로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전국민의 50%를 상회한다. 이런 큰 배후 지역이 1시간대면 충청남도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이며, 매우 우수한 접근성이다.

또 다른 충청남도 관광의 큰 장점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 온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휴양관광, 백제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레포츠 등 동적인 관광과 휴양 등 정적인 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인 강원도와 비교하여도 우위를 가지는 것이 많다. 충청남도가 강원도보다 관광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강원도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관광홍보에 집중한 것이고 충청남도는 관광보다는 다른 분야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인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충청남도도 이제부터는 충남의 관광홍보를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

#### ④ 정확한 목표시장 설정 및 시장 포지셔닝에 의한 홍보

목표시장으로서 충남·대전권과 서울·경기·인천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숙박관광 뿐만 아니라 당일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의 주된 테마는 가족중심의 주제로서 체험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관광의 최대화두는 체험이다. 그런데 이 체험은 우선 재미있는 체험이어야 하며 이면적으로 교육적이어야 감동을 주고 재방문객을 창출할 수 있는데 우선 홍보에서는 교육적 측면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질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해설사의 적극 양성도 필요하다.

충남 관광은 전국 비율에서 8.8%로서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의 광역시에도 활발한 마케팅을 해야 한다. 광역시 관광객의 1%대만이 충남을 찾고 있다.

#### ⑤ 관광홍보 전담 기능의 강화

모든 사업에 주체가 필요하듯 관광홍보 전담기능의 강화와 홍보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관광에 대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 그

러나 관광에 대한 정부 행정조직에서 하는 분야와 지방공사 등 공공에서 하는 분야 그리고 관광기업이 중심이 되는 민간분야의 홍보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관광홍보 전담기구설립이나 기능 강화를 통하여 각 분야를 통합적으로 운영·계획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홍보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고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상의 홍보마케팅도 장차 충남관광 홍보의 중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꾸준한 관광교육을 통하여 전주민의 홍보요원화가 필요하며, 민간차원의 관광자원 해설 봉사 단체를 조직하고 유휴인력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이 필요하다.

## ⑥ 구체적인 슬로건과 목표와 연중 캠페인 실시

충청남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슬로건이 무엇일까? 충청남도 관광구심점은 무엇일까? 그런데, 백제의 옛 유적, 안면도의 소나무와 수려한 해양자원, 온양온천 등 몇 가지가 떠오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충남관광의 이미지가운데 구체적인 하나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기존의 '느낌여행 충남'을 충남 관광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늘 가까운 충남(near-chungnam)'의 의미에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마케팅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접이지대로서의 부드러운 충남, 편안한 충남을 이미징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함이 있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충남'을 팔아야 할 것이다.

'느낌여행 충남'이 충청남도 관광 전략이라면 전술은 각 해당 해의 관광 목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광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것으로 관광 슬로건 아래 목표를 모두가 공유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관광발전 전략에 맞도록 매년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⑦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관광홍보 기능 강화

충청남도에서 관심을 기울일 또 한 분야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관광상품의 유통이다.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은 온라인 시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은 본사가 있는 미국보다도 한국에서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옥션, 여행사, 항공사, 호텔, 소규모 민박업체 등도 실시간 예약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단순 정보 제공기능만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포털 사이트도 많지 않지만 민간 업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활용한 관광상품 홍보 방법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위성영상에 기반한 경주국립공원 3차원 관광안내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러한 첨단 분야를 충청남도의 관광상품 홍보와 유통에 적극 접목하여야 충청남도의 관광홍보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관광마케팅의 강화는 인접 지역간 상호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관광 홍보 및 안내정보체계의 구축과 관광 마케팅 강화는 인접 시군과 통합하여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 (3) 2010년 '충남 방문의 해'사업 추진<sup>28)</sup>

### ① 추진 배경

2010년 충청남도는 태안 유류유출사고의 극복, 백제역사문화단지 완공 및 대백제전 개최와 2010년 행복도시 주민 첫입주, 지역내 육·해·공 교통망 완비를 목표로 2009년 이후 충남 중심을 관통하는 동서간 고속도로 완공, 2009년

---

28) 양광호·최영문(2007), 「2010충남 방문의 해」 연구자료 초안 요약

당진·평택항 개항으로 인한 크루즈 해외관광객 유치, 2010년 서산비행장 개항으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목표로 하여 2010년 충남 방문의 해를 인트라바운드 선두주자로서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충남방문의 해 특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0 충남방문의 해 슬로건 및 아이덴티티 개발 및 홍보, 방문의 해 홍보사이트 U-Travel 구축, 안전 관광충남 선언식 개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총회 개최와 관광관련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제관광회의와 관련한 PATA : 태평양 아시아 관광 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ASTA(American Society of Travel Agents), WTO 등 관련단체 홍보방안 강구하고, 이에 버금가는 국제 관광학술회의와 국제행사를 유치해야 할 것이다.

## **② Visit Chungnam 2010 사업계획(안)**

2010년 충남방문의 해를 위해 준비하는 사업계획은 신규사업(기획, 특집), 업그레이드 관광충남, 관광인프라 개선, 환대체계 구축(환영하는 지역주민), 방문의 해 붐 조성 및 마케팅 등에 부문별로 다양한 전략사업을 수립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IV-7〉 Visit Chungnam 2010 사업계획(안)

구 분		사 업 명
방문의 해 기획특별 사업	놀라운 충남관광	20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400백만 환경 기적 대축제
		역사문화의 세계화 '2010 대백제전'
		새로운 도약 국경없는 100만 다민족 다문화 관광대축제
	화합하는 관광충남	행정중심복합도시 첫 입주 기념축제
		Win-Win Social Tourism
		Boder-Happy 사업
		월드컵 관광거리 공동응원
		관광비수기, '고향사랑관광사업' 전개
	생산하는 관광충남	PATA 총회 및 문화관광관련 국제총회 개최
		문화관광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대한민국 체험허브 구축 운영
	편리한 관광충남	OK-관광안내
		어드바이저 네트워크 구축
		광역투어버스 운영
		충남 'Big Choice' 관광상품개발
매력있는 충남관광	새로운 매력 충남관광 자원	서해안 파인코스트 관광벨트화 사업
		Complex형 관광지 조성
		관광특구, 권역별 테마형 관광지 및 문화시설개발
		역사고도 위상정립 사업
		테마가 있는 환경·생태·녹색 관광자원 정비 및 신규조성
		백제테마파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또 하나의 충남문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특이체험, 독살복원 및 체험학습장 조성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
		호수 및 철새도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및 단지조성
		Green 충남 Park, 도시 숲 및 생태 숲 조성
		매력적인 경과, 아름다운 100대 숲 조성사업
		명품 가로숲 조성
		관광충남 3명 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

구 분		사 업 명
매력있는 충남관광	오감만족, 특별한 여행상품	테마가 있는 맞춤형 여행상품 운영
		역사 및 온천연계 한.중.일 크루즈 패키지 여행상품 운영
		금강따라 1000리 여행코스 개발
		푸드 테마관광상품, 서해안 Sea Food 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
		농산어촌체험 가족형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종교·고택연계 체험관광상품 개발 운영
		체험형 야간관광상품 확대운영
		Story 관광충남, 해설사와 함께하는 여행상품 개발.운영
	흥이 나는 이색 축제 및 음악.예술.문학제	시·군 방문의 날 운영
		명품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체험형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 운영
		백제마라톤 대회 개최
		아시아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
		Pre 세계 군문화축제 개최
		특별한 감동, 음악·예술·문학제 및 앤날레
	또 다른 맛 과 멋	빛깔있는 충남, 맛깔나는 우수 향토음식점 및 음식특화지구 지정 운영
		누구나 사고 싶은, 관광기념품 및 향토 특산물 품질 향상 사업
잊지못할 환대	불편없는 수용태세	관광품질 보증선언 및 공식품질 보증마크제 도입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및 개방업소 지원
		누구나 좋아하는, 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머무르는 관광충남, 관광호텔 및 중저가 숙박시설 활성화
		자연친화적 다목적용 오토캠핑장 설치
		선진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자발적인 참여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화관광해설릴레이 특별 이벤트
		하나로 뭉친 관광충남, 관광품앗이 네트워크 구축
		365의 기적, 편 볼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자부심 느끼는 교육	“다시 오고 싶은 관광충남” 도민운동 전개
		관광충남의 첨병, 문화관광리더 양성사업
	자생력있는 관광산업	전략적 광역 및 시·군 관광진흥협의회의 발전적 운영
		관광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함께하면 웃을 수 있는 Shop in Shop 설치 운영

구 분		사 업 명
방문의 해 봄 조성 및 마케팅	참여하는 봄 조성	관광충남 2010 Club
		사이버 “홍보메신저”제도 운영
		찾아가는 충남방문의 해 개막선포 Festival
		미리 준비하는 충남방문의 해 봄 조성 사업
		미래를 위한, 충남방문의 해 사후 평가사업
	주목받는 마케팅	강한 관광충남, Mega Marketing 사업
		효과적인,교통수단 및 언론매체 홍보
		충남방문의 해 홍보물, 홍보영상 및 홍보기념품 제작

#### (4) 충남 환경관광산업의 특화지역으로 집중 개발

##### ① ‘국제 환경관광 프로젝트(안)’의 추진

유류유출 사고를 계기로 태안군 북쪽을 환경관광지대로 지정하여 해양오염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중인 만리포 관광지와 사구, 갯벌, 수목원과 연계한 환경관광지구를 조성하여 환경관광명소로 개발을 추진하고, 해양오염과 희귀생태자원을 근거로 국제 환경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 환경관광지역으로서 발전시킨다.

이러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태안 유류유출 주변지역을 ‘환경관광지대(가칭)’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 유류유출 피해지역 주변의 환경관광지대를 위한 자원 현황**

- 태안해안국립공원 : 해안국립공원의 보존과 관리 사업
- 만리포 관광지 : 해양환경 테마관광지로 조성(조성계획 수립중)
- 신두리사구 : 천연기념물 지정, 국제보호식물 지정
- 두웅습지 : 람사협약에 람사르습지 신규 등록
- 천리포수목원 : 세계적인 희귀 및 보호 식물과 수목 보유
- 신재생에너지특구 :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광자원 개발
- 이원간척지구 : 화훼단지 및 웰빙관광지구 조성
- 해수욕장 : 만리포, 천리포, 학암포, 신두, 파도리 해수욕장 등
- 갯벌과 독살 : 갯벌과 독살 등 생태체험관광지로 조성

- 주 : 1) 특별법에 환경관광특구사업의 내용 반영하여 제정  
 2) 태안군 환경관광특구 조성계획 2008년 연구사업으로 추진  
 3) 복구에 동원된 특이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관하여 추후 환경전시관 건립

또한, 이들 지역의 세계적 환경관광명소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단체와 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환경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요 자원은 다음과 같다.

- 신두리사구 : 환경부 법적보호종(보호야생동물)
- 천리포수목원 : 국제 보호종 식물과 수목 보유
- 태안해안국립공원 : 희귀 동식물 및 보호종 서식

주 : 국제환경단체 및 기구와 참여와 지원사업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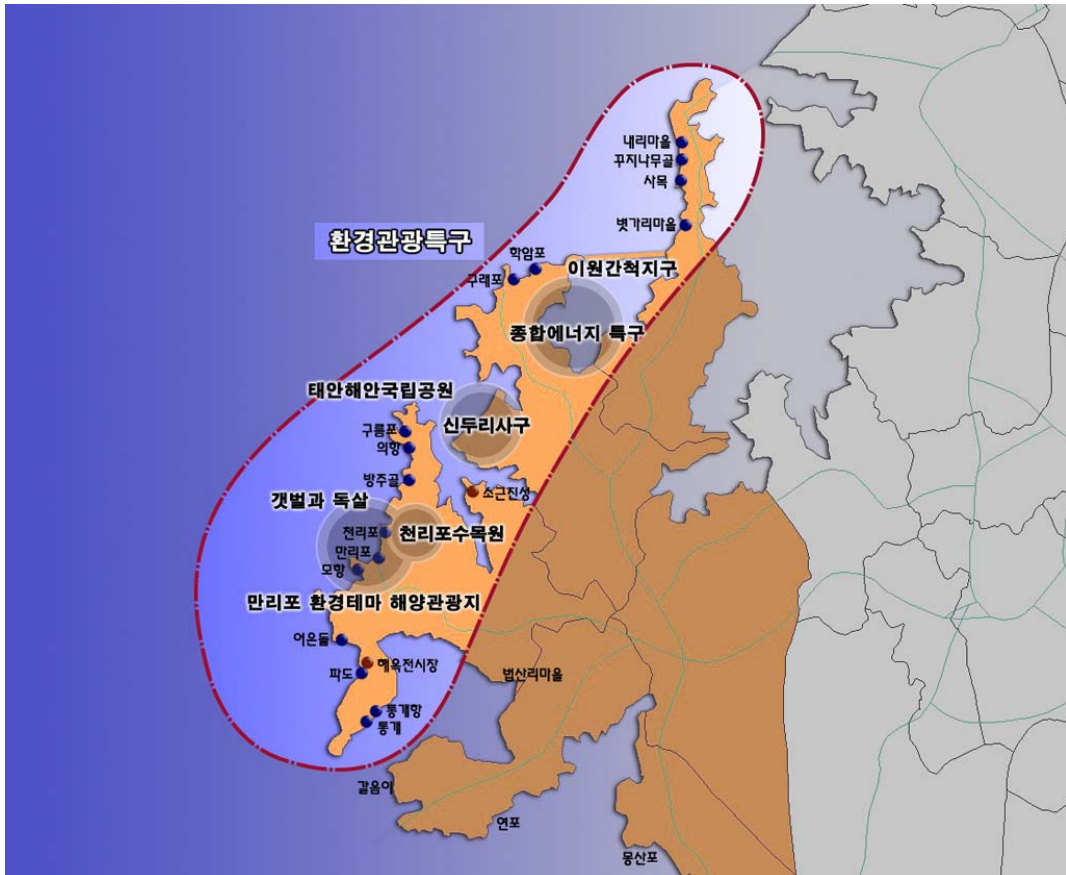
더불어, 유류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의 관광마케팅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메가이벤트와 자원봉사활동, 지역주민들의 피해복구 노력 등에 관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위한 환경관광상품으로서 교육 및 체험, 기억에 남는 관광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운영해야 한다.

유류유출 피해가 복구되는 일정한 시점에서 ‘국제 환경엑스포’ 개최로 유류유출의 큰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청정한 지역으로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기름 오염피해를 극복한 세계적 사례지역으로 세계 각 국가들

간의 공동협력과 기름오염 복구를 위한 환경산업 엑스포로서 해양오염의 극복 및 관리와 관련된 세계 환경학자와 환경사업체의 정보 교류와 교역전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환경단체 및 기구 지원과 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행사명칭 및 세부계획은 2008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충남 서해안과 태안의 청정한 해양, 생태자원과 해양오염을 환경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관광 수입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고, 국제환경단체나 기구의 참여 유도를 통해 친환경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해양오염 극복의 국제적 중요사례지로 부각될 수 있다.

(그림 IV-7) 태안 ‘가칭 환경관광지대’ 개념도



## ② 서해안 ‘어업과 관광업 살리기’ 운동 전개

유류유출 사고를 계기로 태안군 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역 수산물에 대한 오염되었다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류유출’로 해당지역은 해양오염이 되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 해양오염이 극복되고 난 후에는 인접 연근해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증명과 보증을 하는 홍보와 정보제공으로 수산물 판매를 촉진토록 해야 한다.

해양오염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까지 서해안의 수산물 판매와 음식점은 당분간 동·남해안의 수산물을 대체하여 판매하고, 음식점 등에 공급하다가 해양오염의 극복되는 시점을 향하여 서해안 수산물 어획, 유통·판매 조사 및 보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서해안 수산물 어획, 유통·판매 조사 및 보증사업 예시 :

- 기름유출 사고지점과 이외 지역에 대한 수산물 관리와 유통
- 서해 먼바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보증과 판매관리
- 안정성 수산물에 대한 판매촉진 사업 전개

또한, 서해안의 관광산업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관광 재개 선언’을 통하여 서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관광활동을 하는데는 유류유출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 서해안 관광 재개 선언 추진사업 예시 :

- 유류유출 사고지 환경정비 후 ‘서해안 관광재개 선언식’ 개최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등 국민운동차원의 선언식 개최)
- 공공 및 단체 등에서 워크샵과 단합대회 등 태안에서 실시
- 유류유출 사고지를 임시 정비하여 환경교육의 답사관광 실시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관광산업은 21세기 무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자 무형의 수출산업으로 평가되면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민 국내관광 행태 변화의 주요 특징은 관광의 대중화·생활화, 관광단위의 소집단화, 관광수단의 편리화, 관광활동의 개성화·다양화, 관광의 단기간·수시화, 관광목적지의 분산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수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광수요의 창출과 관광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경쟁력은 물론이요 관광생명력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무차별적 무한경쟁 환경 속에 놓여 있어 보다 새롭고 창조적이며 전략적인 수요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충남 관광수요와 개발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객과 관광자원의 편중성 극복이 필요하다. 서해안과 일부 시·군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객의 균형적 배분을 유도하고, 각 시군이나 관광권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과소·과대에 대응하는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계절적 집중의 분산과 4계절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 충남은 서해안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절기 중심의 관광객 집중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관광발전을 위해선 4계절로 이용패턴을 분산해야 한다. 따라서 해수욕장의 이용 집중에서 다양한 역사·자연관광자원에 분산하여 유치해야 한다.

셋째, 관광자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충남

의 전 지역과 관광권역, 또는 각 시·군에 관광수요와 공급분석에 의한 공간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공급방안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관광객의 행태변화에 적합한 능동적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관광객의 방문수요와 체류형태, 이동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관광지원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광지원시설을 갖추고 관광거점이 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자원특성과 이용수요에 적합한 관광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구조와 현대적 여행패턴의 변화에 맞는 관광개발이 요구된다.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 관광행태의 변화에 적합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2007년말에 발생한 태안 유류유출사고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관광수급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기된 해결과제는 한 가지의 과제만을 해결한다고 충남 관광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과 상품을 개발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시·도나 시·군간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관광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각 실과 간에도 상호 연계성과 협력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충남관광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현재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하드웨어 확충뿐만 아니라 관광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관광콘텐츠의 발굴, 그리고 감동이 담겨 있는 관광휴먼웨어 서비스가 조화롭게 갖추어 지역관광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정책제언

충청남도 관광개발은 도민 생활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두고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지역 자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충남 지역관광의 균형발전, 관광 이용패턴의 분산, 지역문화·정주생활과의 조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 새로운 관광 환경에 맞는 충남 관광마케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충남 지역관광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계절적 편중보다는 분산형 관광 이용패턴의 정책 추진, 인접 지역과 관련 관광사업간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지역주도형 관광정책과 정책의 추진방식 채택, 관광충남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집중적 관광마케팅 전개,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유출에 따른 피해 대응 및 관광산업의 전화위복 기회 마련 등의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충남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수립을 위한 접근 개념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관광시장 수요창출과 환기, 관광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한 충남의 관광진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권역별 거점 관광도시 육성과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기능을 극대화 하는 거점관광도시와 개별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충남의 관광거점 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소재의 명소관광자원 개발과 상호 연계 네트워크 구축, 지정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둘째, 관광시장의 수요창출과 환기이다. 하절기 중심의 관광패턴을 4계절형으로 분산 유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패턴을 극복하고, 계절별 테마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접목과 역발상을 통한 해수욕장 활용의 다차원화, 가격차별화를 통한 충남관광 그랜드세일 전개, 계절별 특성화자원의 발굴 조성 강화, 복용합 관광으로 계절의 편중성 극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남의 지역별 관광객 이용패턴에 적합한 관광자원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별 특성에 맞는 대표 관광자원과 관광명소의 개발

과 관광권역별 관광상품의 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선택형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의 발굴·제공을 위하여 광역 관광벨트와 관광루트 상품을 개발한다.

셋째, 관광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한 충남의 관광진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 입지와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가버너스에 의한 관광개발 추진하며, 인접 시·군간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을 실시한다.

또한, 수요자별 관광객 유치 촉진과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홍보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개,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다양성 유도,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공세적 자세로 추진, 정확한 목표시장 설정 및 시장 포지셔닝에 의한 홍보, 관광홍보 전담 기능의 강화, 구체적인 슬로건과 목표와 연중 캠페인 실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관광홍보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충남의 관광수요와 개발실태 분석을 통하여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계자료와 정책보고서, 국민관광여행실태조사 등의 2차 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충청남도 관광객 성향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 과제로서 충남의 관광객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16개 시·군의 관광자원 현황과 개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기초 연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향후 이들 기초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강신겸(2006),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2006 관광아카데미 관광개발 과정 교육교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경희대사업단(200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3. 김사현(1997), 관광경제학신론, 일신사.
4. 김성진(2006), 지속가능한 정주형 관광개발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7),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국민 여가활동 및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6. 문화관광부(2001),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7. 문화관광부(2006), 2006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8. 심원섭(2007), 국내관광 활성화 중장기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 안종윤(1990), “올바른 한국관광개발의 기본체계모형의 시론”, 『관광학연구』, 제14호
10. 윤양수·김의식(2002), 레저행태 변화와 여가공간 조성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1. 이인배, 충남 서해안지역 사이버 관광안내에 관한 연구.
12. 이인배·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13. 임명제(2007), “확장형모형을 활용한 관광목적지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관광학회 4권 2호
14. 장인식(2004), “관광개발의 학문적 성격과 범위”, 『여가관광연구』, 제1권 제2호
15. 정삼철(2004),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분석, 충북개발연구원.
16. 최영문(2007),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에 따른 2008년 충남관광 영향분석”, 충남발전연구원 내부워크샵 자료



17.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18. 충청남도(2006),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19. 충청남도(2006), 충청남도 관광이동통계자료.
20. 충청남도(2006), 도정백서.
21. 충청남도(2005), 충남통계연보.
22. 통계청(2005), 한국통계연감
23. 한국관광공사(2006), 2005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
24. 한국관광공사 (2005), 2004국민여행실태조사
25. 해양수산부(200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26. <http://tour.go.kr/>
27. European Commission, (2000): COM (2000) 142/2, 22.6.2000, Brussels. 및 연합뉴스
28. BBC NEWS(2003년 3월 7일), Oil threat to French tourism.
29. M.Dolores Garza-Gil, Albino Prada-Blanco and M. Xosé Vázquez-Rodríguez(2005), Estimating the short-term economic damages from the Prestige oil spill in the Galician fisheries and tourism, *Ecological Economics*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iblee@cdi.re.kr)

기본연구 2007-05 · 충남의 관광수요와 개발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전략

글쓴이 · 이인배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7년 10월 31일 / 발행 · 2007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12-1 동아일보빌딩 5-6층 (301-745)

전화 · 042-820-1170(문화관광연구팀) / 팩스 · 042-820-1129

ISBN · 978-89-6124-017-8 93300

<http://www.cdi.re.kr>

©2007.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